

文學碩士學位論文

雪橋 安錫傲의 散文 研究

2006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康 惠 圭

## 국 문 초 록

본고는 雪橋 安錫傲(1718~1774)의 散文을 고찰하여 그의 현실인식의 多面性을 해명하고, 그 현실인식이 작품세계에 형상화된 양상 및 그 산문 문학의 문예미를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석경의 생애·저술과 관련하여 그의 士意識과 文藝意識을 살펴 보았다. 안석경은 당대에 자신의 春秋義理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處士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그의 春秋義理는 당시 老論系 處士 문인이 견지한 對明義理論·北伐論·朝鮮中華意識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또한 안석경은 士로서의 책임의식을 견지하며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의 이러한 經世의 면모는 그의 춘추의리와 착중되어 있다.

안석경은 의론의 감화력에 주목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다양한 문예기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시속의 이야기가 經世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시속의 이야기 속에 윤리법칙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문장을 지을 때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안석경의 현실인식과 문예의식이 그의 산문 문학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안석경의文集인 『雪橋集』諸本을 검토하여 본고의 분석 대상 작품군으로 俠女를 서사화한 ‘女俠敍事’, 春秋義理와 經世之學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議論文’, 산수에 대한 愛好가 나타나는 ‘山水遊記’를 선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안석경의 산문을 유형별로 고찰하되, 우선 그의 ‘女俠敍事’에 나타난 주제의식을 조명하였다. 그의 여협서사는 조선후기 여협서사가 성행한 양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당시의 여협서사 성행 배경으로 다수의 노론계 문인이 견지한 대명의리론과 북벌론, 당쟁으로 인한 적대감의 고조, 중국 豪俠傳奇의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안석경은 俠女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의 대명의리론 및 북벌론에 대한 고민을 은연중에 투영하고 있다. 그는 협녀의 언행을 통해 殃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당대의 迂儒들을 비판하였다. 안석경의 여협서사에서는 보수적 담론인 ‘대명의리와 북벌론’과 여성과 천민의 능력을 주목하는 진보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안석경은 명과 조선을 君臣의 관계로 파악하였고, 신하가 주체적으로 의리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성과 천민의 의리와 능력에 주목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안석경의 의식세계에서 드러난 보수성과 진보성은 서로 영향관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음으로 안석경의 ‘議論文’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검토하였다. 안석경은 북벌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목표를 수정하면서 현실적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안석경은 反淸感情 및 북벌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 淸의 정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한편 안석경은 당대 조선에서 상층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하층이 생활기반을 잃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판하였다. 그는 민생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제안하는 동시에 상층의 도덕 수준을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그가 상층의 도덕에 관심을 기울인 점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한 동시에 혁신적인 개혁안을 사고하게 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안석경의 현실인식에서 나타나는 관념성과 현실성은 서로 길항관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본고에서는 안석경의 ‘山水遊記’를 고찰하였다. 안석경은 산수에 대한 愛好를 통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해소하였다. 동시에 그는 산수유람의 흥취를 표출하는 가운데 사회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투사하였다. 그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조선에 대한 긍지를 고양하였고, 산수의 조화로운 광경을 보면서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에 대한 생각을 투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안석경 산문의 문학사적 위상을 조명하였다. 안석경은 노론계 처사로서 춘추의리와 현실비판 의식을 동시에 견지하였으며, 이러한 주제의식을 그의 산문문학에서 다양하게 형상화하였다.

안석경의 춘추의리는 여성과 천민에 대한 인식을 갱신하고 淸에 대항하여 조선의 저항 능력을 자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안석경은 조선에 대한 긍지를 信義 있는 인간형과 산수에 대한 묘사로 구체화하였고, 당시 사회의 지향점을 ‘상하층이 공존하여 조화롭게 사는 사회’로 설정하였다. 18세기 이후 일군의 사대부들이 조선에 대한 긍지를 상실하고 타자인 淸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안석경이 조선의 주체성을 자각해간 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안석경의 산문 문학은 18세기 노론계 처사의 현실인식 및 문예경향과 연계되어 있다. 당시의 ‘俠女에 대한 관심’과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 ‘山水에 대한 愛好’는 노론계 처사를 중심으로 나타나며, 그 노론계 처사 중 다수는 안석경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안석경의 작품세계에서 다면적 현실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는 당시의 노론계 처사군의 사상적·문예적 경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雪橋 安錫倣, 女俠敍事, 俠女, 春秋義理, 老論系 處士

학 번: 2003-20001

# 目 次

國文抄錄

I. 序 論 .....	1
II. 안석경의 士意識과 文藝意識 .....	4
1. 생애와 인맥 .....	4
2. 士意識 .....	8
3. 文藝意識 .....	14
III. 『雪橋集』에 대한 서지적 검토 .....	19
IV. 俠女에 대한 관심 .....	23
1. 복수의 실패와 殃禍에 대한 믿음: 「朴孝娘傳」 .....	28
2. 복수의 성공과 迂儒 비판: 「劔女」 .....	39
V.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 .....	48
1.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와 北伐論 .....	48
2. 「擬大庭對策」의 현실 비판 .....	58
VI. 山水에 대한 愛好 .....	65
1. 山水 愛好의 양상 .....	65
2. 山水遊記의 특징 .....	69
VII. 안석경 散文의 문학사적 위상 .....	79
VIII. 結 論 .....	85

參考文獻

中文抄錄

부록1: 『雪橋集』 諸本 所載 산문의 비교

부록2: 雪橋 安錫傲 年譜

## I. 序 論

본고는 조선 후기 노론계 處士 문인인 雪橋 安錫傲(1718~1774)의 산문 문학의 특징을 고찰하여 그의 현실인식과 작품세계의 연관관계를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작가로서의 안석경이 갖는 개성과 그의 산문 문학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안석경의 문학세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漢文短篇, 漢詩 및 詩文批評, 金剛山 遊記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sup>1)</sup>

李明學 교수는 안석경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분석하여 그의 진보적인 면모를 조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안석경의 의식세계에서 보수성과 진보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석경이 詩文을 비평하면서 작품의 구조를 중시함을 밝힌 연구가 있었으며, 그의 금강산 유기에서 산수품평이 확장되고 있는 점을 주목한 연구가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안석경의 문학세계의 특징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수용하되, 그 작품세계의 기저에 존재하는 작가의 현실인식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고는 안석경의 현실인식이 多面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다면성’이 상호 ‘拮抗’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서, 안석경의

---

1) 안석경에 대한 논저는 다음과 같다.

김근태,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제28호(태학사, 2004).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山水遊記 研究」,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우리한문학회, 2005).

\_\_\_\_\_, 「雪橋 安錫傲의 金剛山 遊記」, 『漢文學報』 제12집(우리한문학회, 2005).

이명학, 「『雪橋漫錄』 研究: 漢文短篇 作家 및 作家意識에 대한 一考察」(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2).

\_\_\_\_\_, 「漢文短篇작가의 研究: 安錫傲의 경우」,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창작과 비평사, 1983).

이종묵, 「안중관·안석경 부자와 충주의 가흥강」, 『문헌과 해석』 제28호(태학사, 2004).

정우봉, 「『雪橋藝學錄』에 나타난 한시비평론」, 『漢文教育研究』 18호(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_\_\_\_\_, 「『雪橋藝學錄』의 산문수사학 연구」,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한국한문학회, 2003).

\_\_\_\_\_, 「삼교 안석경의 비평의식」, 『문헌과 해석』 제28호(태학사, 2004).

현실인식에 나타나는 ‘보수성’과 ‘진보성’ 및 ‘관념성’과 ‘현실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안석경의 현실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拮抗’이라는 말은 안석경의 현실인식의 다면적 부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양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리고 ‘보수성’은 기존의 관습이나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말이다. 반면 ‘진보성’은 사회적 모순을 변혁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관념성’은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인 성향을 뜻한다. ‘현실성’은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면모를 지칭할 때 사용되며, 현실의 이해관계 및 해결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경우를 말할 때에도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을 바탕으로 안석경의 현실인식과 작품세계의 특징을 다층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안석경의 현실인식이 갖는 다면성을 조명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그의 문예 세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의 현실인식의 다면성은 현상적으로 이해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하나의 면모와 다른 면모 사이에 어떤 숨겨진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 중 어떤 것이 좀더 규정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부차적인 지위를 점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따질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다면성이 공존할 수 있었던 원인 역시 밝혀져야 한다. 필자가 보건대 안석경의 작품에서 보이는 ‘보수성과 진보성의 길항’ 및 ‘관념성과 현실성의 길항’은 당대 노론계 산림처사에게 공통적으로 요청되었던 시대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의 이러한 추정이 설득력이 있을 경우, 안석경의 현실인식에 나타난 다면성을 분석하는 본고의 작업은 조선후기 노론계 산림처사의 사상적·문예적 특징의 일면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려 한다. 제Ⅱ장에서는 안석경의 산문을 분석하기 위한 예비적인 고찰로서 그의 士意識과 文藝意識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안석경의 산문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여, 작가의 주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표적 작품을 선별하고, 이를 본고의 분석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대표작품을 선별하기 위해 안석경의 문집인 『雪橋集』 諸本을 검토하고 그 所載 산문을 문체별로 개관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Ⅳ장, 제Ⅴ장, 제Ⅵ장에서는 앞장에서 선정된 작품을 ‘女俠敍事’,

‘議論文’, ‘山水遊記’로 각각 나누고 대표 작품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안석경의 현실인식이 형상화된 과정과 그 산문의 문예미를 고찰할 것이다. 제Ⅳ장에서는 보수성과 진보성의 관계를 중점으로 다룰 것이며, 제Ⅴ장에서는 관념성과 현실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Ⅵ장에서는 안석경의 현실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면의식을 조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Ⅶ장에서는 안석경의 현실인식과 문예적 특징이 당대 노론계 처사의 사상적·문예적 동향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고찰하기로 한다.

## II. 안석경의 士意識과 文藝意識

이 장에서는 안석경의 사의식과 문예의식을 고찰한다. 이를 위한 예비적인 고찰로서, 안석경의 생애와 인맥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생애와 인맥

안석경의 생애와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바 있다.<sup>1)</sup> 본고는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雪橋年譜』를 통해 안석경의 생애와 인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sup>2)</sup> 이 자료에 첨부된 안석경의 行狀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 행장은 안석경의 동생 安錫任이 쓴 것으로, 안석경의 생애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안석임은 안석경의 곁에서 그를 오십여 년 간 지켜 본 인물로, 그의 인격과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안석경의 字는 叔華이고 號는 雪橋·完陽이다. 그의 이름자 중 ‘徹’자에 ‘人’변이 들어간 것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며 자인 ‘叔華’에 ‘華’가 쓰인 것은 문명인이 되라는 뜻이라고 한다.<sup>4)</sup> 여기서 ‘人’과 ‘華’는 ‘禽獸’와 ‘夷狄’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안석경은 1718년 7월 3일 충청도 충주 가흥 雙杵谷에서 悔窩 安重觀(1683~1752)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19세(1736)에 潘南 朴氏 師漢의 딸과 혼인하였다. 안석경은 23세에 생활의 근거지를 忠州의 可興에서 原州의 興原으로 옮겼다.<sup>5)</sup> 그는 이십대 후반에서 삼십대 초반까지 몇 차례 과거를 보았

- 
- 1) 안석경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명학, 「한문단편작가의 연구」; 강여진, 「『雪橋集』 解題」, 『韓國文集叢刊 解題』 5(민족문화추진회, 1991), 334~339면; 김근태, 앞의 글; 이종묵, 앞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 2) 『雪橋年譜』는 명지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자는 1970년 안석경의 從六代孫 安哲淳이 필사한 것이다. 이 책에는 연보 외에도 안석경의 行狀과 祭文, 哀辭 및 安重觀의 祭文인 「悔窩公祭文」 등이 첨부되어 있다.
  - 3) “錫任五十年與居, 有以審, 智慮遠而武毅亦有過人者.”(安錫任, 「行狀」, 『雪橋年譜』, 15장 뒷면) 이하 이 글을 인용할 때 「行狀」으로 지칭하고 版心에 있는 張次를 표기한다.
  - 4) “名從人, 人之也; 字以華, 華之也. 不人則禽獸而已, 不華則夷狄而已.”(「行狀」, 22장 뒷면) 안석경의 형제들의 이름은 ‘錫佐’, ‘錫任’, ‘錫佖’로 모두 뒷글자에 ‘人’변이 포함되어 있고, 자는 ‘汝華’, ‘季華’, ‘次華’로 ‘華’가 쓰였다.
  - 5) “自忠之可興, 徙居原之興原.”(「行狀」, 14장 뒷면)



으나 낙방하였다. 안석경이 여러 차례 과거에 낙방한 것은 그가 과거에 대해 회의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李海靖은 안석경의 제문에서 그가 젊은 시절 과거 당일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기술하고 있다.<sup>6)</sup> 안석경은 34세에 자신의 春秋義理와 經世之策을 담은 『擬大庭對策』을 쓴 뒤 은거를 결심하였다.<sup>7)</sup> 35세부터는 안산의 산중에 거처하며 그곳에서 십여 년간 학문과 문장을 연마하였다.<sup>8)</sup> 이후 안석경은 안산으로부터 橫城 읍내로 옮겨 거처하다가 橫城 屯內面 靑橋里에 터를 잡고,<sup>9)</sup> 48세부터 삼교의 學舍에서 강학하였다. 49세와 53세에 博學篤行으로 조정에 천거되어 강릉참봉을 제수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sup>10)</sup> 그는 53세부터 56세까지 『靑橋別集』을 저술하였다. 안석경은 1774년 8월 18일 57세로 삼교精舍에서 생을 마쳤다.

이제부터는 안석경의 인맥과 학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안석경의 집안인 順興 安氏는 당대 名門家<sup>11)</sup>로 노론계 명문가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다. 안석경은 農巖 金昌協과 三淵 金昌翁의 집안인 安東 金氏와 인척관계를 맺었다. 안석경은 김창협(金昌協)의 외손녀인 潘南 朴氏와 혼인하였으며 그의 종형수는 김창흡(金昌翊)의 처제인 李勛佐의 딸이다. 이 때문에 안석경은 김창협과 김창흡의 생전의 일들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sup>12)</sup> 이외에도 순흥 안씨는 당대 명문가

- 
- 6) “公少時，科日不應赴，乘舟下鄉。有詩曰，‘八路文章爭是日，五江烟雨有孤舟。’又嘗有詩曰，‘功業每生驅馬地，英雄偏愛讀書山。’”(李海靖，『靑橋安公祭文』，『靑橋年譜』，49장 앞면)
- 7) “世有祧明而禰戎，以尊攘爲迂者，公艷然擬對大庭之策。”(『行狀』，16장 앞면); “是策也，辛未歲所作也，時公已決自廢矣。”(『行狀』，20장 앞면)
- 8) “三十五而孤，獨居內舍安山山中，益勵正學，而修辭之功，亦不已。”(『行狀』，14장 뒷면)
- 9) “自安山，徙寓橫之邑中，轉入靑橋以終身。”(『行狀』，14장 뒷면)
- 10) “頃歲乙酉新搆學舍靑橋中，而爲文以見意。 (…)再以博學篤行薦于朝，授康陵郎不就。世多疑其果忘，而公則未嘗忘世也，特無意於爲貧之仕耳。”(『行狀』，14장 뒷면) 천거 시기는 이명학, 『한문단편작가의 연구』와 『靑橋年譜』에 수록된 『年譜』를 통해 알 수 있다.
- 11) 順興 安氏의 당시 세력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는 『晦軒先生實記』가 있다. 이 자료는 순흥 안씨의 선조인 安珣(1243~1306)의 사적과 함께 추모하는 글을 선집한 것인데 다섯 번 중간되었다. 초간되었을 때 안석경이 跋을 썼다. 안향을 추모하는 글의 필자들은 李鼎輔, 朴聖源, 宋明欽 등으로 당대 명망이 있던 노론계 문사이다.
- 12) “三淵之妻弟，李勛佐之女，卽三淵仲父退憂堂相公之外孫也。 (…)農巖之季女，卽錫徹之外姑，李勛佐之女，卽錫徹從兄嫂，故兩端事皆所親聞也。”(『三淵入京』，『靑橋漫錄』，동양문고 소장본，亞細亞文化社 영인，1985，142면) 이하 인용되는 『靑橋

인 全州 李氏·寧越 辛氏·驪興 閔氏·恩津 宋氏 등과 인척관계를 맺고 있다.

안석경은 家學을 이어 부친 安重觀에게 受學하였는데,<sup>13)</sup> 그의 가학에는 연원이 있었다. 안석경의 증조부 安光郁은 그 장인 澤堂 李植에게 수학하였다. 조부인 竹涯 安垺는 李植과 外叔인 畏齋 李端夏를 스승으로 섬겼고 尤菴 宋時烈과 宗유하였다. 그리고 그의 仲父인 藐屋 安重謙은 송시열의 門人이었으며,<sup>14)</sup> 부친 安重觀은 김창흡의 문하에 출입하였다.

안석경의 交유관계는 조부 安垺와 부친 安重觀의 交유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 안후는 金昌翁·金昌集·閔鎮遠·李台重과 같은 老論 峻論系의 대표적 문인과 交유하였다.<sup>15)</sup> 안중관은 驪興 閔氏·寧越 辛氏·潘南 朴氏 집안의 문인과 交유했으며, 김창협과 김창흡 및 그 문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16)</sup> 안중관의 문집인 『梅窩集』에는 노론 淸宗계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보이고 있다.<sup>17)</sup> 안석경 역시 노론계 영수였던 丹巖 閔鎮遠의 손자인 警菴 閔百順, 노론계 처사인 龍村 林配垺, 宋時烈의 玄孫인 宋能相과 긴밀하게 交유하였다. 이외에도 안석경의 문집에 보이는 문인으로는 辛壽東·李象辰·丁範祖·朴弼周 등이 있다. 이들 중 신수동과 이상진은 처사였다. 또한 안석경은 김창흡을 慕모하여 꿈에서 그와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곤 하였다고 한다.<sup>18)</sup>

---

漫錄』은 동양문고본의 면수를 표기한다. 『雪橋漫錄』에 수록된 글은 원문에는 제목이 없는데,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해 낸 동양문고본에는 이명학 교수가 붙인 글 제목이 있다. 본고에서는 인용할 경우 이 제목을 따라 표기하기로 한다.

- 13) “公蓋自幼受業于梅窩先生，而世無他師友，不欲屈意於人也。終始服家訓，而內外本末備，人皆謂克紹先生之傳。”(『行狀』, 14장 뒷면)
- 14) “佐郎公學于外舅澤風堂李先生，有文行，竹涯公逮事澤風先生，及舅氏畏齋公，而從遊華陽宋先生，得正學而詞藝亦爲名。公所推仲父藐屋公諱重謙，亦師華陽先生，以篤學名著儒林。而梅窩先生因家學，而益自振卓然有成，兼文章經緯之業而有之。公生于道藝之門，而才性夙通，未童而曉習經史，出語輒動人，飲食起居一於書籍筆硯間，未或隨羣兒。”(『行狀』, 13장 앞면)
- 15) 이들은 安垺의 輓辭를 짓고 있다. 『竹涯公輓辭』, 『雪橋年譜』 참조.
- 16) 안중관은 김창협 및 김창흡의 문인인 李秉淵, 趙榮祐, 趙裕壽, 洪重聖 및 위항시인 洪世泰, 鄭來僑 등과 交유하였다. 안중관의 交유관계는 『梅窩集』과 『皇賜梅詩文帖』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皇賜梅詩文帖』은 안중관이 ‘李廷龜가 만나라 神宗에게 하사받은 梅詩’에 대해 南漢紀, 趙龜命, 金時敏, 李秉淵, 李英輔 등과 함께 만든 문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17) 안중관의 문집 『梅窩集』에 보이는 문인으로는 閔鎮遠, 鄭濬, 李箕鎮, 金陽澤 등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堂評책을 비판하였고 大明의리론을 견지하였다.
- 18) 『夢百淵先生記』, 동양문고본 『雪橋集』, 173~174면; 『夢百淵先生談詩記』, 동양문고본 『雪橋集』, 181~183면 참조. 안석경은 三淵 金昌翁을 百淵先生이라 지칭하였다.

한편 안석경이 교유한 문인 중에는 北學派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인물이 다수 존재하였다. 안석경의 벗인 민백순은 洪大容의 부친 洪櫟의 친구로서, 洪대용이 조선 文士의 詩를 淸의 高士 潘庭均에게 보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나서서 『海東詩選』을 편찬하였다. 이 『海東詩選』의 편찬에는 안석경 역시 참여하여 詩의 선집 방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sup>19)</sup> 안석경과 교유한 임배후는 李德懋와 朴齊家 등과 중유하였으며,<sup>20)</sup> 성대중 역시 북학과와 긴밀히 교유하였다. 안석경은 북학과와 직접 교유하지는 않았으나, 교유하는 문인들을 통해 북학파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sup>21)</sup> 요컨대 안석경은 노론계 처사로서 부친을 통해 알게 된 노론계 인사들 및 당대 산림처사들과 교유하였고 북학과와도 간접적인 교유관계를 맺었다.

당대 안석경에 대한 평으로는 성대중, 成海應, 정범조 등이 남긴 기록이 있다. 이들의 평을 살펴보면 안석경은 춘추대의를 고수하였고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론을 계승하였고,<sup>22)</sup> 김창협과 김창흡을 어버이처럼 여겼다.<sup>23)</sup> 또한 천하의 일을 고민하였고, 은거하며 몸소 밭을 개간하였으며, 산수유람을 즐겼다.<sup>24)</sup> 특히 성대중과 그의 아들 성해응은 안석경이 높은 식견과 큰 재주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뜻을 펼치지 못한 것을 애석해하였다.<sup>25)</sup>

19) “先輩詩中, 其有春秋之微辭者, 若不甚發露, 則亦以入選如何? (….) 先集中亦當依教書進百餘首.”(『答閔順之』, 규장각본 『雪橋集』 권6, 『韓國文集叢刊』 233집, 545면)

20) 李德懋는 임배후에 대해 그가 안석경과 함께 명망이 높았다고 하였다. (『林龍村』, 『淸脾錄』 권4, 『국역 청장관전서』 VII에 첨부된 영인본, 53면) 참조. 이덕무가 임배후와 시를 수창한 내용은 『漁洋論詩』(『淸脾錄』 권1, 『靑莊館全書』 권32, 같은 책, 12면)에 보인다.

21) “嚴、陸或者江南之志士, 則今但示之以東人月露之作, 寧不爲所笑乎?(『答閔順之』, 앞의 책, 같은 곳) 안석경은 洪대용의 벗이었던 嚴誠과 陸飛, 潘庭筠에 대해 강남의 志士라고 하여 이들의 인물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안석경이 민백순을 통해 洪대용의 연행체험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2) “常以孝廟 尤翁之心爲心.”(成大中, 『雪橋安公哀辭』, 『靑城集』 권10, 『韓國文集叢刊』 248집, 540면)

23) “自能疆大農 淵後, 元是商量父子間.”(丁範祖, 『輓安叔華』, 『海左集』 권5, 『韓國文集叢刊』 240집, 108면)

24) “未嘗一日忘天下, 然無可乘之機, 竟齋志以歿.”; “林壑孤絕, 不與世相聞, 躬耕以自給.” “澹然自樂然, 時騎牛出山.”(成海應, 『世好錄』, 『研經齋全集』 권49, 『韓國文集叢刊』 275집, 36면)

25) “吾嘗聽其論而窺其奧矣, 使出而有爲, 庶乎其尊經術而黜異教, 重國勢而制外侮, 登士類而破淫朋, 以輔吾東一王之治, 而惜乎, 其止於此. 徒以文章顯, 以隱遯稱也.”(成大中, 『雪橋安公哀辭』, 앞의 책, 같은 곳); “公若當孝廟時, 廁諸賢立于朝, 必能決深遠之謨, 以折衝於萬里之外, 亦能秉鉞仗節, 指麾三軍之衆, 建功業於天山之上, 顧不

## 2. 土意識

안석경은 老論系 처사문인으로서, 그의 사상적 지향은 당대 노론계 문인의 동향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안석경의 사의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대 노론계 문인의 시대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석경이 활동했던 시대는 조선이 淸과 화친을 맺은 지 백여 년이 지난 시기로, 노론계 문인을 중심으로 17세기에 팽배했던 對明義理論과 北伐論 및 朝鮮中華意識이 이어지고 있었다. 17세기 조선의 사대부들은 丙子胡亂에서 淸의 무력에 굴복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中華인 明이 夷狄인 淸에 의해 멸망됨으로써 전통적 국제질서가 붕괴된 것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明에 대해서는 義理論을, 淸에 대해서는 北伐論을 견지하였고, 조선 스스로에 대해서는 기존의 小中華의식을 더욱 강화하여, 중화문명의 유일한 保持者로 自任하면서 조선의 주체성을 확인하려 하였다.<sup>26)</sup> 이에 소중화의식은 조선중화의식으로 전환되었다.<sup>27)</sup> 당시 조선의 많은 사대부들은 대명의리론과 북벌론 및 조선중화의식을 견지한 채, 조선이 淸과 화친하는 현실에 분개하여 은거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尹宣擧와 朴世堂을 비롯한 소론계 문인은 대명의리론 및 북벌론의 허구성과 관념성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에 이르러 이들의 주장은 소론과 남인 계열 일각에 의해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다.<sup>28)</sup> 이에 따라 은거했던 사대부들은 차츰 조정에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성해응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가 丙子(1636)·丁丑年(1637)의 난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선비들이 모두 강개하여 분노하고 한스러워하며, 그 몸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여 많이 산림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윽고 사망이 편안해져 무사하고 오랑캐 또한 우리를 慰撫하기를 품어주고 적셔주는 은혜로써 하니, 선비들은 또한 이에 힘쓸려 조정에 나가 벼슬하고, 금과 비단에 사역되는 것

---

得施諸用, 乃湮沒而無以見其志.”(成海應, 「題安雪橋行狀後」, 『研經齋全集』 권33, 『韓國文集叢刊』 274집, 242면)

26)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일지사, 1995), 56면 참조.

27)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일지사, 1998), 17면 참조.

28) 유봉학, 앞의 책, 60~61면 참조.

을 보면서도 편안한 듯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sup>29)</sup>

이러한 소론과 남인 계열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론계 문인은 대명의리와 북별론을 극도로 강조하며 절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sup>30)</sup> 그런데 당시 집권층 노론과 노론계 처사가 견지한 대명의리론 및 북별론은 다소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집권층 노론은 왕실과 함께 대명의리론을 정국 주도권의 명분을 유지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sup>31)</sup> 집권층 노론의 이러한 경향은 대명의리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층은 대명의리를 지키는 방도인 북별책은 논의하지 않고, 大報檀을 설치하여 대명의리의 수호자라는 명분을 세우고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의 노론계 처사군은 명에 대한 의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은 관념적인 북별론을 견지하였고 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론계 문인이었던 안석경은 처사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안석경의 은거는 부친 안중관의 出處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안석임은 다음 글에서 안중관과 안석경의 은거의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① 悔窩 선생(안중관을 말함-인용자)이 은거할 초기에 「出處說」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夷狄이 천하의 임금 노릇을 하니, 곧 陰이 陽을 타고 禽獸가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천하의 변고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선비들의 出處에는 뚜렷한 법도가 절로 있으니, 어지러운 나라와 더러운 조정에 들어가 처하기를 또한 즐기지 않고 스스로를 감춘 점이 있었다. 그런데 하물며 陰이 純一하게 되고 禽獸가 둘러싼 시대에 벼슬하기를 달게 여기겠는가!

(…)혹자는 ‘우리 동방이 하나의 나라로서 이미 저들과 구별되는데, 어찌 벼슬을 꺼릴 필요가 있겠는가?’라 하나, 이는 옳지 않다. 국가를 스스로 강하게 하지 못해, 마침내 저들의 속국이 되었으니 바로 머리를 꺾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찌 구별되겠는가? 그 또한

29) “國家自遭丙、丁之變，士皆慷慨忿恨，自欲潔其身，往往入山林而不反。既而四方安樂無事，虜亦撫我以煦濡之恩，士又靡然仕宦于朝，視金縉之役，恬然無所怪。公生於百年之後，獨秉志不渝，介然如石，隣鹿豕而塊居，窮苦困餓，沒身於邱壑。”(成海應，「題安雪橋行狀後」， 앞의 책, 242면)

30) 유봉학, 앞의 책, 62면 참조.

31) 유봉학, 앞의 책, 59면 참조.

구차스럽게 하는 말일 뿐이다.”<sup>32)</sup>

② 공(안석경을 말함-인용자)이 스스로 은거한 것은 부득이해서였다. 尊王攘夷의 뜻을 펼 수 없으니, 산야에 은둔하여 스스로 제 몸을 깨끗이 했을 따름이다. (…)평소에 군자의 出處하는 법을 듣고, 자신의 학문이 차츰 진보함에 스스로 살펴 마침내 과거시험에 다시는 나아가지 않았다. 장성함에 사람들은 時務를 아는 將相의 그릇이라 여겼으나, 마침내 스스로는 山野에서 문을 닫고 마치 세상에 뜻이 없는 듯이 하였다.

돌아보건대, 일찍이 皇明의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것을 애통해 하고 오랑캐에게 복수할 수 없는 것에 분노하였으며 개연히 宋先生(송시열을 말함-인용자)의 忠義를 흠모하였으니, 때를 기다려서 몸을 떨쳐 일어날 뜻을 진실로 스스로 그치지 않았었다. 이러한 마음이 문자 사이에 드러난 것이 몹시 많았다.<sup>33)</sup>

예문 ①에서 안중관은 조선이 청과 외교하는 상황에서 오랑캐가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오랑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문 ②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안석경이 ‘尊王攘夷’의 뜻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은거하였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존왕양이’는 멸망한 명을 회복하고 청에게 복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안석경은 벼슬에 나가더라도 복벌을 실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sup>34)</sup> 이에 그는 두 차례 강릉참봉을 제수받았으나 淸王의 紀年이 적힌 教旨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32) “悔窩先生隱居之初, 有著「出處說」曰: ‘夷狄之君天下, 乃陰而乘陽, 獸而長人, 其爲天下之變, 可勝道哉? 士之出處, 自有常法, 其於亂邦穢朝, 亦不肯入處, 而有以自臧, 况純陰之代, 禽獸之囿, 而甘心於沒沒乎! (…)或者曰: <我東之爲國, 既別於彼, 何嫌於作仕?> 是不然. 國不能自強, 而乃與之爲屬, 則直不剷頭髮, 而左其衽耳, 庸詎別乎! 其亦苟爲之說者也.”(『行狀』, 14장 뒷면~15장 앞면) 안중관의 『出處說』은 『悔窩集』 권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9~23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하 『悔窩集』을 인용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본의 면수를 표기한다.

33) “公之自廢, 非得已也. 尊王攘夷之志, 有不可以伸之, 則遜處山野, 自潔其身而已. (…)雅聞君子出處之經, 及我之學稍進而有以自審, 則遂不復就國試, 方壯歲人以謂識時務將相之器, 而乃自閉山野, 漠然若無意於世也. 顧嘗痛皇明之不祀, 憤讐虜之未報, 慨然慕宋先生之忠義, 而待時奮身之意, 實有不自已者, 見于前後文字間, 不翅多焉.”(『行狀』, 12장 뒷면~14장 뒷면, 앞으로의 인용예문에서 밑줄은 인용자가 한 것이다.)

34) “悔窩先生筆之于書曰, ‘仲兒閉戶溫尋. 盖知時變之不可與有爲也.’”(『行狀』, 14장 뒷면)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sup>35)</sup> 그 가운데 안석경은 북벌에 대한 의지를 견지하였다. 그는 효종과 같은 임금을 만난다면 북벌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sup>36)</sup>

안석경은 당시 집권층이 명 황제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를 대명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행동은 대명의리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37)</sup> 안석경은 명에 대한 의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방안은 북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안석경의 대명의리와 북벌론은 조선중화의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다음 예문에서 그 실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더군다나 조선이 비록 小中華를 칭하나 아직도 오랑캐 언어를 쓰니 이 또한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신하로서 오랑캐 황제를 섬기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무슨 흠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 덕은 이미 갚을 수 없고 원망 또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sup>38)</sup>

② 우리나라는 비록 九州의 밖에 있으나 실로 중화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천하에 바른 임금이 있으면, 신하로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 천하에 임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바르지 않으면, 경계를 닫고 스스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匹夫도 절의를 지켜 오히려 더러운 군주에게 몸을 굽히지 않거늘, 하물며千里되는 국가로서 속할 곳을 가리지 않고 부정한 오랑캐를 달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華夷를 구분함에 우선시되는 것은 ‘예의’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크게는 五倫이 있고, 작게는 五事が 있습니다. 또한 관대와 의복, 음식과 그릇이 모두 大明의 성대한 문물과 같습니다.

35) “嘗言, ‘皇明吾父母邦也, 父母之讐未復, 吾何以仕?’ 除康陵參奉不就曰, ‘吾不忍見教旨書濇主紀年也.’ 卒不出山而終.”(成海應, 『世好錄』, 앞의 책, 36면)

36) “公既隱處而嘗謂錫任曰, ‘太公處東海之濱, 以待天下之清, 後遇文、武, 作而興焉. 今吾輩不欲陪臣於夷狄, 固義也. 若遇我孝廟可以立事, 則出尤大義也.’”(『行狀』, 15장 뒷면)

37) “今者我殿下因壇起廟, 并祀太祖、神宗、毅宗三皇帝, 體貌隆重, 位設顯嚴, 祀事明潔, 就此禮而言之, 亦可謂無憾矣. 雖然, 我孝廟之御國也, 曾未有太報壇, 宋文正之在世也, 亦未有萬東祠, 豈非所圖者有大於此而然耶? (...)既不能提兵北討, 恢復神州, 以立朱氏而起九廟, 則傳所謂猶愈於已者, 倘在此乎! 而朝鮮之人, 或以此爲可以塞臣子之責則非也.”(『擬大庭對策』, 규장각본 『雪橋集』 권7, 『韓國文集叢刊』 233집, 574~575면) 이하 『擬大庭對策』의 원문 인용은 모두 이 자료에 의거한다.

38) “且朝鮮雖稱小中華, 而尙有夷音則是亦夷也. 以夷臣於夷皇, 抑何害乎! (...)今幾年耳, 德已無可報, 而怨亦已可忘矣.”(『擬大庭對策』, 571면)

다. (...)두 신하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은 바른 것이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sup>39)</sup>

예문 ①은 안석경의 글에 묘사된 親淸派의 주장이다. 조선 또한 夷이기 때문에 夷인 청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며 明의 옛 은덕과 淸에 대한 원망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예문 ②는 이를 반박하는 안석경의 주장이다. 華夷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의가 되어야 하며, 이에 조선은 예의가 있으니 華라는 것이다. 따라서 華인 조선은 夷인 청을 섬길 수 없고 멸망한 華인 명을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안석경은 예의와 문화를 기반으로 중화로서의 조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송시열의 춘추의리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석경은 이를 기반으로 조선인의 信義와 조선 산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sup>40)</sup> 조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중화의 실질에 힘쓰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sup>41)</sup>

또한 안석경은 布衣로서 백성을 구제하여야 한다는 士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졌다.<sup>42)</sup> 이러한 士의 책무에 대한 자각은 그의 經世에 대한 고민과 결부된다. 안석경의 경제에 대한 고민은 그가 34세에 집필한 『擬大庭對策』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다음 예문은 안석임이 『의대정대책』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공(안석경을 말함-인용자)이 이 대책에서 또 임금께 책무를 진술하되, 實學에 힘쓰고 도덕을 밝히고 바르게 하며, 이로써 세자를 인도하고 기르고, 안으로는 궁실을 바르게 하고 종친과 인척을 바로잡으며, 밖으로는

39) “我東雖在九州之外，實有中華之懿。使天下有正君，則臣附之宜也。使天下無君，有亦不正，則閉境自守宜也。匹夫守義，尙不屈身於汚君，況以千里之國，而不擇所屬。甘受不正之餘汚哉？華夷之辨，所先者禮義也，而我國之俗，大而五倫，小而五事，暨冠帶衣服飲食器用，一如大明之盛。 (...)二臣而事一君正也，一臣而事二君不正也。”(『擬大庭對策』, 572면)

40) “朝鮮之人，其粗曉道義者，固已奮然皆以彼虜爲可伐矣。”(『擬大庭對策』, 573면) 안석경이 조선인의 信義에 주목하는 것은 본고 제IV장에서 논의되며, 그의 조선에 대한 긍지가 그의 산수유기에서 발현되는 양상은 본고 제VI장에서 논의된다.

41) “華之爲華，亦以五倫之盛也。圓顛方趾，何足以分人獸？高冠博帶，何足以別華夷？欲自異於禽獸夷狄之類也，惟在庸行之克謹，大倫之靡缺也已矣。今也，九州之人，去其髮而衽以左，混然夷狄之俗矣。獨吾東方幸而有華夏冠帶之儀，而猶夫人也。然不可以此自多也。盍亦勉其爲人爲華之實也？”(『行狀』, 22장 뒷면)

42) “在布衣家居，亦隨其見聞，所逮力量所及，而有救活之責，決不可苟然而已。”(『雪橋漫錄』, 5면)



조정과 州·郡·縣을 바로잡고, 백성과 문물을 보존하며, 국방을 튼튼히 하고, 가르치고 기르는 법을 넓히며, 과거제도를 공정히 하고, 기강을 세우고 풍속을 권장하는 등 수십 가지 일에 각각 그 막힌 폐단을 트이게 하고 구제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법을 나열하여 무려 수만 자로도 다 기록할 수 없었다.<sup>43)</sup>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안석경은 상층의 책무를 일깨우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하층민의 삶을 개선하는 여러 제도를 모색했다. 안석경은 『의대정대책』에서 당시의 특권층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영조는 탕평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臣權 및 산림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이에 독단적인 정국 운영이 실행되었으며 국가의 재물이 왕실과 그 인척에 의해 사적으로 횡령되었다.<sup>44)</sup> 그 결과 백성의 생활은 더욱 피폐하게 되었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안석경은 이러한 조선의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고 빈민과 병자를 구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지금껏 살펴본 안석경의 춘추의리와 경세지학은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북벌을 추진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백성의 어려운 생활은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안석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지금 전하의 신하로서 조선에 대해 계책을 낸다면, 나라 안의 인심이 흩어지고 물력이 고갈되어 있어, 북벌의 병력을 실로 갑자기 일으킬 수 없습니다. 관문을 닫고 절약하는 것 또한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모하는 것은 빨리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하께서는 실로 불을 잡고 물을 꺼안는 志操에 힘쓰고, 능히 복수하고 치욕을 씻으려는 생각을 굳게 지키십시오. 여러 신하들을 책려하고 정신을 모아야 境內가 속히 온전해지고 모든 일에 흠이 없을 것입니다.<sup>45)</sup>

43) “公於是策，又陳人主務實學、明道正德，亦用此導養儲貳，內而正禁掖、正宗親姻戚，外而正朝廷、正方州郡縣、保民物、完武備、恢教養、公選舉、振綱紀、礪風俗。凡數十事，各疏其弊，又條其救藥之法，無慮數萬言，有不可殫記。”(『行狀』, 20장 앞면)

44) 이러한 영조의 독단적 정국운영에 대해서는 이희환, 『경종대 당쟁과 영조의 탕평책』, 『조선후기 당쟁연구』(국학자료원, 1995), 282~313면 참조.

45) “今在殿下臣子爲朝鮮計者，國中人心離散，物力耗竭，北伐之兵，實未可遽興，而閉關絕約，亦未可遽爲也。抑其謀則不可不早定。願殿下實勵握火抱水之操，而克固復讎雪恥之念。提策群下，聚精會神，亟完境內，百事無缺。”(『擬大庭對策』, 575면)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안석경은 당대 현실에서 북벌을 단기간에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석경은 장기적 안목으로 북벌론을 견지할 때 당면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염두에 두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안석경이 북벌과 民生을 동시에 고민한 것은 효종과 송시열의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것에서 기인한다. 안석경은 병력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벌론을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효종의 군비 확충 및 군사력 강화정책과 접맥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종의 이러한 정책은 민생의 안정을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백성과 산림의 지지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 효종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북벌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士類에게 명망이 높았던 송시열을 등용하였다. 송시열은 민생의 안정을 강조하였고, 군병과 군비의 확보를 위해 戶口와 토지의 조사를 시행하려고 하였다.<sup>46)</sup> 안석경이 북벌을 염두에 두고 당면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주장한 점은 송시열의 정책과 상통하고 있다. 송시열의 『己丑封事』와 안석경의 『의대정대책』을 비교해보면, 안석경은 송시열의 정책을 대거 수용하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석경은 효종과 송시열의 밀담을 기록한 『獨對說話』의 내용을 자신의 『熙政堂宋文正先生獨對記』에 모두 삼입해놓고 있는바, 이를 통해 그가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책 및 여타 정책을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안석경은 장기적으로 춘추의리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민생의 안정에 기반을 둔 군사력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文藝意識

지금부터는 안석경의 문학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전단계로 그의 문예의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석경은 17세부터 십여 년간 詩에 몰두하였고, 27세 이후에는 시보다 문장에 치력하고 經世濟民에 뜻을 두었다.<sup>47)</sup> 또한 안석경은 朱子

46) 효종과 송시열의 북벌책에 대해서는 오항녕,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 9집(翰林大學校 泰東古典研究所, 1993) 참조.

47) “歲丙寅自題詩卷曰『童時所願慕』, 亦非淺薄. 自甲寅來不幸沈溺於詩, 頗有篇章, 蓋亦庶幾焉. 惜乎! 朝銳之氣用十年於閒漫也. 又曰, ‘自甲子來, 知曩之爲者非矣.’ 蓋公

의 『資治通鑑綱目』과 兵書를 보는 것을 좋아하였다.<sup>48)</sup> 『자치통감강목』은 춘추대의와 명분을 강조한 책으로, 안석경은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춘추대의를 확고히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兵書를 즐겨 읽었다는 점 역시 북벌론과 일정한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안석임은 안석경의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士友를 위해 문장을 짓게 되면, 그때마다 평소 곧게 하고 힘쓰던 바를 각각의 주제에 맞추어 표현해내었다. 마음을 세우고 행동을 제어하는 아름다움과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비호하는 성대함은, ① 비록 그 사람이 감당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아마도 일세를 교화한 사대부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춘추의리는 공이 평소에 견지하여 항상 말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었다.

(…)공(안석경을 말함-인용자)은 또한 여러 사람들을 위해 힘써 음양과 귀천의 분수를 거듭 밝혔으며, 運勢의 기미를 밝게 고하였다. ② 비록 심상히 거처하며 한가히 있는 사이에도 차츰 주위의 무리를 감동시켰으니, 큰 의론을 세움이 이와 같았다. 이는 사람마다 모두 陽을 높이고 陰을 억제하며 華를 귀하게 여기고 夷를 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고 天理가 멀하지 않게 보존하고 이미 무너져 가는 世道를 회복하고자 함이었다.<sup>49)</sup>

안석임은 ①에서 안석경이 문장에 있어 교화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말하고, 그 예로 그가 항상 춘추의리를 말한 점을 들었다. ②에서는 안석경이 주위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큰 의론을 세웠다고 하여, 그가 文章에서 주장을 세우는 것을 중시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안석경의 주장은 어떠한 것일까? 앞의 예문에 서술된 춘추의리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

之詩, 成於是時, 而不復事也. 遂致力於文章, 加意於經濟, 而以道義問學爲根本, 終始之業, 故三十以後, 則學幾通而文亦幾矣.”(『行狀』, 14장 앞면)

48) “公時好讀『孟子』、司馬史、老杜七言古詩, 好觀『朱子綱目』及兵家書.”(『行狀』, 13장 뒷면~14장 앞면)

49) “凡爲士友作文字, 輒以所嘗規勉者, 隨其題而發之, 立心制行之懿, 尊王庇民之盛. ① 雖其人不足以承當, 而亦且爲之申說不已. 盖可以風一世之士大夫也. 若夫春秋之義, 最公之素秉而常言也. (…)公且爲衆人勉之, 申明乎陰陽貴賤之分, 曉告以傾否開泰之機. ② 雖尋常居處閒放之境, 而稍有觸感者, 立大議論如是, 是欲使人人皆懷扶陽抑陰貴華賤夷之心, 而存天理之未泯, 回世道於既頹者也.”(『行狀』, 26장 뒷면~27장 앞면)

와 함께 經世濟民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안석경이 『漫錄』을 편찬한 생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석경은 『삼교만록』의 自序에서 시속의 이야기에 대해 “학문에 미숙하고 우매한 자와 관직에 있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에게 반드시 無益하지만은 않을 것”<sup>50)</sup>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안석경은 시속의 이야기가 학문을 밝히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작고 거친 이야기의 가치를 적극 인정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어떤 자가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크고 작은 것이 서로 섞여 나열되어 있고, 정밀하고 거친 것이 어지럽게 진열되어 있군요. 왜 거친 것을 깎아내고 정밀한 것을 취하지 않으며, 작은 것을 떼어내고 큰 것을 보존하지 않습니까?”라 하였다.

내가 사례하며 대답하였다. “모두가 작은 것이니 어찌 큰 것이 있겠으며, 모두가 거친 것이니 어찌 정밀한 것이 있겠는가. 道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없으며 정밀한 것 거친 것 없이 모두 사람이 마땅히 알아 실천해야 하는 바일세. 돌아보건대 정성된 道의 쓰임과 큰 덕의 시행은 사람마다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며 일마다 모두 그렇게 되는 바가 아니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모든 일이 마땅히 그러한 것은 작고 거친 것에 실제로 많다네.”<sup>51)</sup>

위의 예문에서 或者가 작은 것을 산삭하고 큰 것만 남기라고 하자, 안석경은 작고 거친 것이 오히려 많은 일에 두루 통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안석경은 작고 거친 것이 가지는 보편성에 주목하고, 그 효용성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또한 안석경은 문장을 짓는 법에 관심을 기울였다. 다음 두 예문을 보기로 한다.

① 문장에는 체제가 또한 많으니 하나로 묶어 말할 수 없다. 문체는 起伏

50) “然未必無益於入學之釋昧，在位之賢能矣”(『雪橋漫錄序』, 『雪橋集』 규장각본 권3, 488면).

51) “有見而笑之者曰：‘大小錯列，精粗雜陳，何不刊粗而取精，捐小而存大乎?’ 余謝曰：‘皆小也，何大之有? 皆粗也，何精之有? 抑自道而言之，則無大小無精粗，皆人所當知而當行者也。顧精義之用，大德之施，有非人人之所能，而事事之皆然也。蓋每人而可能，每事而宜然，則小與粗者，實爲多焉。’”(『雪橋漫錄序』, 앞의 책, 488면)

이 있어야 한다. 칼날을 날려 좌우로 검을 번득이다가 적의 머리에 도달하여 베듯이 단번에 적의 군사를 찍어내야 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창칼을 번쩍이며 말에 올라타고 도는 것이 마치 관운장이 아름다운 대장기를 바라보며 일만의 군중 속으로 들어가 赤兔馬를 타고서 靑龍刀를 들고 춤추며, 앞에서 번쩍이고 뒤에서 치며, 오른쪽으로는 훌쩍리고 왼쪽으로는 통겨대며, 번개가 번쩍하고 천둥이 치고 눈이 휘날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듯 한다. 이에 범처럼 뛰어올라 매처럼 낚아채어 대장을 격파해 그 목을 취할 뿐, 나머지는 군세게 분탕질을 해 좌충우돌하다 어지럽게 나부끼며 학이 도약하듯이 하여 돌아온다.<sup>52)</sup>

② 고인들이 음악을 제작함에도 이와 같은 점이 있었다. 이른바 ‘關雎’장은 먼저 산만한 소리와 범범한 음조를 깔고 피꼬리의 울음, 河水 물가 섬의 넓음, 아리따고 고운 여자의 형상, 군자의 용모를 모은다. 다음으로는 길고 짧은 물미나리와 좌우로 물길 따라 캐는 모습, 요조숙녀의 형상, 오매불망 구하는 마음, 輾轉反側 잠 못 이루는 모습, 슬피하면서도 마음을 상하지는 않는 정서 등을 모은다. 또 다음으로는 물미나리를 좌우로 캐는 모습, 요조숙녀의 형상, 거문고와 비파로 친애하는 모습 등을 모은다. 또 좌우로 종묘 제사에 올리는 모습, 요조숙녀의 형상, 鐘鼓 음악의 즐거움, 즐거워하되 넘치지 않는 뜻 등을 모은다.

五音과 六律이 합해지는 듯, 하나로 어울리는 듯, 또렷이 밝은 듯, 실낱 같이 이어지는 듯하여 사람의 肺腑와 血脈을 움직이고 사람의 視聽과 생각을 감발시켜, 고무시키고 흥기시키는 때에 이르기를 기다리면, 비로소 거두어지고 바로잡혀서 성대하게 3장의 가사를 노래 부르고 영탄하며 넘쳐흐르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드는 까닭이다. 가령 음악을 시작할 때에 갑자기 3장의 가사를 부를 따름이면, 그 어떻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폐부에 깊이 스며들게 하겠는가?<sup>53)</sup>

52) “文亦多體，不可以一槩言也。文之體，或有起伏，揚鋒左右，翻刀而到頭，砉然一斫敵師，乃耀兵盤馬而旋者，如關雲長之望見良磨蓋，而入於萬衆之中，騁赤馬，舞龍刀，前閃後撤，左撒右撥，電炫雷馳，雪滾風捲。及其虎騰而鷲攫也，只斫取大將而已，餘勁跳盪，剩怒衝突，亂翻鶴躍而還也。”(『文體』, 『雪橋漫錄』, 41면)

53) “古人之作樂，亦有如此。如所謂關雎之亂者，蓋先爲散聲泛調，以衆雉鳩之鳴，河洲之曠，窈窕之狀，君子之容，而次衆參差之荇，左右之流，窈窕之狀，寤寐之求，轉展反側，哀而不傷之情，次衆參差之荇，左右之採，窈窕之狀，琴瑟之友，又衆左右之芼，窈窕之狀，鐘鼓之樂，樂而不淫之意，五音六律，翕如純如，而噉如繹如也。以動盪人之臟腑血脈，感發人之視聽思想，待其至於鼓舞興起之際，方始收整，而洋洋乎歌三章之辭，咏歎而淫液之，此所以爲入人之深者也。若於樂之始作，遽歌三章之辭而已，則其何以

예문 ①에서 안석경은 문장 짓는 법을 戰場에서 적을 치는 법에 비유하며 문체에 起伏과 단계가 있어야 하되 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문장을 쓸 때에는 긴장을 유지하고 적장의 머리를 베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예문 ②에서는 문장 짓는 법을 음악에 비유하여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킬 것을 주장한다. 문장은 감정을 움직이고 생각을 감발시켜 독자의 감흥을 점차적으로 고조시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석경은 문장의 교화력을 주목하고 감동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모색은 특히 안석경이 쓴 의론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까지 안석경의 생애 및 사의식과 문예의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안석경이 노론계 처사로서 보수적 담론이었던 춘추의리를 견지했던 동시에, 당시 현실에 대한 개혁안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석경이 시속의 이야기 속에서 이념적인 윤리법칙을 주목하였고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키는 것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본고는 이러한 안석경의 현실인식과 문예의식이 그의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感動於人，而泌入其臟腑耶?”(『文體』, 앞의 책, 42면)

54) 이와 관련하여 안석임이 안석경의 문장에 대해 평한 글을 참고해볼 수 있다. “錫任嘗謂公曰：‘仲氏文章，百萬衆，武侯之陣，布之原野，坐作進退，惟大將旗鼓是視，而大將口申誓命，終日不自休。’公笑而然之。”(『行狀』, 27장 앞면)

### Ⅲ. 『雪橋集』에 대한 서지적 검토

이 장은 안석경의 산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써, 『雪橋集』의 諸本을 검토하고 그 중 작품세계의 특징이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을 선정하기로 한다.

#### 『雪橋集』의 諸本

현재까지 알려진 안석경의 『雪橋集』으로는 奎章閣本·東洋文庫本·家藏本이 있다. 이들 본은 각각 글의 出入에서 차이를 보여 어느 한 본을 정본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규장각본은 7권 4책이고 목활자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이 본은 1906년 안석경의 외현손 李種元이 家藏 草稿를 刪定한 것이다. 문체별로 배열되어 있고, 여타의 본에 산문만 수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詩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본 『雪橋集』은 1999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영인 출판되었다.<sup>1)</sup>

동양문고본은 불분권 5책이고 필사본이다. 序·跋이 남아있지 않고 창작연대순으로 작품이 배열되어 있다. 동양문고본은 1985년 亞細亞文化社에서 『雪橋集 上(文集)』, 『雪橋集 中(附 奎章閣本)』으로 영인 출판되었다.<sup>2)</sup>

가장본은 7권이고 필사본이다. 권6까지는 문체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권7은 일정한 체계 없이 글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본에는 다른 본에 비해 산수유기와 실용문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본은 2001년 토우출판사에서 『筆寫本 雪橋集 二』로 영인 출판되었다.<sup>3)</sup>

『雪橋別集』은 東洋文庫本과 家藏本이 있는데 모두 필사본이다. 『雪橋別集』

- 1) 본고에서 규장각본 『雪橋集』을 인용할 경우 민족문화추진회 영인본인 『韓國文集叢刊』 233집의 면수를 표기한다.
- 2) 한편 함께 영인 출판된 『雪橋集 下(漫錄·藝學錄)』는 동양문고본 『雪橋別集』을 영인한 것이다. 본고에서 동양문고본 『雪橋集』과 『雪橋別集』을 인용할 경우 아세아문화사 영인본의 면수를 표기한다.
- 3) 함께 영인 출판된 『筆寫本 雪橋別集 三』은 가장본 『雪橋別集』을 영인한 것이다. 본고에서 가장본 『雪橋集』과 『雪橋別集』을 인용할 경우 토우출판사 영인본의 면수를 표기한다. 그 외의 안석경의 산문 저작으로 규장각에 독립된 책으로 소장되어 있는 『東行記』가 있다.

은 『雪橋漫錄』, 『雪橋藝學錄』, 『雪橋識聞』으로 구분되는데,<sup>4)</sup> 『漫錄』과 『藝學錄』은 동양문고본과 가장본에 모두 수록되어 있고, 『識聞』은 가장본에만 수록되어 있다. 동양문고본 『漫錄』은 6권 5책인데 가장본은 권3 이후가 없고, 권1과 권2가 남아있다. 동양문고본 『藝學錄』은 불분권 3책으로 天·地·人 3책인데, 가장본은 동양문고본을 기준으로 볼 때 人부분이 遺失되고 天과 地부분만 존재한다.

### 『雪橋集』所載 산문의 문체별 概觀

이제 『雪橋集』所載 산문을 문체별로 개관해 본다. 규장각본과 동양문고본, 가장본 『雪橋集』所載 산문의 글 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1. 『雪橋集』所載 散文

	규장각본	동양문고본	가장본
序	21	20	19
記	25	60	67
題跋	7	18	26
說	2	5	5
論	6	11	11
頌	1	2	1
贊	5	4	4
墓誌銘	0	0	3
箴銘	2	2	2
書	6	19	5
傳	3	5	1
狀	0	3	6
行狀	1	3	4
行錄	0	5	6
祭文	13	12	14
誄詞	4	9	7
對策	1	1	2
上樑文	0	3	3
告文	0	1	3
檄文	1	1	0
表	0	1	0
巡營文	0	1	1

4) 이하 『漫錄』, 『藝學錄』, 『識聞』으로 지칭한다.



問答	0	0	8
雜著	0	2	1
합계	98	188	199

서로 겹치는 글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본과 동양문고본에서 겹치는 글은 47편, 규장각본과 가장본에서 겹치는 글은 21편, 동양문고본과 가장본에서 겹치는 글은 88편, 세 본에서 모두 겹치는 글은 3편이다. 세 본에 나오는 안석경의 산문은 총 332편이 된다. 『雪橋集』 諸本에 수록된 작품의 양상은 부록으로 제시한다.

『雪橋別集』의 글은 문체상으로 필기체 산문에 속한다. 동양문고본을 기준으로 볼 때 『漫錄』의 글 수는 326則이고, 『藝學錄』에는 序를 포함하여 22則의 글이 있으며, 『識聞』에는 7則의 글이 있다.

### 본고에서 검토할 작품

안석경의 산문은 그 총량이 만만치 않은바, 이 논문에서 그 전체를 다룰 수는 없다. 이 점을 고려해 본고에서는 안석경의 산문 중 문예성이 높거나 그 작가의식을 표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을 선별해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럴 경우 안석경의 산문 작품 중 傳記體 散文, 敘事體 散文, 議論體 散文, 遊記體 散文이 특히 주목된다.

안석경은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을 많이 썼다. 이들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안석경이 당대 인물을 어떻게 파악하였으며, 어떠한 삶에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안석경이 형상화한 인물들은 대부분 절의를 지킨 인물들이다. 이러한 작품들로는 「記僧就悅事」, 「姜沆傳」, 「黃忠孝傳」, 「朴孝娘傳」, 「劔女」 등을 들 수 있다. 본고는 안석경이 쓴 敘事傳記物 중 그의 북벌론과 明·淸에 대한 인식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朴孝娘傳」과 「劔女」를 주목한다. 「朴孝娘傳」은 실제 일어난 박효랑의 사건을 입전한 것인데, 사건을 서술한 작가의 시선을 통해 작가의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문체상으로는 傳記體 散文에 속한다. 한편 「劔女」는 야담계 소설로 허구화된 이야기이다. 안석경은 이 작품에서 俠女의 형상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문체상으로는 敘事體 散文에 속한다.

안석경은 서사전기물 외에 의론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였

다. 이런 글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는 「擬修皇明北伐檄文記」, 「記林白湖語」,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는 안석경의 춘추의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작인바, 집중적인 분석을 요한다. 한편, 안석경의 經世에 대한 고민이 표출된 작품으로는 「擬策問」, 「擬殿策」, 「擬大庭對策」 등이 있는데, 모두 당대 현실을 비판하며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擬大庭對策」은 안석경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룬 작품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방대하며 당대 현실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擬對策’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擬對策’이란 실제 대책으로 제출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라, 그냥 대책을 쓴다는 기분으로 쓴 글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擬’의 문체를 사용할 경우, 실용성보다 문예성이 더 짙게 나타날 수 있고, 자신의 주의·주장을 보다 솔직하고 과격하게 드러낼 수도 있다. 의론문을 분석할 때는 앞장에서 살펴본바, 그가 춘추의리를 견지하며 현실을 비판한 두 면모가 서로 拮抗하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본고는 마지막으로 안석경의 遊記體 散文을 살펴, 그가 당대 자신의 이상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괴로움을 해소하고 자신의 문제의식을 전개해간 면모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안석경의 유기체 산문에서는 그의 감정이 비교적 진솔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안석경의 유기체 산문을 통해, 그의 현실인식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내면의식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석경의 유기체 산문에는 「遊淸平山記」, 「遊龍頭山記」, 「遊淸涼山記」, 「雪岳記」, 「東行記」, 「東遊記」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강산유기인 「東行記」와 「東遊記」에는 안석경이 견지했던 조선중화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두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부차적으로 여타 산수유기에 대해 언급하려고 한다.

#### IV. 俠女에 대한 관심

이 장에서는 안석경의 「朴孝娘傳」과 「劔女」를 분석하기로 한다. 본고는 「박효랑전」과 「검녀」가 조선 후기인 17, 18세기에 復讐를 수행한 여성이 문학적으로 주목되었던 현상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 복수의 모티브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였으나, 이 시기에 여성의 복수가 서사화된 양상은 보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sup>

당시 복수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서사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2. 여성의 복수가 서사화된 작품

작가	작품	비고
安錫傲	「朴孝娘傳」	1745년 경 창작
	「劔女」	1773년 창작
林像鼎	「朴孝娘傳」	1712년 경 창작
南有容	「孝子朴氏傳」	1722~1726년 사이에 창작
任邁	「女俠」	1754~1767년 사이에 창작
李弘惠	「江上烈孝女傳」	1711년 창작
李光庭	「江上女子歌」	서사한시
	「昔有蘇不韋行」	1719년 창작
沈樂洙	「書二女兒復讐事」	
俞晚注	「記二劍姬事」	
李東允	「昔嶺南有朴孝娘姊妹」	1789~1795년 사이에 창작
	「麻浦有一亭」	
丁若鏞	「竹帶先生傳」	
	「晉州義妓祠記」	
李德懋	「銀愛傳」	
權以鎭	「金氏傳」	
洪奭周	「記連山烈婦事」	
成海應	「書榮川朴烈婦事」	
任允摯堂	「崔洪二女」	
작가미상	「金氏南征記」	작가는 노론계 인물로 추정되며, 영조연간 창작된 것으로 추정됨

1) 이에 관해서는 추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 필자로서는 특히 이시기 복수가 서사화된 작품들의 傳奇的 性向 및 복수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이들 작품의 줄거리는 어리고 약한 여성이 세력이 강한 상대에게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작품군에 등장하는 ‘원수를 갚는 여성’을 ‘俠女’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성들을 험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 ‘俠’과 ‘俠女’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司馬遷은 游俠에 대해 “말에 신의가 있고, 행동은 과감하며 곤란한 이를 돕는 인간”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sup>2)</sup> ‘俠’은 ‘義’와 결합되어 자신을 버리고 남을 돕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편, 唐代에 이르러 다수의 豪俠傳奇가 창작되었다. 이 중 대표적 작품으로 『謝小娥傳』, 『紅線』, 『聶隱娘』 등을 들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작품들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謝小娥는 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는다. 紅線은 배우자를 선택하며 무예를 연마한다. 그리고 聶隱娘은 백성을 억압하는 탐관오리를 징벌한다. 이와 같이 謝小娥, 紅線, 聶隱娘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혼인의 자유를 추구하며, 사회를 개혁하거나 불의한 개인을 징벌한다. ‘俠女’는 바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여성을 지칭한다.

그런데 조선후기 서사물에 등장하는 ‘원수를 갚는 여성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 역시 복수를 통해 의롭지 않은 개인을 징벌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을 통칭해서 의협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험녀’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본고는 조선후기 ‘험녀’가 등장하고 있는 서사물을 ‘女俠敍事’라고 칭하기로 한다. 여협서사는 주로 한문으로 된 短形敍事體의 형태를 띠고 있다.<sup>3)</sup>

그렇다면, 조선후기 여협서사의 성행은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우선, 여협서사의 성행은 壬·丙 兩亂 이후에 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복수를 한 인물이 주목되는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양란 이후 전기소설사에서는 豪俠傳奇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傳과 야담 및 人物 記事 등에서도 험이 주요한 소재가 되었다.<sup>4)</sup> 이처럼 험에 대한 관심이 문학작품에서 표출된 요인으로는 양란을 겪으며 ‘武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점과 ‘北伐論’이

2) “今游俠，其行雖不軌於正義，然其言必信，其行必果，已諾必誠，不愛其軀，赴士之阨困，既已存亡死生矣，而不矜其能，羞伐其德，蓋亦有足多者焉”(『遊俠列傳』 第64冊, 『史記』 권124, 中華書局, 3181면).

3) 단형서사체는 영웅서사시나 장편소설과 같은 長形敍事體의 대립개념으로서 傳, 傳奇, 일화 등과 같은 敍事의인 短形體를 일컫는다. 李在鎰, 「前史的 背景으로서의 短形敍事文學과 그 分類」, 『韓國短篇小說研究』(일조각, 1975), 29면 참조.

4) 박희병,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소명출판, 2005), 713면 참조.

대두된 점이 주목된다.<sup>5)</sup> 또한 복수 소재가 야담과 인물기사에 개입된 경우, 그 논찬 부분에는 淸에 대한 복수 논의가 간간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물기사에 나타나는 복수 소재와 그에 대한 작자의 시선은 당시의 대명리론 및 북벌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 바 있다.<sup>6)</sup> 다음에서 보듯 여협 서사의 논찬에서도 복수가 ‘의리’의 차원에서 고취되고 있다.

① 아버지가 남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식이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사람의 도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능히 복수할 수 있었던 자가 남자 중에서 또한 몇 명이나 되던가. 이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능히 같은 하늘 아래 원수가 살고 있음을 알고 무기를 되돌리지 않는 의리를 가다듬어 마음을 잡고 오래 생각하여 반드시 복수한 뒤에 그쳤으니, 장부의 폐부를 격동시킬 수 있고 인륜의 중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무릇 이와 같은 자는 참으로 천리와 인륜의 바름을 얻었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sup>7)</sup>

② 내가 지금 세상에서 부모의 원수를 아는 자가 있지 않음을 보고 마침내 그 일(두 여자아이가 원수를 갚은 일을 말함-인용자)을 써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宋 高宗이 저 伍子胥에게 부끄럽게 여겨야 할 점이 있고, 또 오자서가 저 여자아이들에게 부끄럽게 여겨야 할 점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다.<sup>8)</sup>

③ 우리 동방은 대의가 밝아,

正是吾東大義明,

- 
- 5) 정길수, 『『折花奇談』 研究: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90면 참조.
- 6) 정환국,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제29집(한국한문학회, 2002), 305면 참조. 또한 이 연구는 “조선후기 인물기사에서 열녀나 노비들이 ‘수절’이나 ‘충직’을 지키는 면보다 ‘복수’를 수행하는 양상으로 형상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 점이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고 하였다.
- 7) “父被戕於人, 而子不能報焉, 人理滅矣. 然自古以來, 能復讐者, 在男子亦幾人哉. 乃已止矜弱女, 能知共天日之讐, 克勵不反兵之義, 處心積慮必報乃已, 有可以激壯士之肝, 而增夫人倫之重. (…)夫若此者, 眞可謂得天理民彝之正.”(任邁, 『女俠』, 『雜記古談』 卷上, 日本 天理大圖書館 소장본, 『韓國學報』 제54집에 첨부된 영인본, 221면)
- 8) “余觀今世無有知父母之讐者, 遂書其事, 庶幾天下之人, 知高宗之羞, 在於子胥, 子胥之羞, 亦在於彼女兒也.”(沈樂洙, 『書二女兒復讐事』, 『恩坡散稿』 규장각본 권3)

충신과 효자가 태어나네.  
**이웃나라**여, 우리 땅 함부로 넘보지 마오.  
 옛 삼한의 **여자들** 이러하단다.

賦與忠孝隨胎生。  
 寄語**鄰邦**莫浪窺，  
 三韓**女兒**今如斯。<sup>9)</sup>

예문 ①은 노론계 인물인 任邁의 「女俠」의 논찬 부분이며, 예문 ②는 노론계 인물인 沈樂洙의 「書二女兒復讐事」의 논찬부분이다. 예문 ①에서는 복수가 ‘의리’의 차원에서 미화되고 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복수를 수행한 여성이 의리를 지켰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문 ②에서 심낙수는 복수를 실행한 두 여성의 일을 기록하여 원수를 갚을 줄 모르는 지금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한다고 하고 있다. 이 예문에 나오는 宋 高宗은 金나라에게 중원을 빼앗기고도 복수를 하지 못한 인물이다. 예문 ③은 李光庭의 「江上女子歌」의 논찬 부분이다. 그는 복수를 수행한 여성을 통해 이웃나라에게 경고하고 있어, 俠女에 대한 주목과 대외인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예문 ③에서 강조된 부분인 ‘이웃나라’(鄰邦)와 ‘여자들’(女兒)이라는 단어는 서로 대응되고 있다.

또한 여협서사의 작가 중 다수가 대명의리를 강조했던 노론계 문인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여협서사 작가군 중에서 노론계 문인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11)</sup> 노론계 문인들이 검협에 관심을 매우 기울였다는 사실 역시 이와 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노론계 인사였던 李麟祥 및 李胤永은 대명의리와 북벌론을 투철히 지킨 노론계 인사로서 검객 및 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북벌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2)</sup> 이런 점으로 볼 때, 여협서사의 성행은 당대에 대명의리를 강조했던 사대부 집단의 현실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북벌 의식은 실제로 행해진 복수 사건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sup>13)</sup> 이는 이들이 여협서사를 창작한 내적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 李光庭, 「江上女子歌」(『訥隱集』 권2, 『韓國文集叢刊』 187집, 132면)

10) 임형택 교수는 “寄語鄰邦莫浪窺，三韓女兒今如斯” 대목에 대해 “시인은 원수를 징치하고 정의를 관철한 두 소녀의 정신과 행동의 의미를 개인적 차원에서 구국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하였다. 임형택 편역, 『李朝時代 敘事詩』下(창작과비평사, 1992), 139면.

11) 본고에서 조사한 범위 내에서 여협서사를 지은 문인을 당파별로 살펴보면, 노론계 인사는 열 한 명이고, 소론계 인사는 세 명이며, 남인계 인사는 두 명이다.

12) 정길수, 앞의 글, 90면;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24면 참조.

여협서사의 작가층이 모두 뚜렷한 대명의리론 및 북벌론에 의거하여 여협서사를 창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또한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본고는 여협서사 성행의 배경이 된 시대적 분위기를 살피는 과정에서 당대에 팽배한 대명의리론과 북벌론의 영향을 논한 것인데, 이를 여협서사를 창작한 문인 각 개인의 창작의식과 완전히 일체화시킬 수는 없다.

여협서사의 성행 배경에는 대명의리와 북벌론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黨爭의 심화로 인해 사대부들 간에 상대 당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된 상황 역시 여협서사의 성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약용의 『竹帶先生傳』에서는 당쟁으로 인해 칼부림이 일어나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sup>14)</sup> 예외적으로 여협서사에 관심을 기울인 소론 및 남인계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당쟁을 통해 피해를 입은 인물들이라는 점은 당쟁과 여협서사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15)</sup>

다음으로, 여협서사 성행의 문학적 원인으로서는 중국 豪俠傳奇의 영향이 주목된다. 唐傳奇가 다수 수록된 『太平廣記』는 조선에서 언해본과 축약본이 간행되었다.<sup>16)</sup> 또한 영조때 중국 전기소설집인 『刪補文苑植橘』이 간행되었다. 영조는 이 책의 題詩인 『題文苑植橘』을 썼다. 다음이 그것이다.

글을 모아 초록한 것이 맛좋은 감귤 같구나.	抄文其若果植橘.
지난날 김정승이 종류별로 모으던 일 생각나네.	憶昔金相類聚悉.
竹榻과 銀床에 일이 없을 때,	竹榻銀床無事時,
초당에서 자주 펼쳐보며 긴 봄날을 보낸다.	草堂頻閱弄春日. <sup>17)</sup>

- 
- 13) 노론계 문인들은 당시 淸에 대한 적개감과 復讐雪恥 의식에 기반을 두고 의기 있는 인물의 행위나 청에 대항한 선대 인물의 사적을 형상화하였다. 일례로 송시열의 『三學士傳』을 들 수 있다.
- 14) 『竹帶先生傳』은 李宗和가 蔡濟恭을 변호하다 귀양 가자 이종화의 딸이 李基慶을 칼로 위협하여 부친을 돌아오게 한 일을 소재로 삼고 있다.
- 15) 여협서사를 창작한 소론인사인 이홍덕과 남인인사인 정약용은 공통적으로 당쟁으로 고통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 16) 김현룡, 『韓中小說 說話比較研究: 『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一志社, 1976) 참조.
- 17) 『題文苑植橘』, 『列聖御製』第十二冊(서울대학교 규장각, 2002, 236면) 『刪補文苑植橘』은 唐代傳奇 15편, 宋·明傳奇 5편, 총 20편을 담은 선집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刪補文苑植橘』의 간행 시기는 1664년경부터 1760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刪補文苑植橘』에 대한 연구는 최용철, 「한국소장 중국소설자료의 발굴과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0집(중국어문연구회, 1996) 참조.

위의 시에서 영조가 이 책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산보문원사골』에는 협녀를 형상화한 唐 傳奇小說인 『紅線傳』과 明 전기소설인 『韋十一娘』 및 다수의 호협전기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金祖淳의 “『紅線傳』과 『韋十一娘』을 읽고 아득히 정신을 잃었다”는 언급은 조선후기 문인들이 이런 類의 소설에 큰 흥미를 느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18)</sup>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여협서사의 협녀는 중국의 女俠傳奇인 『崔愼思』, 『賈人妻』 등에 등장하는 협녀와 매우 흡사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가령, 임매의 『女俠』에 등장하는 두 소녀는 다른 이의 도움을 거절하며 복수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중국 여협전기에 등장하는 협녀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여협서사의 성행에는 중국의 호협전기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여협서사가 성행한 배경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안석경의 여협서사인 『박효랑전』과 『검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안석경의 여협서사는 전술한 시대배경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며,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는지를 다음 절의 작품 분석을 통해 밝혀보기로 한다.

### 1. 복수의 실패와 殃禍에 대한 믿음: 『朴孝娘傳』

이 절에서는 안석경의 『박효랑전』을 고찰하면서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작가의 시선을 조명하며, 그의 『박효랑전』과 여타 문인의 박효랑 작품군을 비교하여 그가 창작한 『박효랑전』만의 개성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안석경이 협녀를 형상화하면서 드러낸 특유의 현실인식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안석경은 그의 나이 28세(1745) 이후에 『박효랑전』을 창작하였다.<sup>19)</sup> 『박효

18) “及讀唐傳奇『韋十一娘』、『紅線』諸傳，又茫然自失”(金祖淳, 『五臺劍俠傳』, 『瀾庭叢書』 중의 『古香屋小史』, 박희병, 앞의 책, 785면에서 재인용). 이어 김조순은 “譬之, 荊、蠱諸公, 如猛虎下山, 終始具塗人耳目, 見之悍然增氣而已, 若韋娘、紅線之類, 如神龍入雲, 時露鱗爪, 其神變殆不可測, 似乎勝之, 所處異而所用殊也”라고 하여 전기소설의 흥미로운 면모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19) 작품 속에 朴壽河를 죽인 관찰사 李宜顯(1669~1745)의 죽음을 명시하고 있어, 이의현의 사망연도인 1745년 이후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논의는 류준경, 『박효랑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古典文學研究』 제25집(韓國古典文學會,



랑전』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朴文娘과 그의 동생인 朴季娘의 사적을 작품화한 것이다. 안석경의 『朴孝娘傳』을 분석하기에 앞서, 『朴孝娘實記』와 『朝鮮王朝實錄』에 서술된 박효랑 사건의 진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두 자료에 나타난 박효랑 사건은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고 있다.

『朴孝娘實記』에 따르면, 1709~1710년에 朴壽河와 朴慶餘가 山訟을 하였다. 송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경여가 산을 점거하려 하자 박수하가 이를 저지하였다. 이 일의 심문과정에서 박수하가 원통하게 죽자, 그 맏딸 박문랑이 원수를 갚기 위해 박경여의 선산을 파헤쳤고 그 일로 1712년 5월 5일 박경여의 친족에 의해 살해당했다. 둘째딸 박계랑이 부친과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 상경하여 수년간 擊錘하였다. 1713년 1차 안찰사가 사건을 조사하였으나 판결하지 못했다.

『肅宗實錄』에 따르면, 박문랑의 죽음이 박효랑 집안에 의해 조작된 자결이었다고 한다. 박수하가 죽자, 그의 집안에서 박경여 부친의 묘소를 불태웠고, 이 일로 박경여와 박수하의 친척이 서로 싸웠다. 그 때 박경여의 친족 한명이 피살되었는데, 박수하 집안에서 그 시체를 숨겼다. 양 집안이 서로 소송을 걸었는데, 박수하 집안에서는 죄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박문랑을 자결하게 하고 박경여 집안에게 살해된 것이라는 소문을 내었다. 이후 어사 洪致中이 박문랑의 죽음을 자결로 판결하였다.<sup>20)</sup>

박효랑 사건은 임상정, 이광정, 남유용 등에게서 작품화되었다.<sup>21)</sup> 그런데 임상정의 『朴孝娘傳』과 이광정의 『昔有蘇不韋行』, 남유용의 『孝子朴氏傳』의 창작연대가 1720년 전후에 걸쳐 있는데 반해,<sup>22)</sup> 안석경의 『박효랑전』의 창작연

2004) 참조. 『朴孝娘傳』은 규장각본 『雪橋集』 권6과 가장본 『雪橋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가장본의 경우 규장각본과 달리 追記가 존재한다.  
 20) 박효랑 사건을 보는 양가적 시선에 대해서는 김혈조, 『朴孝娘 사건과 그 문학적 演變』, 『人文研究』 10집 2호(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류준경, 앞의 글; 『英祖實錄』 영조2년 12월 20일 기사; 『肅宗實錄』 숙종40년 6월 9일 기사 참조.  
 21) 이외에도 李東允이 『昔嶺南有朴孝娘姊妹』라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타 박효랑 작품군과 달리 작품의 길이가 현저히 짧고 사건의 서술이 매우 간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여타의 박효랑 작품군과 대등하게 논의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할 경우 부차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22) 박효랑 작품군의 창작은 임상정, 이광정, 남유용, 안석경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715년 趙龜命이 임상정의 『朴孝娘傳』에 붙인 글에 “始林子立是傳也”(趙龜命, 『東谿集』 권6, 『韓國文集叢刊』 215집, 117면)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보아 임상정의 『朴孝娘傳』은 1715년 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상정의 傳에는

대는 1745년 이후이다. 박효랑의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시점은 박문량이 죽은 1712년과 박계랑의 송사가 진행된 1713~1714년간, 박문량이 旌闈된 1726년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박효랑 사건은 1712년에서 1726년 무렵까지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으며, 박효랑 작품군의 창작연대가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안석경이 「박효랑전」을 지은 1745년 이후는 사건이 일어난 지 삼십여 년이 지나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이 잠잠해진 시점이다.<sup>23)</sup> 그럼에도 안석경이 박효랑 사건을 작품화한 것은 그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안석경이 박효랑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안석경이 박효랑 사건에서 주목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이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안석경의 「박효랑전」에서는 복수가 실패했다는 결말보다 박효랑의 복수의지와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다시 말해 박효랑 사건에서는 박효랑의 복수 행위가 부각되어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첫째, 복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 및 주변 인물의 행위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안석경의 「박효랑전」과 임상정의 「박효랑전」을 비교해 볼 때 여실히 드러난다. 임상정은 박효랑 사건을 서술하며 주변 인물의 행위 및 복수와 다소 상관없는 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였다. 가령 박수하의 곤장을 심하게 치지 않은 朴瑞奉에게 박문량이 사제한 대목, 박문량의 계모 金氏가 박수하의 죽음 후 단식을 하자 박문량이 이를 말린 대목, 길 가던 이가 박문량이 掘塚한 것을 꾸짖자 계모 김씨가 이를 반박한 대목 등이 제시된다. 이처럼 임상정이 주변인물의 사적 및 사건의 정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점은 그가 박효랑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사건의 추이가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박문량의 죽음에서 결말이 나오고 있어 박문량이 죽은 1712년 직후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광정이 「昔有蘇不韋行」을 지은 연대는 문집에 수록된 시의 연대순 배열에 따라 1719년으로 추정된다. 이 논의는 류준경, 앞의 글, 265면 참조.

남유용이 「孝子朴氏傳」을 지은 시기는 박수하의 유복자의 나이를 언급한 부분에서 추정 가능하다. “其弟年十餘”(『雷淵集』 권27, 『韓國文集叢刊』 218집, 33면)라는 구절로 보아 1712년 박수하가 죽은 지 십년 후인 1722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박문량의 정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박문량이 정려된 1726년 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남유용의 「孝子朴氏傳」의 창작연대는 1722~1726년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23) 실록은 관찰사 홍치중이 박문량의 죽음을 자결이라 판결한 후 여론이 잠잠해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文娘殺死, 以喉下刃痕, 合於『無冤錄』自刎條, 諸議漸以文娘爲自死.”(『肅宗實錄』 숙종40년 6월 9일 기사)

임상정은 박문량의 죽음에 대해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한 여론을 두고, “세상에 반드시 心眼을 가진 공정한 자가 능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박문량의 사망 정황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다.<sup>24)</sup> 이에 비해 안석경의 『박효량전』에는 임상정의 『박효량전』에서 서술된 주변인물의 행적이나 소소한 사건들은 다수 삭제되고, 박효량의 복수 행위가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안석경의 『박효량전』에서는 박효량이 목숨을 다 바쳐 복수에 매진하는 과정이 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이들의 의지와 실천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이광정의 『昔有蘇不韋行』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광정은 박효량 사건에서 복수의 과정보다는 복수가 실패한 결과를 조명하며 죄지은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광정은 박문량이 죽은 후 박경여의 뜻대로 되어가는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가령 이광정의 『昔有蘇不韋行』에는 박경여 집안이 박경여의 죽음을 조작하여 이를 빌미로 박효량 집안을 송사한 일, 박계량이 상경하여 擊錘하나 박경여 집안이 너물을 써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일 등이 서술되고 있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① 맏딸은 분연히 떨치며 말하였다. “아버지 원수가 가까이 있는데, 어찌 차마 坐視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몸을 세워 일으켜, 칼을 잡고 뛰쳐나가 적중으로 들어갔다.<sup>25)</sup>

② 옥사가 해결될 것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선 도성 아래에 머물며 해결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예정할 수 없습니다. (...)  
돌아보건대 우리 兄의 원통함을 품은 영혼을 돌아보면, 암담한 가운데에서도 생각이 반드시 환해집니다.<sup>26)</sup>

③ 사람의 삶에는 세력과 이익이 많으면, 人生多勢利,  
죄를 지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네. 抵罪不須憂.  
의지할 곳 없고 세력이 미약하니 자식이 있어도, 單弱雖有子,

24) “世必有心眼公者, 能辨之矣”(林象鼎, 『自娛錄抄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50장 앞면).

25) “伯娘子奮曰: ‘父讐在邇, 何忍坐視?’ 挺身而出, 提劍躍焉, 超入敵中.”(『朴孝娘傳』, 가장본 『雪橋集』 권7, 토우출판사 영인본, 618면) 이하 안석경의 『朴孝娘傳』의 원문 인용은 모두 이 자료에 의거한다.

26) “獄事尙無伸決之期, 故女息姑留都下. 期於得決. 去留死生. 未能預定耳. (...) 顧我兄抱冤之靈, 想必惘然於冥漠中.”

깊은 원한을 갚지 못했네.	無緣雪深讎.
공정한 법률을 볼 수 없구나,	不見公朝律,
사람을 죽였어도 의리 상 복수하지 말라 하네.	殺人義勿讐.
(…)	(…)
옛 도는 사라진 지 오래되고,	古道沒已久,
법률은 무용지몰이 되었구나.	經律徒爾爲. <sup>27)</sup>

예문 ①과 예문 ②는 안석경의 「박효랑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예문 ①은 박경여와 그의 무리가 박문량을 치러 오자, 결전을 위해 떠나는 박문량이 보여주는 언행이며, 예문 ②는 박계량이 수년간의 송사 끝에 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한 말이다. 이들은 죽고 사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무모하리만큼 용기에 차 있다. 예문 ③은 이광정이 박효랑 사건을 서술하며 죄지은 자가 벌 받지 않는 현실에 대해 탄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여기서 작가는 이 사건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안석경이 복수의 의지와 실천성을 부각시킨 점은 그가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안석경은 사건이 발생한 수년 뒤 박계량의 동생인 ‘追意’가 관찰사에게 칼을 던지는 부분과 박계량으로 추정되는 정희량의 妻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하여, 복수가 이루어질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sup>28)</sup>

다음으로 안석경은 박효랑 사건에서 殃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함으로써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내가 일찍이 가흥의 여관에서 과거를 보러 온 영남의 儒林들을 만났다. 비를 피하며 종일 대화하였는데, 박효랑의 일에 대해 묻고 개연히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① 慶餘의 일이 종국에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나의 집이 대대로 대구에서

27) 李光庭, 「昔有蘇不韋行」 37章, 『訥隱集』 권1, 『韓國文集叢刊』 187집, 140년.

28) “後六七年, 星山太守行邑, 有童子自林間擲刀着馬鞍上, 太守驚問其故, 童子曰: ‘爾乃吾讐也. 吾乃朴孝娘之弟也.’ 太守慰撫之曰: ‘爾讐乃前太守也, 非我也.’ 童子乃壽河遺腹子, 所名追意者也.”; “生一男端妙. (…)有見之者, 曉事理善談辨, 其爲草履絕異以賣食.” 정희량의 妻(朴季娘으로 추정)에게 아들이 있다는 대목은 안석경의 「朴孝娘傳」에만 등장하는 부분이다.

살아왔는데, 경여의 집안 또한 대대로 대구에 살고 있어, 경여의 집안과 우리 집안이 대대로 교유하였다. 그러나 매년 그 자손들을 볼 때면, 골수에 사무치게 애통해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아! 경여는 끝내 화를 면하였다. 그러나 집안이 殃禍를 쌓은 것이 깊고 씩씩이가 사치스럽고 넉넉하니 장차 末世의 橫流를 겪을 것이다. ② 경여의 자손은 반드시 큰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sup>29)</sup>

위의 예문은 안석경이 「朴孝娘傳」 뒤에 追記한 영남 문인과의 대화이다. 밑줄 친 부분 ①에서 안석경은 박효랑 사건에서 박경여 집안이 중국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②에서는 박경여가 화를 면했다는 것에 애통해 하면서도 후대에 반드시 殃禍가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목에서 보듯 안석경은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보이는 안석경의 양화에 대한 강한 믿음은 관찰사 李宜顯의 몰락을 서술한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수하를 죽인 자는 方伯이다. 그는 문장이 화평하면서도 단아하였으며 도덕이 빛났다.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고, 文衡을 맡았는데, 사람들이 그 풍채를 그리워하며 우러러 보았으니, 군자다운 사람이었다. 돌아보건대 한때의 노여움을 참지 못해서 경솔히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여 원한이 남의 골수에 맺히게 되었으니 어찌 이른바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자가 있다는 데 해당되지 않겠는가!

대개 늙어서 외아들을 여의고서는 아들 또한 자식이 없었으니, 마침내 곤궁하고 고독하여 비통해 하고 오열하며 눈물을 머금고 죽었다. 아아, 사람이 원한을 야기한 자에게 독을 품고 하늘이 착하지 못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운이 좋은 군자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나 할까.<sup>30)</sup>

29) “余嘗於可興逆旅，見嶺儒之赴試者。阻雨終日語，問朴孝娘事，慨然流淚而言之。① 問慶餘事終何如，絕然面赤而曰：‘吾世居大丘，慶餘亦世居大丘，與吾世交游，然每見其子孫，未嘗不痛骨。’噫！慶餘終□□[免禍?]矣，然其家之積殃也深，而用侈富，將涉末世之橫流，② 慶餘之子孫，必不免大禍!”

30) “殺壽河者方伯，恬雅有文章，官至上相，典文衡，所在人物，想望風采，蓋君子人也。顧一怒之不忍，而輕殺一無罪，怨結於人骨髓，倘所謂君子而有不仁者耶？蓋其臨老，喪其單子，而子又無子，遂窮獨悲咽，飲泣而沒，嗚乎！人之積毒於所痛恨，天之下殃於所不善者，乃不以君子取數之多而有所原恕哉。”

위의 예문에서 안석경은 관찰사가 자손이 끊기고 곤궁하게 죽은 것을 殃禍에 의한 것이라 보고 있다.<sup>31)</sup> 안석경은 박효량의 복수가 현실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 양화가 끝내 복수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양화에 대한 믿음은 안석경의 다음 글에서 잘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감히 부귀한 자와 원한을 맺지 않으나 빈궁한 자와는 원한을 맺고, 감히 丈夫와는 원한을 맺지 않으나 부인네와는 원한을 맺고, 감히 살아있는 자와는 원한을 맺지 않으나 죽은 자와는 원한을 맺으니, 그 仁하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지혜롭지 못한 것이 심한 경우이다.

부귀한 자는 분노한 대로 행동하고 분풀이를 하니, 사나운 기운이 줄어들기가 쉽다. 그러므로 빈궁한 자가 불우하게 지내며 독을 품은 것이 씻을 수 없는 것에 견줄 수 없다. 쌓인 것이 오래되면, 그 집안의 氣化가 나뉘고 합할 즈음에 격분된 것이 가장 흉물스러운 것이 된다.

丈夫의 陽氣는 그래도 陽을 발산할 수 있는 때와 소통되고 흠어지는 감정이 있으나, 부인이 잠기고 닫힌 채로 한을 품고 독을 품으면 어찌 풀릴 수 있는 날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한과 독이 솟구치는 바가 더욱 참담하다.

살아 있는 자는 분노가 다시 풀릴 수도 있으나, 죽은 자는 곤궁함이 심하고 陰이 지극하니 분노에 이르게 하면 다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복수심이 맺힌 바를 다시 풀 수 없다면, 그 원한과 독이 끼치는 해를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sup>32)</sup>

위의 예문은 안석경이 『漫錄』에서 양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예문에서 안석경은 貧者, 여성, 死者가 원한을 가질 때 반드시 양화를 입는다고 하였다. 처지가 곤란한 사람은 원한을 풀 방법이 없어 오히려 상대에게 미치는 화가 더욱 치명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안석경은 復讐에 대한 의지가 실현

31) 이러한 관점은 이동운의 「昔嶺南有朴孝娘姊妹」에도 나타난다. 해당예문은 다음과 같다. “陶谷後嗣，幾乎將絕，人或言，‘其必由於使朴孝娘冤死。’”(李東允, 「昔嶺南有朴孝娘姊妹」, 『樸素村話』 권3, 85장 앞면)

32) “人不敢與富貴結怨，而結怨於貧窮；不敢與丈夫結怨，而結怨於婦人；不敢與生者結怨，而結怨於死者，無論其不仁，亦不智之甚者也。富貴者怒行憤施，惡氣易洩，故不比貧窮坎壈懷毒無所洩，積蓄之久，其激射於人家氣化分合之際者，爲最凶也；丈夫陽氣，猶有發陽之時，踈散之情，婦人之沈閉，結恨含毒，則豈有可解之日耶？故其恨毒之所激身尤慘矣；生者怒有可以復解，死者則窮之甚也，陰之至也，而致其怒，不可以復悅，結其讐不可以復解，則其怨毒之所害，寧有可言者耶？”(「結怨」, 『雪橋漫錄』, 6면)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더욱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안석경이 박효랑의 사건을 보는 시선은 그의 북벌론과 두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세력 차이를 복수의지와 실천의지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박효랑 사건에서 복수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박경여 집안과의 세력 차이 때문이었다. 『朴孝娘實記』에 따르면, 박경여 집안은 권력가 집안으로 관찰사 및 조정의 대신과 유착된바, 관리를 매수하여 獄案을 조작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박효랑 측은 어리고 약한 두 여성에 불과하다. 이처럼 세력 차이가 크게 나는 상대방에게 박효랑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자신의 복수의지와 실천의지를 견지하는 것이었다. 안석경이 淸에 복수하기 위해 모색한 방안 역시 이와 동일하였다. 당시 조선이 청을 친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한 일 이었고,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석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벌을 위해 장기적인 복수계획을 세우고, 복수의 의지와 실천의지를 굳게 견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원한을 입히면 殃禍를 입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효랑전」에서는 관찰사의 일화와 영남 문인과의 대화에서 양화에 대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은 다음에서 보듯 안석경의 북벌론에도 등장한다.

대개 사람이 원망이 쌓이는 것이 심하고 애통한 심정이 오래되면, 그 원한을 펴 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원망과 독이 오래되면, 그 純一한 불꽃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니, 氣化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저 오랑캐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깊으니, 비록 늦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오랑캐를 섬멸할 날이 올 것이다. 어찌 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sup>33)</sup>

위의 예문에서 안석경은 원한을 잊지 않으면 후대에라도 반드시 복수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자신도 북벌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화에 대한 믿음을 내재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화에 대한 믿음은 현실적인 논리성은 약하나, 감화력은

---

33) “蓋人有積怨深痛久屈，而使獲伸者，天意也。怨毒之久，其精燄能動天地，而轉氣化者，人事也。我讎虜深矣，雖晚，我必有滅虜之日，奈何欲忘之耶!”(『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 『雪橋集』 규장각본 권4, 500면)

매우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안석경이 박효랑 사건을 보는 관점과 그의 북벌론이 상응되는 지점을 살펴볼 때, 안석경이 박효랑 사건을 주목했던 데에는 그의 북벌에 대한 의지와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안석경이 형상화한 인물들은 대다수가 절의를 지킨 인물에 국한되어 있는바, 그의 춘추의리는 당시의 인물 중 의리를 지킨 인물군에 대한 관심으로 은연중에 표출되고 있다.

이제 논의를 돌려, 안석경의 『박효랑전』에 나타난 그의 여성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안석경이 형상화한 박효랑은 주체성이 강하고 비판 의식이 투철한 인물이다. 이러한 여성 형상은 박계량으로 추정되는 鄭希亮<sup>34</sup>과 羅斗冬<sup>35</sup>의 妻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일화는 여타 문인들의 박효랑 작품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유일하게 안석경의 『박효랑전』에만 서술되고 있다. 이들은 주체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며, 不義한 奇士를 꾸짖고 있다. 흥미롭게도 안석경은 이 여성인물의 행동에 대해 박효랑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烈’이라 평가하였다.<sup>36</sup> 당시 여성의 烈이 ‘부모가 정해진 남편을 일부종사하는 여성’이나 ‘정조를 굳게 지켜 남편의 死後 자결하는 여성’을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sup>37</sup> 안석경이 이러한 여성 인물을 烈이라 평가한 것은 앞서 서술한 ‘烈’과는 다소 다른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가 언급한 이 ‘烈’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정희량과 나두동의 妻의 행동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절의를 지켰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烈’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여성들의 행위를 살펴보자.

戊申年(1728)에 鄭希亮이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내가 절실하게 간하였으나, 희량은 듣지 않았다. 군사를 모으던 날에 스스로 칭하기를 대장군이라 하고는 사람을 시켜 아내에게 재촉해서 떡을 준비하게 하고 장

34) 정희량은 1728년 李麟佐·朴弼顯 등과 공모하고, 영조 즉위 후 벼슬에서 밀려난 소론의 호응을 얻어 密豐君 垣을 추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청주를 습격하고 한 때 여러 고을을 제압하였으나, 관군에 패배하여 참수되었다.

35) 나두동은 호남의 이름난 협객으로 景宗 때 寢郎으로 任命되었으나 은거했다. 정희량의 亂에 동조하여 참수되었다.

36) “顧亦烈矣哉.”

37) 당시 烈女는 危難을 당하여 목숨으로 貞操를 지켰거나 또는 오랜 세월을 걸쳐 고난과 싸우며 守節한 부녀자를 뜻했다. 다시 말해, 열녀는 貞操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烈’의 時代相」, 『大東文化研究』 37집(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147면 참조.



차 제사로써 桐溪先生(鄭蘊을 말함-인용자)의 墓에 아뢰려고 하였는데, 아내가 음식을 선뜻 준비하려 하지 않았다. 희량은 크게 노하여 성대하게 장수의 복장과 호위병을 갖추고 들어와 아내를 질책하였다. “묘에 고하고 壇을 오르는 것이 이미 지체되었소. 제사 음식을 왜 때에 맞추어 준비하지 않소?” 그 아내가 답하기를, “나는 임금의 명령을 듣지 못했소. 대장 벼슬은 누가 除授한 바요? 동계선생께서는 반드시 역적인 후손의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리다. 나는 차마 당신이 하는 일을 볼 수 없소”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sup>38)</sup>

당시 정희량은 영남에서 명성을 떨쳤고, 반란을 일으킬 때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대장군으로 자칭하였다. 또한 그는 반란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선조인 鄭蘊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했다. 이때 정희량의 妻는 임금의 命이 없었으니 정희량은 대장군이 아니라는 점과 鄭蘊은 역적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明言하여 정희량의 亂이 반란임을 규정한다. 이어 등장하는 나두동의 妻 역시 남편을 꾸짖고 있다.<sup>39)</sup> 안석경은 이 여성들이 남편을 추종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성대한 위세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면모를 직시하고 이에 저항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이 대목은 정희량이 성대한 기세로 들어오는 상황과, 정희량의 처가 그에 대항해 홀로 반란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다수가 지지하는 정희량과 고립된 위치에 있는 정희량의 처는 대조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대비로 인해 정희량의 처의 용기는 보다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정희량·나두동의 처는 그 배우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떠나는 행동을 보인다. 다음 인용문을 참고해 보자.

① 누군가 말하기를, 희량이 젊은 시절 성대한 명성이 있어서 영남의 사대부들이 모두 그를 따랐다고 한다. 전처를 잃고 현명한 부인을 구하였는데, 후에 자결한 부인이 또한 스스로 시집갈 곳을 선택하여 희량에게 시집갔던 것이라 한다.<sup>40)</sup>

38) “歲戊申鄭希亮之作亂也，其妻苦諫之，希亮不聽。聚兵之日，自稱大將軍，使人促其妻設餅，將以祭告桐溪先生之墓。其妻不肯設，希亮大怒，盛其將服儀衛，入責其妻曰：‘告墓登壇，日將晚矣，祭餅何不及時？’其妻曰：‘不聞有君命矣，大將誰所拜也？桐溪先生必不歆賊孫之祀，吾不忍見卿之所爲。’遂自經而死。”

39) “羅斗冬湖南名俠，并希亮作亂，其妻大罵斗冬曰：‘君臣之義，何可犯也。’”

40) “或曰：‘希亮少有盛名，嶺以南盡趨下風。其喪前妻求賢婦，自經之婦人，蓋亦自擇所

② “처음 그대를 奇士라 여겨 부인이 되기를 위해 그대를 섬겼으니, 그대가 역적의 괴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소. 나는 차마 보지 못하오” 하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sup>41)</sup>

예문 ①은 或者가 정희량의 처에 대해 언급한 대목이다. 여기서 정희량의 처는 시집갈 곳을 스스로 선택했다. 예문 ②는 나두동의 처가 남편을 꾸짖으며 하는 말이다. 나두동의 처는 남편을 奇士라 여겼기 때문에 섬겼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희량·나두동의 처는 죽음으로써 남편을 떠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상으로 안석경이 烈이라 평가한 여성인물의 행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우선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다수의 입장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고수한다. 다음으로, 이들은 불의한 현실 가운데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고,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방편으로 세속을 등지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배우자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배우자와 의기가 맞지 않자 떠나는 행동을 취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의 행동은 앞서 살펴본 唐 女俠傳奇에 나타난 俠女의 행동과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 이런 점에서, 안석경이 평가했던 ‘烈’은 ‘烈俠’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烈俠’의 ‘烈’은 ‘俠’과 통하며, 의협으로서의 의로운 기상을 뜻한다.

흥미롭게도 안석경의 여성인식은 그의 춘추의리와 접맥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예문을 보자.

사람 중에 남성은 陽이고, 그 아내는 陰입니다. 양은 음의 주인이 되고 임금은 신하의 綱領이 됩니다. 양은 짝수이고, 음은 홀수입니다. 임금은 홀로이고, 신하는 다수입니다. 두 신하가 한 임금을 섬기는 것은 바른 것이고, 한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조선이 中華의 풍속이 없고 순전히 夷狄의 풍속만 있더라도, 이미 大明의 신하가 되어 太祖皇帝의 때에 나라를 세웠으니, 또한 마땅히 절개를 지켜 저 오랑캐의 신하가 될 수 없습니다.<sup>42)</sup>

歸而歸於希亮云.”

41) “始以君爲奇士，願執箕箒而事之，不意君作逆魁，吾不忍見之。遂自經而死。”

42) “人之男陽也，其婦陰也。(…)陽爲陰主，君爲臣綱。陽奇而陰耦。君獨而臣衆，二臣而

위의 예문에서 안석경은 男女, 君臣, 華夷의 관계와 陽陰의 관계를 대응시키고 있다. 이어 안석경은 君臣의 관계에 있어 陽陰의 논리를 사용하여,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한다는 점과 明의 신하였던 조선이 청을 섬기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男女의 개념은 명과 조선으로 대응되는 君臣의 개념과 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석경의 여성인식, 그 중에서도 그의 烈俠에 대한 주목은 그의 춘추의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관계를 지니는가? 이제 이 점을 다음 절의 「劔女」에 대한 고찰에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복수의 성공과 迂儒 비판: 「劔女」

「검녀」는 안석경이 56세(1773)에 창작한 야담계 소설이다.<sup>43)</sup> 「검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女婢(이하 ‘검녀’라 지칭함)가 奇士로 명망이 높던 蘇凝天<sup>44)</sup>에게 소설이 되기를 청하여 3년 동안 그와 함께 산다. 그 동안 검녀는 소용천을 살피 그가 奇士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 이에 검녀는 소용천에게 자신이 주인집의 원수를 갚았던 일과 奇士를 만나려는 일념으로 소용천을 택한 것을 밝히고 처사의 임무에 대한 충고를 한다. 그리고 검녀는 소용천이 奇士가 아니니 떠나겠다고 하며 검술 실력을 보이고 사라진다.

「검녀」가 「박효랑전」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성격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검녀」의 창작에 박효랑 사건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박효랑전」의 실패한 복수는 「검녀」에서 성공한 복수로 바뀌고 있다. 「박효랑전」에서 복수의지와 복수의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면, 「검녀」에서는

---

事一君正也, 一臣而事二君不正也. 設使朝鮮雖無華夏之俗, 而純有夷狄之風者, 既爲大明之臣, 而立國於太祖高皇帝之世矣, 亦不宜改節而臣於彼虜也.”(「擬大庭對策」, 572면)

43) 「劔女」는 동양문고본 『雪橋漫錄』 권6에 수록되어 있다. 『雪橋漫錄』 권6 첫머리에 癸巳年(1773)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劔女」의 창작연도가 1773년임을 알 수 있다.

44) 蘇凝天은 조선후기의 문장가로 文名이 높았다. 성격이 호탕하여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국내 명승지를 주유하며 일생을 마쳤다. 당시 영남에서는 소용천에 대해 “南冥後二百年, 復見處士”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박희병, 앞의 책, 697면 참조.

복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이를 통해 당대의 오활한 선비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검녀」에 나타난 안석경의 주제의식을 조명해 보기로 한다. 우선 검녀는 주인집과 주인집 딸에게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검녀는 주인집이 멸족한 후 주인집 딸과 복수를 계획하고 수행하며,<sup>45)</sup> 주인집 딸이 자결한 후 그 유언을 충실히 지키는 과정<sup>46)</sup>에서 투철하게 의리를 지킨다. 이들의 의리는 상호 친밀한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주인집은 검녀에게 주인집 딸의 시중을 들게 하며 신뢰를 보이고, 주인집 딸과 검녀는 동년배로 함께 자라나 주인집 딸이 시집갈 때 검녀가 轎前婢로 따라갈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sup>47)</sup> 여기서 검녀가 지키는 의리는 소옹천이 名利를 추구하며 보이는 허위의식과 대비된다.

다음으로 주인집 딸과 검녀가 한 치의 의심 없이 복수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점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이들에게 복수는 당위적인 것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복수를 포기하는 일은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은 장기간 계획을 수립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복수를 이룬다. 이들의 복수는 7년에 걸쳐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된다.<sup>48)</sup>

그 다음으로, 검녀의 주체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검녀는 주인집에 대해서는 투철한 의리를 지키지만, 배우자로 택한 소옹천에 대해서는 그의 명망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떠난다.<sup>49)</sup> 이는 검녀가 스스로 추종대상을 선택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안석경은 “여자의 몸으로 남의 종 신세였지만 오히려 자신을 귀하게 여겨 필부에게 가볍게 몸을 맡기지 않았거늘 하물며 鴻儒와 奇士에게 있어 추종할 바를 가리지 않겠느냐?”<sup>50)</sup>라고 하여, 이러한 검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안석경이 추종대상을 선택하거나 의리를 지키는 과정 중에 주체성을 견

45) “娘子纔踰十歲，而與賤身謀爲男裝，而遠遊求劔師。”(「劔女」, 『雪橋漫錄』 권6,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349~350면) 이하 「劔女」의 원문 인용은 모두 이 자료에 의거한다.

46) “賤身賣兩劔，得五百餘金，卽葬娘子，而以所餘，買土田，使可繼香火，不改男裝而浮遊三年，所聞名高之士，莫如座下，故自獻其身，得侍下塵。”

47) “適與主家娘子同歲而生，故主家特與娘子而爲使，使爲將來嫁時轎前婢。”

48) “經二年始得之，學舞劔，五年始能空飛往來，鬻技於名都會，得累千金，以買四寶劔。乃之讎家，爲將鬻技者。”

49) “賤身既知座下之非奇士，而要終身仰望，則是負宿心，而兼負娘子之命也。故明曉辭決，而將遊於絕海空山矣。”

50) “女子之爲人隸，而尙能自珍其身，不忍輕委於凡夫，況於鴻儒奇士而不擇所從?”

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녀가 추종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신중함을 견지하는 설정 역시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 검녀는 3년 동안 천하를 周遊한 뒤 소옹천을 선택하며, 3년 동안 그를 세심히 살핀 후 떠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검녀의 투철한 의리, 치밀한 복수계획, 의리를 지키는 중에 보이는 주체적인 면모는 안석경이 주장하는 대명의리 및 북벌론과 흡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검녀의 의리는 안석경이 대명의리의 철저성과 상호성을 강조한 면과 조응하고 있으며, 검녀가 복수를 계획하고 준비한 점은 안석경이 북벌을 수행하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주장한 점과 정확히 상응한다. 검녀의 주체적 면모 역시 안석경이 추종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의 정당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名利를 그 기준으로 삼는 이들을 비판한 점과 상통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滅族한 주인집·검녀·주인집 딸의 관계 및 세력 정도는 당시의 明·조선·明의 流民의 관계 및 세력 정도와 흡사하다. 주인집을 멸족한 권세가는 당시 세력이 강한 淸에 대응되며, 아홉 살의 검녀와 주인집 소녀는 당시 청에 대항하는 조선과 明 流民의 미약한 상황과 유사하다. 요컨대 「검녀」에서 나타난 안석경의 주제의식에는 당시 보수적 담론인 대명의리론 및 북벌론과 상응하는 지점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석경은 「검녀」에서 당시 迂儒에 대한 비판적 시각 및 여성·천민에 대한 긍정과 같은 진보적 인식 역시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이 점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첫째, 「검녀」에서는 안석경의 당대 迂儒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난다. 이는 검녀가 奇士로 평가된 소옹천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다음 대목에서 잘 볼 수 있다.

들으니, 명성이 높은 선비로 선생 같은 분이 없다가에 스스로 몸을 바쳐 모신 것입니다. 선생이 능하신 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천문·역술·律學·算學 및 사주·점·부적·圖讖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몸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려 후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 이르는 데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奇士라는 명성을 얻고 계시다니 너무나 지나친 것입니다. 實이 없는 이름은 태평한 때에도 禍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혼란한 세상을 당해서이겠습니까!<sup>51)</sup>

51) “所聞名高之士，莫如座下，故自獻其身，得侍下塵，而竊矚座下所能，乃文章小技及

위의 비판은 소옹천으로 대표되는 처사들이 은거를 名利를 얻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데 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녀는 奇士로 명망이 높던 소옹천에게 “당신은 奇士가 아니다”라고 하여,<sup>52)</sup> 처사로서의 정체성과 책무를 환기시키고 있다. 안석경 역시 이름을 떨친 처사였으나, 그는 헛된 명성을 얻는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sup>53)</sup>

둘째, 「검녀」에는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검녀는 조선의 여타 여협서사의 협녀에 비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진취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이는 안석경의 여성인식과 상응되는 지점이다. 다음의 두 예문은 그의 여성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 매양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세에 문장으로 功名을 세울 수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항상 탄식하기를, “내가 남자가 될 수 있다면 다른 소망은 없고, 원컨대 산수 간에 집을 짓고 만권 서적을 소장하여 誦讀하며 일생을 마친다면 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평소 남편을 대하여 질문한 것은 古今의 경서와 역사서·성현의 언행에 관한 것이며, 부녀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남편이 즐겨 함께 수작하며, 閨門 안의 벗으로 대우하였다.

중년 이후에는 이미 勞苦로 병이 들어, 항상 신음을 일삼았으며 집안 일에 힘쓸 수 없었다. 때때로 번역한 책을 펴 보면서 마음에 맞는 구절이 나오면, 몸에서 고질병을 털어낸 양 여기곤 했다.

(…) 아, 淑人의 현명함으로써 안씨 집안의 宗統을 잇는 자가 되게 했다면, 학문에 성취가 있고 하늘이 부여한 능력을 넓히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니, 어찌 오직 淑人의 소원에 그칠 뿐이겠는가! 이는 족히 우리 집안을 廣大하게 하여 文運의 전승에 흠이 없고 가려짐에 유감이 없게 했을 터인데, 다만 걸출한 여자로서 규문에 간혀 지냈을 뿐이니, 애석하도다!<sup>54)</sup>

---

星曆、律算、祿命、卜筮、符籙、圖讖等小術，而若處心持身之大方，經世範後之大道，則邈乎其未之及也。其得奇士之名，無已太過乎？夫得過實之名者，雖在平世，亦難自免，況於亂世哉！”

52) “賤身既知座下之非奇士”

53) “夫若有一毫立名之意，參錯於守義之間，則受禍也宜哉。”(「深深堂閑話」, 『雪橋漫錄』, 15면)

54) “每自恨爲婦人，無以文章自樹於當世，常慨然歎曰：‘使吾得爲男子者，無它願，願結廬山水間，藏萬卷書，凡然誦讀，以終一生，足矣。’平居對夫子所質問者，古今書史，前言往行，而不及婦女瑣細之談，故夫子樂與酬酢，視以閨闈之友。中年以後，既以勞瘁

② 만일 대부가 되었다면 홀로 천 개의 城을 비추고 문장의 책임을 맡고 인재를 가려 등용하고 풍채는 크고 광대하며 명망은 높이 솟았을 것이니, 어찌 다만 우리나라뿐이겠는가. 중국의 五岳을 기울였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閨門 안에 갇혀 그 일생을 굶힐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고단하고 외로운 신세가 되어 젊은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하고 병들어 죽었다. 끝내 평안하지 못했고 평생 기구하게 보냈으니, 남은 향기 적막하다. 부여받은 성품은 순수하였는데 운명은 외롭고 고독하였으니, 하늘이여, 어쩐 일입니까! 옆에서 바라보며 눈물이 비 오듯 흐른다.<sup>55)</sup>

예문 ①에 등장하는 안석경의 사촌누이는 뛰어난 文才를 지녔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문을 하지 못해 그 우울함으로 인해 병을 얻어 생을 마쳤다. 예문 ②는 안석경이 자신의 모친에게 외종고모 南陽 洪氏의 뛰어난 재주와 기구한 인생과정을 듣고 이를 기록하여 제문으로 쓴 것이다. 안석경은 예문 ①에서 淑人 安氏의 文才와 학문에 대한 열망 및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매우 짙진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안씨의 재주가 당대에 발휘되지 못한 데 대해 한탄하고 있다. 숙인 안씨와 南陽 洪氏의 상황과 좌절은 안석경이 평생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 및 그 시대에 대한 좌절과 통하는 점이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여성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안석경은 주변 여성들을 통해 여성의 뛰어난 능력을 인식하고 시대적 제약에 갇혀있던 여성의 처지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 여성에 대한 안석경의 이러한 인식은 그가 뛰어난 의기와 재주를 가진 여성을 형상화한 것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

疾, 常事呻吟, 不能力幹家務, 時出所譯而披閱, 至適意處, 釋然若沉痾之祛軀也. (…)  
 嗚呼! 以淑人之賢, 而使爲安氏之宗子, 則學而有成, 弘其天賦, 豈惟淑人之願, 是足將光大吾家顯于當世, 無缺乎所承, 無憾乎所庇. 而顧爲笄珥之傑, 閉之中閨, 惜哉!”(『淑人順興安氏墓誌銘』, 가장본 『雪橋集』 권7, 715~716면) 이 글은 김창협이 『亡女吳氏墓誌銘』의 다음 구절과 내용이 유사하다. “顧嘗私謂兄弟, ‘使吾得爲男子, 無他願, 但願結屋深山, 皮書百千卷, 蕭然老其中足矣.’”(『亡女吳氏墓誌銘』, 『農巖集』 권27, 『韓國文集叢刊』 162집, 255면) 이들 글은 文才가 뛰어난 여성들의 지적 욕구와 그 지적 욕구를 채울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55) “使爲大夫, 孤照千城, 文章司命, 人物銓衡, 華滋溥博, 問望崢嶸, 豈狃青丘, 五岳可傾. 惜閉中閨, 枉其一生, 況又縈獨, 奧自弱齡, 疾喪困窶, 永不遑寧, 崎嶇終身, 寂寞遺馨. 賦性純粹, 稟命伶仃, 天乎何哉! 傍觀淚零.”(『戚從姑母南陽洪氏祭文』, 가장본 『雪橋集』 권7, 733면)

셋째, 「검녀」에서 여성 주인공은 賤民으로 설정되어 있다. 검녀의 숨겨져 있던 검술 실력이 드러나는 대목에서 양반과 천민으로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서, 상하관계에 있던 소옹천과 검녀의 위상은 전복된다.

옹천은 처음에 긴장하고 앉았다가 중간에 벌벌 떨더니 마침내 쓰러져서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검녀는 칼을 거두고 옷을 갈아입은 후 술을 데워 기쁨을 삼았다.<sup>56)</sup>

위 예문에서 소옹천은 검녀의 검술 실력을 보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인사불성이 되는 모습을 보인다. 소옹천의 두려움에 찬 모습과 검녀의 의연한 모습은 극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안석경이 성별이나 신분 이상으로 인물됨과 능력을 중시했다는 점과 연결된다. 안석경은 당시 인재들이 신분 때문에 뜻을 펼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모든 백성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능력에 따라 인재를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7)</sup> 또 안석경은 천민도 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하여,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sup>58)</sup>

한편, 「검녀」에는 작가의 주제의식을 부각시키는 문예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의 두 예문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① 달빛을 타고 춤을 추어, 날듯이 베는 칼날에 떨어진 머리가 금방 수 십이 되었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식구가 모두 붉은 피를 쏟으며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고서 마침내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sup>59)</sup>

② 사뿐히 움직이는 것이 제비 같더니 별안간 공중으로 칼이 날자 몸이 따라서 치솟아 칼을 옆구리에 끼었다. 처음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꽃잎이 지며 **얼음**이 부서지고, 중간에는 둥글게 모여서 **눈**이 녹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끝에는 훨훨 비상하여 **고니**처럼 높이 오르고 **학**처럼 날아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칼을 볼 수 있으랴! 마침 한 가닥 하얀 빛이 동쪽을 치고 서쪽에 부딪치며, 남쪽에서 번뜩이고 북쪽에서 번뜩하여 **획획** 바람

56) “凝天初猶堅坐, 已而顛縮, 終則顏仆, 殆不省事矣. 其女收劍更衣, 煖酒爲權.”

57) 「擬大庭對策」, 587면, 602~605면.

58) 「擬大庭對策」, 608면.

59) “乘月舞之, 飛劍所割, 頃刻數十頭, 而讎家內外, 皆已赫然血斃矣. 遂飛舞回來.”



이 나고 싸늘한 빛이 하늘에 서리었다. 이윽고 부르짖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휘 하고 뜰에 선 나무가 베어지더니 칼이 던져지고 사람이 우뚝 섰다. 나머지 빛과 못 다한 기운이 차갑게 사람을 휘감았다.<sup>60)</sup>

예문 ①에서 달빛의 흰색과 핏빛의 붉은색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장면묘사는 철저한 복수와 뛰어난 검술 능력을 표현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면서 검녀의 복수 의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 예문 ②에서 칼날의 움직임은 강조한 부분인 얼음·눈·고니·학이라는 보조개념을 통해 은유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들 보조개념에서 연상되는 흰 색과 밤이라는 공간에서 연상되는 흑색은 서로 대비되며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준다. 이를 통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싸늘한 칼날이 번뜩이는 양상이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 외에도 칼날이 휘 소리를 내는 부분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바람이 일어나는 양상에서 촉각적 이미지가 각각 감지된다. 이 대목에서는 여러 감각적 이미지가 혼합되어 검녀의 검술장면이 역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러한 장면묘사는 뛰어난 검술능력을 실감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한편 작가의식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①에서는 복수 상황의 묘사를 통해 복수의 의지가 부각되며, ②에서는 뛰어난 검술능력이 형상화되면서 소용천으로 대표되는 당대 처사와 대비되는 검녀의 의기와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검녀』에서 표출된 안석경의 주제의식 및 문예적 기법을 살펴보았다. 안석경이 험녀를 주목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북벌론 및 대명의리와 상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안석경이 험녀의 복수 행위 및 의리에 주목하고 이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그의 북벌론과 대명의리에 대한 고민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북벌론과 대명의리는 보수적이고 관념적인 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안석경은 이러한 입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선택을 고려하고 천민의 능력을 주목하는 진취적인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 안석경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대명의리와 북벌론의 진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술한바 당시의 지배층

60) “翩然若輕燕，而警然騰劍，竦身挾之。始也四撒，花零氷碎；中焉團結，雪滾電鑠；末乃翱翔，鶴舉鶴翥。既不可見人，而亦無由見劍，祇見一段白光，撞東觸西，閃南掣北，而颯颯生風，寒色凍天。俄叫一聲，砉然割庭柯，而劍擲人立，餘光剩氣，冷遍於人。”

이 대명의리를 통해 자신들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안석경의 대명의리는 明에 대한 실질적 의리에 주목하였다. 안석경에게 명의 군주는 ‘명분과 의리가 중시되던 시대’의 군주이다. 이러한 군주의 세력이 미약할 경우 대외적으로 군주를 保衛하는 신하의 역할은 한층 강화되며, 신하의 주체적인 선택은 군주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신하는 군주를 배반할 수도 있고, 신의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 미약한 군주를 배반하지 않고, 군주의 세력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신하야말로, 군주에게 있어 진정한 신하가 될 수 있다. 안석경은 명과 조선의 관계를 의리로 맺은 군신의 관계로 인식하였고, 명과의 의리를 잇고 淸을 추종하는 일군의 사대부들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요컨대 안석경은 군주와 신하로서 명과 조선을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군주[明]의 不在로 인한 신하[조선]의 역할 강화 및 주체적 선택에 대해 모색하였고, 이러한 모색이 君臣의 관계에 대응될 수 있는 男/女, 主/從의 관계로 확장되어 여성과 천민의 선택권과 역할 수행 및 이들의 능력에 대한 진보적 인식으로 진전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객의 기질과 안석경의 기질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협객은 자신을 알아준 사람에게 반드시 신의를 지키며, 목숨을 걸고 원수를 갚는다. 안석경은 협객 중에서도 특히 자객 행위를 하는 협객을 주목하였다. 자객 행위를 한 대표적인 협객인 豫讓은 두 마음을 품고 주인을 섬기는 자들을 비판하였다.<sup>61)</sup>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석경은 조선이 명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하며, 명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점에서 안석경은 신의를 지키며 원수를 갚는 협객에 주목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협객은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韓非子는 “儒者는 文으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협객은 武로써 금령을 범한다”고 하였다.<sup>62)</sup> 협객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武로써 해결하고, 문인은 붓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인과 협객은 사회의 현실에 앞장서서 비판자나 교정자

61)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豫讓又漆身爲厲，吞炭爲啞，使形狀不可知，行乞於市。其妻不識也。行見其友，其友識之，曰：‘汝非豫讓邪?’曰：‘我是也。’其友爲泣曰：‘以子之才，委質而臣事襄子，襄子必近幸子。近幸子，乃爲所欲，顧不易邪? 何乃殘身苦形，欲以求報襄子，不亦難乎!’豫讓曰：‘既已委質臣事人，而求殺之，是懷二心以事其君也。且吾所爲者極難耳! 然所以爲此者，將以愧天下後世之爲人臣，懷二心以事其君者也。’”(『刺客列傳』第26, 『史記』卷86, 中華書局, 2520면)

62) “韓子曰：‘儒以文亂法，而俠以武犯禁’”(『游俠列傳』第64, 『史記』卷124, 中華書局, 3181면).

가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안석경은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고, 그와 유사한 성향을 지닌 협객에게 동질감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협객은 상대방과 형세의 차이가 큰 경우나 원한을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인다. 안석경은 당시 청과 조선의 세력 차이로 인해, 복벌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안석경은 협객의 용기와 협녀의 주체성 및 복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목했다. 특히 협객이 여성일 경우, 원수인 상대방과의 힘의 차이는 한층 극명하게 나타난다. 안석경은 이러한 극도의 세력 차이는 복수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복수의지와 실천력을 극대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박효랑전」과 「검녀」의 경우 원수의 집안은 권세가인 반면, 복수를 수행하는 측은 두 소녀에 불과하다. 안석경은 이처럼 두 세력의 차이를 극도로 대비시켜 악조건을 무릅쓰고 복수를 수행한 여성 주인공의 용기 있는 행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세력의 차이를 계산하여 물러나지 말고, 의지와 의협심을 견지하여 복수를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객은 고립된 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하며, 상대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다. 협객은 劍으로써 세상에 대항하나, 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협객은 공통적으로 세속을 떠나거나 자결하는 양상을 보이게 마련이다. 이러한 협녀의 행동양상은 안석경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은거한 점과도 서로 통하고 있다.

이상에서 협녀에 대한 안석경의 형상화 방식은 그의 현실인식과 긴밀히 대응된다는 점과, 그 내부에 그 보수성과 진보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다음 장에서는 안석경의 議論文을 통해 그가 복벌론을 전개하며 현실을 비판하는 면을 고찰하여 그의 관념적 성향과 현실적 성향이 어떻게 내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조명해 보기로 한다.

## V.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

이 장에서는 안석경의 의론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그의 현실인식에 나타난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을 밝혀보기로 한다.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에서는 안석경의 관념적인 성향을 잘 볼 수 있고, 『擬大庭對策』에서는 그의 현실적인 성향을 잘 볼 수 있다.

### 1.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와 北伐論

안석경은 『남한산성서장대무망루기』<sup>1)</sup>를 35~39세(1752~1756) 사이에 썼다.<sup>2)</sup> 『무망루기』는 안석경의 춘추의리를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 절에서는 『무망루기』에 나타난 안석경의 춘추의리를 살펴보기 위해 작품을 단락별로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무망루기』는 전체적으로 아홉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단락: 中華로서의 정당성
- 2단락: 조선이 겪은 수난
- 3단락: 북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 4단락: 북벌론의 정당성
- 5단락: 역사의 회고
- 6단락: 오랑캐 必亡에 대한 확신
- 7단락: 북벌의 군사적 方策
- 8단락: 事跡을 통한 비분의 환기
- 9단락: 창작 동기

이제부터 『무망루기』의 주제와 구성 및 표현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1단락: 中華로서의 정당성

- 
- 1) 이하 『무망루기』로 지칭한다.
  - 2)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는 규장각본 『雪橋集』 권4와 동양문고본 『雪橋集』에 수록되어 있다. 확인한 결과 두 글이 동일하다. 이 글은 동양문고본 『雪橋集』의 1752년과 1756년 사이에 창작된 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안석경은 「무망루기」의 제1단락에서 明과 조선이 지리적·문화적으로 동일한 中華라는 점을 선언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明은 중국에서 일어나 周·漢의 제도를 사용했고 사방을 밝게 다스려 바다 안팎의 나라들을 신하로 기르지 않음이 없었다. 우리 조선은 명과 지리상 가장 가까워 나뉜 별이 궤도를 같이 하듯, 風氣가 서로 통했다. 그러므로 명은 조선이 진심으로 따르는 것을 알고 예우를 성대히 하고 文德으로 환히 우리를 일으켜 산천과 인물이 개발되게 하였다. 조선은 빠르게 교화되어 중화와 동일하게 되었다.<sup>3)</sup>

여기서 中華는 文明과 동의어이다. 조선이 중화라는 것은 조선이 문명국으로서 야만국과 대비되는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이어 임진왜란부터 당대까지 조선이 겪은 수난이 서술된다.

### 제2단락: 조선이 겪은 수난

이 단락에서 안석경은 壬·丙 兩亂과 남한산성의 盟約, 明의 멸망 과정을 서술하며, 그 사이에 조선이 淸에게 대항했던 사건들을 교차 기술하고 있다. 이 글은 文勢의 굴곡과 變轉이 매우 심한데 특히 이 단락에서 수차례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이때가 崇禎 丙子年(1636)이었다. 겨울이 되자, 오랑캐 우두머리가 많은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습격하니, 우리 도성을 지킬 수 없었다. 임금께서 남한산성으로 행차하셨는데, 산성 역시 지킬 수 없었다. 오랑캐 두목은 조선에게 맹약을 요구하였다.

② 우리나라 대부 및 학사들은 죽음을 다투며 말하였다. “국가는 망할 수 있어도 오랑캐와 맹약할 수는 없습니다.”

③ 조선은 마침내 오랑캐와 맹약을 맺었다. 화의를 배척하던 신하들이

3) “大明起華夏, 用周、漢制度, 光御四海, 海內外凡有國者, 無不臣畜. 而我朝鮮最近皇都, 分星同躔, 風氣交達, 故皇朝視以內服, 禮遇甚盛, 而文德煥然起我, 我山川人物開發, 而雅化與中華無異.”(『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 규장각본 『雪橋集』 권4, 『韓國文集叢刊』 233집, 499면) 이하 「무망루기」의 원문 인용은 모두 이 자료에 의거한다.

많이 죽었다. 오랑캐는 중국 안에서 노략질에 전념했고 天朝(明)는 결국 크게 쇠약해졌다.

④ 우리나라 關西 都督 林慶業이 홀로 조각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登州로 가서 明의 장군과 전쟁의 일을 논의하여 오랑캐의 소굴을 찢어버리려고 하였는데, 皇明의 도성이 기울고 무너짐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⑤ 천하가 모두 오랑캐에 더럽히는 바가 되었다. 아! 슬프도다!④

위 예문은 제2단락의 일부분이다. 이 단락에서 조선이 수난을 겪는 대목은 기세가 하락하고, 저항하는 대목은 기세가 상승한다. 가령 ①이 抑(눌러줌)이라면, ②는 揚(추어줌)이다. ③이 또 다른 抑이고, ④가 또 다른 揚이다. 이러한 기복과 파란을 통해 역사 서술에 긴장감이 부여된다. 동시에 점층적으로 증대하는 수난과 그에 맞서 강해지는 저항이 교차 기술되는 과정에서 청에 대한 적대감과 비분이 깊어지며 저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확인된다. 이 단락에서 안석경은 거듭되는 수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속된 조선의 저항시도와 그 의지에 주목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어 조선은 청에게 무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다. 결국 청을 치려는 시도가 거듭 실패하는 대목에서 점차 고조되던 비분강개한 심정은 정점에 이른다. 그 순간 안석경은 ‘아! 슬프도다!’라는 영탄사를 發함으로써, 자신의 비분을 격렬하게 표출하고 있다.

### 제3단락: 북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이 단락에서는 당시 사대부들의 북벌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서술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아, 우리 明은 의리상의 주인이며 스승이자 부친이고, 明의 원수는 오랑캐이니, 오랑캐는 곧 개돼지이다. 개돼지에게 절하고 원수를 가까이하며 君父를 배반하였으니, 어찌 사람의 情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조선의

---

4) “① 是歲崇禎丙子也. 至冬, 虜酋用大兵襲我, 我都城不可守, 大駕幸南漢山城, 山城又不守, 虜酋要朝鮮盟, ② 我大夫及學士死爭曰: ‘國家亡, 虜不可與盟.’ ③ 朝鮮竟受虜盟, 而斥和臣多死之. 虜遂專意內寇, 天朝遂大敝. ④ 而我關西都督林英伯, 獨用小舟, 越海之登州, 與天將議兵, 欲搗虜巢, 無何皇城傾敗. ⑤ 天下盡爲虜所汚. 嗚呼痛哉!”

선비들이 이를 서로 말하며 원통해하고 눈물 흘리면서 지금 우리 明을 위해 한번 죽되, 오랑캐를 討伐하다가 죽기를 원한다.

오직 일군의 사람들만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이제 너무 늦어, 보답할 수 없고 또한 잊을 수 있다”고 하니, 무릇 부귀를 탐내고 음악과 여색에 탐닉하는 자들이 모두 붙좃아 화답하면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 아득하게도 마음에 없으니, 홀로 어찌겠는가.<sup>5)</sup>

이 단락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획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비분이 고조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비분이 무력감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조선 사대부들의 복수의지는 대명의리와 청에 대한 비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를 견지하는 한 복수의지는 굳건하였고 복수의 희망은 지속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앞의 제2단락에서 표출된 비분이 더욱 고조된다. 비분의 고조는 청을 섬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대 사대부들은 북벌을 주장하며 결사항쟁을 주장하는 측과 명의 은혜와 청에 대한 원한을 잊을 수 있다는 측으로 분열되었다. 이 단락에서 전자인 “조선의 선비”와 후자인 “일군의 사람들”·“부귀를 탐내고 음악과 여색에 탐닉하는 자들”은 뚜렷이 대비되고 있다. 후자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벌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지기반을 잃고 비웃음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석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한탄을 거듭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기세가 하강되면서 강조된 부분의 “잊을 수 있다”(可忘)라는 어구가 처음 나타난다. 이어 다음 단락에서부터 “잊을 수 있다”(可忘)는 주장에 대한 안석경의 반론이 전개된다. 이 점에서 ‘忘’자는 이 작품의 字眼이다.

#### 제4단락: 북벌의 정당성

이 단락에서 안석경은 북벌의 정당성을 선언한다.

---

5) “嗚呼! 我明義主也, 師父也, 而仇讎在虜, 虜即犬彘耳. 拜犬彘睨仇讎, 而背君父者, 豈人之情哉. 朝鮮士類, 相語慷慨泣下, 至今願爲我明一死, 死於北伐虜. 惟一種之人笑之, 蓋曰: ‘今已晚也, 無可報也, 亦可忘也.’ 凡冒富貴而湛溺聲色者, 從而和之曰: ‘然也.’ 舉漠然不以在心, 亦獨何哉?”

傳에 이르기를, “임금은 국가로써 몸을 삼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九代까지 복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록 百代 이후라도 괜찮다”고 한다.<sup>6)</sup> 그러므로 우리는 堯明에 대하여 비록 百代가 지나더라도 진실로 우리나라가 보전되고 있다면 마땅히 온 나라(조선을 말함-인용자)를 들어 堯明을 위해 죽어야 한다. 만일 오랑캐의 우두머리에게 아직도 남은 후손이 있으면, 百代 이후라도 칠 수 있다. 古人이 말하기를, “百代 이후에도 이 적을 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 이 적을 잊을 수 있겠는가!<sup>7)</sup>

이 단락은 이 글 전체에서 북벌의 가능성이 확장되는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이 단락에 들어서면서 문세가 고양된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안석경은 고인의 말에 의거하여, 시간이 지나 잊을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百代가 지나도 복수의지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은 안석경의 북벌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처럼 이 단락은 매우 관념적이고 당위적이다.

### 제5단락: 역사의 회고

이어 안석경은 조선이 청을 정벌할 수 있었던 기회를 세 차례 서술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예문을 보자.

일전에 만일 尹尙書·鄭侍郎·洪學士<sup>8)</sup>의 계책(斥和策을 말함-인용자)이 채택되어, 온 조선이 死力을 다해 싸워 遼東과 瀋陽을 전복시켰다면, 오랑캐는 섬멸되고 皇州(明을 말함-인용자)는 평안해졌을 것이다. 또 어찌 남한산성의 일이 있었겠는가?

남한산성에 있을 때에 金相國·鄭侍郎·尹學士·吳學士<sup>9)</sup>의 말(主戰論을 말함-인용자)이 행해져서, 성을 죽음으로 지키고 국가가 義를 위해 망했다면, 온 나라의 義士들이 모두 모여 다투어 죽었을 것이니,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돌아가 반드시 세력

6) 이 말은 『春秋公羊傳』에 보인다. 해당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遠祖者, 幾世乎? 九世矣. 九世猶可以復讐乎? 雖百世, 可也. (….)國君以國爲體, 諸侯世, 故國君爲一體也.”(『春秋公羊傳注疏』 권6, 北京大學出版社, 2000, 143~144면)

7) “傳曰: ‘國君以國爲體’, 故曰: ‘九世猶可以復讐乎? 雖百世, 可也.’ 然則我之於皇明, 雖百世, 苟爲有國, 當以國爲之死, 使虜酋猶有餘種, 雖百世, 可伐也. 古人有言曰: ‘百世不可忘此賊.’ 噫! 此賊其可忘乎!”

8) 예문의 尹尙書, 鄭侍郎, 洪學士는 尹集, 鄭蘊, 洪翼漢이다.

9) 예문의 金相國, 尹學士, 吳學士는 金尙憲, 尹集, 吳達濟이다.



이 수축되어 숨었을 것이니, 감히 황제의 도성을 침범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황제의 도성이 이미 함락된 후, 효종의 北伐策이 성취되었다면 천하가 우리 임금을 몹시 흠모하고 저 더러운 오랑캐를 미워하여, 반드시 동쪽 조선의 군대에 호응하며 사방에서 넘쳐 나오고 분발하여 반드시 오랑캐를 제거해 버린 뒤에야 그쳤을 것이다.

돌아보건대 하늘의 뜻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매번 세상 일을 그르쳤으니, 애통하고 수치스럽게 이에 이르렀다.<sup>10)</sup>

안석경은 임술·병자년에 主戰派의 주장이 시행되었다면 조선이 청을 물리쳤을 것이며, 남한산성에서 목숨을 걸고 성을 지켰다면 청에게 패배하지 않았을 것이며, 효종의 북벌책이 실행되었다면 천하가 이를 지원했을 것이라 하여, 과거의 일을 회고한다. 이 과정에서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심정은 점차 고조된다. 안석경은 이 단락에서 북벌의 가능성이 존재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북벌 시도가 실패한 것을 하늘의 뜻으로 돌린다.

#### 제6단락: 오랑캐 必亡에 대한 확신

안석경은 이 단락에 들어와 오랑캐가 반드시 망한다는 믿음을 드러낸다.

오랑캐는 이미 八域을 점거하고 四代가 이어졌다. 나무의 뿌리가 깊고 견고하여 도모하기가 실로 어렵다. 이에 지금 치고자 하는 자는 시대의 형세로 보자면 진실로 늦었다. 그러나 시대의 의리로 말한다면, 어찌 늦을 리가 있겠는가? 아! 楚나라 사람은 비록 세 집만 모이더라도, 秦나라를 멸망시킬 자는 반드시 초나라 사람이라고 하였다. 초나라가 진나라를 원수로 여겨 원한이 깊었다. 때문에 陳勝과 吳廣이 정벌을 시작하여 劉邦과 項羽가 끝맺었으니, 진나라를 멸망시킨 자 과연 모두 초나라 사람이었다. 金나라 오랑캐가 宋나라를 베어 끊기를 매우 혹독하게 하였는데, 송나라를 臣妾같이 굴복시킨 지 백여 년이 지난 후 끝내 송나라에게 멸망

10) “向使尹尙書、鄭侍郎、洪學士之謀得用，而悉朝鮮死力，以覆遼、瀋，則醜類殲而皇州可安，且焉有南漢之事？在南漢而使金相國、鄭侍郎、尹學士、吳學士之言得行，而城守有死國以義亡，則國中義士百羣爭死，虜必不能賴我而去，去必蹙伏，不敢犯皇城。皇城之既陷也，我寧考北伐之議得成，則天下方痛慕吾君而惡醜虜，必齋應東師，四潰而奮發，必除虜乃已。顧天有未定，每誤人事，使之痛傷羞抑，一至於此。”

당했다.

대개 사람이 원망이 쌓이는 것이 심하고 애통한 심정이 오래되면, 그 원한을 펴 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다. 원망과 독이 오래되면, 그 순일한 불꽃이 천지를 움직이니, 氣化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저 오랑캐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깊으니, 비록 늦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오랑캐를 섬멸할 날이 올 것이다. **어찌 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sup>11)</sup>

안석경은 이 단락에서 북벌의 현실적 난점인 청의 강한 형세를 언급한다. 이 대목에서 그가 당시의 조선과 청의 세력 차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 고려는 북벌의 가능성을 잠시 회의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이 부분에서 문세는 또 한 번의 굴곡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청의 강한 세력이 복수의 현실적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면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세력 차이가 원한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문세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에 덧붙여 그는 楚나라 사람이 秦나라를 멸망시킨 사례와 宋나라 사람이 金나라를 멸망시킨 역사적 사례를 든다. 이어 그는 원한이 오래되면 하늘이 그 원한을 펴주며, 사람이 세력이 약하더라도 원한을 잊지 않으면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복수를 갚기 위해서는 원한을 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늦더라도 반드시 북벌할 시점이 올 것이라는 확신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무력한 상황에 희망을 부여한다. 안석경은 이 단락에서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 역사적 사례를 고찰하는 한편, 殃禍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있다.

#### 제7단락: 북벌의 군사적 方策

또한 안석경은 북벌론의 현실적 기반으로 조선의 유리한 지형을 제시한다. 그는 조선의 要衝地를 연결하고, 청이 쇠약한 기미를 틈타 陸海로 진군한다면 북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11) “虜既據八域傳四世，樹本深堅，圖之實難，乃今欲伐之者，若以時勢則誠晚矣。若以時義則何晚之有？嗚呼！楚雖三戶，亡秦必楚。楚於秦讎怨最深，故始之以勝、麴，終之以劉、項，滅秦者果皆楚人。金虜剪宋甚酷而臣妾宋，百年卒爲宋所滅。蓋人有積怨深痛久屈，而使獲伸者天意也。怨毒之久，其精骸能動天地，而轉氣化者人事也。我讎虜深矣，雖晚，我必有滅虜之日，奈何欲忘之耶。”

내가 남한산에 와서 西將臺에 올라 우리 조선을 바라보니, 산을 둘러싸고 바다를 끌어안아 사방 천 리 남짓 된다. 이를 활용하면 천하에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산이 遼東과 薊丘와 연결되고 바다는 河水와 淮水에 이어졌다. 진실로 要害處를 연달아 연결하고 기미를 타서 육지와 바다로 병사를 갖추어 진군한다면 천하의 도적이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컨대 머리를 숙이고 손을 움츠리고 분을 머금고 아픔을 참는 것을 날로 묵묵히 이와 같이 한다면, 어찌 애처롭지 않겠는가!<sup>12)</sup>

위의 예문에서 안석경이 서 있는 남한산성은 청에게 항복을 한 곳이다. 그런데 안석경은 남한산성에서 치욕을 상기하기 전에 북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선의 지리적 기반에 주목한다. 치욕적인 장소에서 오히려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의 저력에 대한 안석경의 자신감이 그 치욕감과 울분 못지않게 굳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석경은 이러한 자신감을 북벌론과 결합시켜 치욕과 울분을 해소하고자 한다.

#### 제8단락: 事跡을 통한 비분의 환기

이어 안석경은 좌우의 事跡을 통해 조선과 明의 의리와 淸으로부터 당한 치욕을 회상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서쪽을 바라보니 한 번에 만 리가 펼쳐진다. 淸으로 가는 옛 길과 사신이 방문하던 경로, 林都督(임경업을 말함-인용자)이 바다를 건너던 정취가 뚜렷하여 모두 한 곳 한 곳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말할 수 있다. 옆의 汗峰을 노려보고 우뚝 솟은 삼전도비를 내려다보며 침을 뱉는다. 이를 보니 눈이 찢어지게 흘려보게 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목숨이 아까운지 모르게 된다. 원수를 잊고 원망을 그치자고 말하는 저 사람들, 사람의 마음이 있는 자들인가!<sup>13)</sup>

12) “余之南漢之山，爲登西將臺，而觀乎我東之爲國矣，包山擁海，方千里有餘，舉而用之，足以方行乎天下矣。山連遼、薊，海接河、淮，苟脉要害乘機勢，水陸俱進兵，則天下之賊可禽也。而顧低首縮手，含憤忍痛，日墨墨如此，寧不哀哉!”

13) “西望渺茫，一盡萬里，而朝天舊路，天使照臨之跡，林都督駕海之餘情，的的乎皆可指而言也。側睨汗峰，俯唾三田礪，令人眦裂臆坼，不省此生之可惜，彼爲忘讎息怨之說者，尙有人之心乎!”

안석경은 명나라로 가던 바닷길을 바라보면서 대명의리를 생각하고, 임경업이 간 길을 보며 북벌의 의지를 굳건히 한다. 밑줄 친 부분의 “한 곳 한 곳 일일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말할 수 있다”라는 구절에는 스러져 가는 대명의리를 뚜렷이 남아있는 사적을 통해 되살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안석경은 청에 의해 훼손된 汗峰<sup>14)</sup>을 노려보고, 청의 승전비인 삼전도비에 침을 뱉는다. 밑줄 친 부분의 “눈이 찢어지게 흘려보게 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목숨이 아까운지 모르게 된다”라는 대목에서 작가의 격분은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킨다. 이어 원한을 잊을 것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전개된다. 이 비판은 감정적인 매도에 가까울 정도로 격렬하고 매섭다. 이 단락의 모든 서술은 이 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수렴된다. 여기서 안석경은 독자가 격분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핵심 주장을 펼쳐 독자가 은연중에 공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제9단락: 창작 동기

이어 결말 단락이 간략하게 서술된다. 안석경은 이 단락에서 이 글을 쓴 연유를 밝히고 있다. 안석경은 李箕鎭이 남한산성 西將臺 위에 無忘樓를 세운 일을 서술하고, ‘無忘’이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한 뒤 자신이 그 뜻을 좋게 여긴다고 했다. 독자는 이 단락에 와서 이 글이 무망루에 대한 記文이며, 지금까지의 북벌 논의가 원한을 잊을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 잊지 말 것을 주장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무망루기』는 독자에게 청에 대한 복수심과 복수의지를 환기시키며, 원한을 잊을 것을 주장하는 이들을 반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무망루기』를 단락별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이 작품에 나타난 표현기법 및 안석경의 북벌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기로 하자. 『무망루기』의 표현기법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망루기』는 제2단락에서는 수난과 저항이, 제5단락에서는 가능성과 좌절이 교차 서술된다. 이에 따라 문세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어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이 억양돈좌는 글 전체에 비분을 고조시키는 데 일조한다. 이 글은 문

---

14) 남한산성의 汗峰은 숙종31년(1705) 淸에 의해 훼손되었다.

세의 기복이 거듭되며 제4단락을 기점으로 북벌 가능성의 축소를 서술한 단락들과 북벌 가능성의 확장을 서술한 단락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대비적 구성을 통해 안석경은 주제의식을 선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제8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자의 감흥을 고조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 안석경은 주장의 근거를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세의 기복을 통해 독자의 감흥을 조절하여 감흥이 최고조에 이를 때 핵심 주장을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고 제Ⅱ장에서 안석경의 문예의식을 고찰할 때 논의된바, 그가 중시한 문예기법이 구체적으로 작품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북벌론의 성격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안석경의 북벌론은 그의 복수의지와 맞닿아 있으며 그의 복수의지는 反淸感情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북벌론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이다. 감정은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나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런데 안석경은 일시적으로 극렬하나 사라지기 쉬운 적대감을 ‘원한’이라는 장기적이며 굳건한 감정으로 변모시키고자 한다. 원한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결국 상대에게 殃禍를 입히는 속성이 있다. 여기서 안석경은 원한의 이러한 속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안석경은 당시의 북벌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항하여 북벌론을 평생 견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안석경이 과거의 사례를 회고하여 북벌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은 그의 북벌론이 더욱 관념적인 성향을 띠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무망루기』에서 안석경은 당시 북벌의 단기 추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직시하고 북벌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보다 낮은 목표로 수정하며, 현실적 가능성을 확장하여 수정한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는 관념적인 북벌론을 보다 현실화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안석경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그의 청에 대한 적대감과 북벌에 대한 집념은 그로 하여금 북벌을 향한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안석경이 춘추의리를 주장하며 드러내는 관념성은 그의 사회적 위치와 당대 조선의 특수한 상황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안석경은 노론계 문인으로서 당대 노론계 문인이 지닌 춘추의리에 대한 완고한 태도와 청에 대한 비분을 견지하였다. 안석경의 부친 안중관 및 그가 흠모했던 송시열, 김창협 등은 안석경이 춘추의리를 견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안석경의 이

러한 환경은 그가 북벌에 대한 이상을 회의하지 않고 끊임없이 북벌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안석경 당대의 조선은 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었다. 조선의 대다수 사대부에게 당시는 선진문명이 사라진 말세였다. 지배층은 국내적으로 대명의리와 북벌론을 표방했고, 이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했다. 이 때문에 조선의 대다수 사대부들은 청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지 못했다. 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조선에는 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이 난무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명에 대한 선망과 청의 멸망에 대한 기대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청과 공생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배제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안석경의 춘추의리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그는 관념적인 북벌론을 고수하였으며, 당대 북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안석경이 당대 현실과 괴리된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안석경은 당대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직시하였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안석경의 이러한 두 면모는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한다. 다음 절에서는 안석경의 『擬大庭對策』을 분석하여, 그가 당대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방향성을 모색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擬大庭對策』의 현실 비판

『擬大庭對策』은 안석경이 34세(1751)에 쓴 국정 전반에 대한 시정책이다.<sup>15)</sup> 이 작품은 대책문의 형식을 따라 항목별로 현 제도의 폐단을 적시하고 그 원인을 논파한 후, 문제 상황의 해결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의대정대책』에 나타난 안석경의 현실비판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그가 주장한 내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다만, 이 작품이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심이 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다루기로 한다. 이 절에서는 상층에 대해 비판한 부분과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5) 『擬大庭對策』은 규장각본 『雪橋集』 권7에 수록되어 있다. 창작연도는 안석임의 행장에 1751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석경은 「의대정대책」에서 당시 특권계급의 도덕적 기만과 허위의식을 폭로하고 있다. 그는 당대의 특권층이었던 왕의 인척세력 및 환관세력에의 富의 집중 현상에 대해 신랄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다음의 세 예문에는 안석경의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① 지금 전하께서는 한 몸은 검소하게 하실 수 있으나, 나라를 검소하게 하시지는 못합니다. 많은 부분에 쓸데없이 낭비하고, 하사하는 것을 좋아하시어 법도가 없습니다. 한 해의 세입은 항상 공급되지 못할까 걱정하시지만, 한 해의 세출은 매년 남는 것처럼 여유롭게 사용합니다. 명분 없이 취하는 것이 점점 무거워지고, 긴급하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 때문에 절약한다는 명성이 있으면서도 절약하는 실질이 없고, 사치하는 실체가 있으면서도 사치한다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sup>16)</sup>

② 내부에서 가장 큰 것이 內需司입니다. 이는 법전에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삼남지방의 일을 들어보니, 내수사에 속한 토지와 노비가 이미 각각 십여만이라 하니, 다른 지방의 사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州郡은 감히 알 수 없고 조정도 이에 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같이 환관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 전하의 사사로운 용도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당당한 국가의 재물을 가지고 사사로운 재물로 삼는데, 전하께서 홀로 그 허물을 받고 있으시니 저는 개탄하며 탄식합니다.<sup>17)</sup>

③ 지금 국가는 재물이 고갈되었고, 백성들은 밭에서 곤궁하며 힘은 고갈되었고, 징물과 납세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궁궐들에 지급되는 免稅田은 너무나 많으니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첫째의 해로운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 免稅田을 취한 여러 宮에서 각각 사사로이 사람을 보내 감독하게 하는데,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도 근심하지 않으며, 사납고 가혹하게 감독하여 넘치도록 수탈합니다. 이것이 그 둘째의 해로운 점입니다. 바다를 구획하여 고기를

16) “今殿下能儉於身而不能儉於國. 浮費多端, 好賜無藝. 歲入每患不給, 而其出每若有餘. 取之無名者漸重, 而用之不急者滋甚. 是以有節儉之名, 而無節儉之實, 有侈費之實, 而無侈費之名.”(『擬大庭對策』, 576면)

17) “內府之最大者, 爲內需司, 而其籍不外見. 然臣竊聞三南之事矣, 凡土地臧獲之屬於內需司者, 已各爲十餘萬, 則餘在五路者, 從可知也. 而州郡不敢與知, 朝廷不敢與知, 而一入於宦侍之手, 其爲殿下之所私用者能幾何? 而以堂堂之國, 有私財之吝, 殿下獨受其咎, 臣竊爲慨然太息也.”(『擬大庭對策』, 581~582면)

공급하는 것을 ‘漁場’이라 하고, 산을 구획하여 나무를 공급하는 것을 ‘柴場’이라 하는 데, 백리에서 천리까지 이르고 있으니, 이미 나무와 고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산에서 경작하고 바다에서 고기 잡는 백성들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아 들볶여 타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를 지키는 관원들도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구렁텅이와 골짜기에서 시체가 굴러다니고 국가는 장정들을 잃으니, 이것이 그 셋째의 해로운 점입니다.<sup>18)</sup>

안석경은 예문 ①에서 영조의 검소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더욱 빈곤해지는 이유를 묻고, 이어 영조의 검소함이 ‘실제’가 아닌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예문 ②에서는 국가의 재물이 궁실과 환관의 사적 재산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예문 ③에서는 왕실의 인척이 입는 특혜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안석경은 내수사의 첫 번째 폐해로 백성의 더욱 곤궁해지는 상황을 들며, 두 번째 폐해로 감독관이 백성의 고초를 아랑곳하지 않고 수탈하는 점을 든다. 이 대목은 굶주려 죽는 백성과 포악한 특권계급을 대비시켜, 당시 상황의 부당함을 뚜렷이 각인시킨다. 이어 세 번째 폐해인 백성들이 결국 목숨을 잃는 상황이 제시된다. 이 세 가지 폐해의 서술은 민생에 끼치는 악영향이 증대되는 과정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영조는 스스로 검소함을 자처하며 聖君의 정치를 표방하고 권력의 집중을 정당화하였다.<sup>19)</sup> 그러나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영조는 內需司를 통해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토지를 사사로운 재산으로 이용하였고, 종실과 인척에게 국가의 재물과 토지를 하사하였다. 때문에 백성의 생활은 더욱 곤궁하고 피폐해졌다. 이에 대해 안석경은 특권층의 위선을 폭로하여, 이들이 표방하는 정당성의 허위를 꼬집었다. 권력층의 불의나 권력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위선과 기만이 폭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안석경의 특권층에 대한 비판은 의의를 가진다.

18) “今者國匱於財，民窘於田窮於力，竭於徵斂，而所給諸宮，免稅之田太多，得無使民而益窘乎？其害一也。 且其所取者，諸宮各使私人督之，民之飢寒死亡，則非其所憂，而暴悍所督，期於盈溢，其害二也。 劃海而給曰漁場，劃山而給曰柴場，近者百里，遠者千里，既不爲柴，亦不爲魚，而使山耕海食之民，焦熬於怙勢牟利之人，守土之官，無可奈何，民轉溝壑，國失丁壯，其害三也。”(『擬大庭對策』, 582~583면)

19) 이희환, 앞의 책, 301면 참조.



안석경은 이어 하층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제도와 납세제도의 개혁 및 구휼 정책과 의료정책 수립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또 백성들의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한번 먹는 데 萬錢을 들여도 부족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고, 三旬九食하는 것을 스스로 다행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자는 동산과 집이 十百을 헤아리고 밭이랑이 千萬을 헤아립니다. 부족한 자는 집 하나도 없고, 한 이랑의 경작지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의 집에 의탁하여 거주하고 부자들의 밭에 소작을 붙이는 게 온 나라 안에 십중팔구를 차지하며 집주인에게 사역되는 것이 관에서 사역되는 것의 몇 갑절이나 되고, 밭주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 세금의 열 갑절이니, 백성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sup>20)</sup>

且人家之貧富，其等絕異，有一食萬錢，以爲不足者，有三旬九食，自以爲幸者矣。 (…)故有餘者園宅以十百數，田頃以千萬數，不足者無一廛之居，一畝之耕。 故貧人之托居富人之廛，寄佃富人之田者，舉國中十居八九，而役於宅主者，倍蓰於官役，稅於田主者，十倍於公稅，則小民何以爲生乎!

안석경은 이 단락에서 빈부 격차가 심해진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한 끼 식사에 萬錢을 소비하는 부유층과 三旬九食을 다행으로 여기는 극빈층이 극적으로 대비되며, 이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당시 백성의 80~90%는 빈민층으로서, 여러 채의 집과 많은 전답을 보유한 부유층의 소작인이 되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동산과 집이 십백을 헤아리고”(園宅以十百數)는 “집 하나도 없고”(無一廛之居)와 대비되고, “밭이랑이 천만을 헤아린다”(田頃以千萬數)는 “한 이랑의 경작지도 없”(無一畝之耕)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는 “충분한 자”(有餘者)와 “부족한 자”(不足者)의 생활 격차를 대비시키며 당시 상황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가 소작인에게 요구하는 세금과 부역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의 몇 배에 이르고 있다. 안석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백성들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을 던져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의 해결방안으로 안석경은 먼저 토지제도와 납세제도의 개

20) 『擬大庭對策』, 593~595면. 앞으로 산문 분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 원문을 병기한다.

혁을 제안하였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① 지금 우리 전하께서 王政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왕정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백성의 생산을 주관하시어 전답을 나눠주고 집을 주어, 균등하지 않다는 탄식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를 다스리는 기반으로 삼는 것은 감히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평야가 적어, 井田 제도를 실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漢代의 限田의 논의나, 唐代의 授田의 제도를 논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답을 바치는 자에게 그 많고 적음의 등급이 있을 경우에는 爵祿과 賞을 주어 위로하는 법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땅을 공급할 때 비옥하고 메마른 차이가 있으니 地質의 품등을 재차 나누는 제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적민자를 지극하게 가려야 할 것입니다.<sup>21)</sup>

② 전하께서 진실로 사사로운 재물을 떨쳐 버리시고, 內需司를 혁파하는데 이르시고, 쓸데없는 관직을 도태시키고, 忠勳府를 혁파하는 데 이르시며, 이들의 토지와 종들은 戶部에 귀속시키고 여러 궁의 免稅田과 軍營의 屯田을 헤아려 戶部에 귀속시키시며, 그 밖의 소모품 이를테면 국내의 인삼과 같이 명분 없이 들어오는 물건과 인습하여 바치는 물건들을 모두 헤아리셔서 줄이고 혁파하시어 담당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지키게 하신다면, 안팎의 재물과 예산이 절로 여유가 있을 것이니, 비록 ‘丁布’의 비용을 대신하더라도 부족하다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sup>22)</sup>

안석경은 예문 ①에서 부유층에게 땅을 바치면 爵祿을 주는 방안을 통해 국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그 토지를 地質의 품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백성에게 배분할 것을 주장한다. 예문 ②에서 안석경은 특권층의 재물을 공공기관에 귀속시키고 국가재정을 절약하여 빈곤층의 납세 부담을 부유층이 분담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1) “今我殿下不行王政則已，欲行王政，則制民之產，而分田授宅。使無不均之歎，以爲制治之基者，果不可後也。東土小平衍，難爲井田，則漢世限田之議，唐時授田之制，講以行之可也。獻田有多寡之等，則爵祿賞慰之典，當有其式矣。給地有礪腴之異，則再易三易之品，當有其制矣。此則任其事者，極擇其人而後可也。”(『擬大庭對策』, 596면)

22) “我殿下誠擺私財，而至於罷內需司，誠汰冗官，而至於罷忠勳府，其田土臧獲，歸之于戶部，諸宮免稅之田，諸營屯田之所，亦皆量取，而歸之于戶部。其餘耗徧之物，如內國人蔘無名之入，如大內仍進排者，皆量宜減罷，而正之以有司之守，則中外財用，自有餘饒，雖以悉代丁布之費，亦無所不給之患矣。”(『擬大庭對策』, 594면)

다음으로 안석경은 국가에서 구휼정책과 의료정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빈민 구제책이 늦게 시행되는 것과 부유한 상인들이 買占賣惜을 통해 곡물의 가격을 올려 백성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안석경은 국가가 풍년에는 곡식의 값을 올려 구입하고 흉년에는 백성에게 싼 값으로 되파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sup>23)</sup> 또한 그는 부귀한 자는 역병에 걸릴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 회복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역병에 걸리면 방치되어 죽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한 뒤,<sup>24)</sup> 구체적인 의료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식에 대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sup>25)</sup> 예컨대, 안석경은 당시 유행하던 疫病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국가에서 소규모의 마을마다 의료시설을 설립하여 가난한 백성들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으로 안석경이 『의대정대책』에서 당대 현실을 비판하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는 『의대정대책』을 통해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안석경이 『漫錄』을 편찬하며 ‘작은 것’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과, 후술하겠거니와 안석경이 산수유람 중 작은 것과 큰 것의 조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점과도 친연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안석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현실주의적 지향은 그의 기질 및 사회적 위치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안석경은 은거의 길을 선택하여 사회의 불의에 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권층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안석경이 處士로서 백성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의 生活苦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잦은 유람을 통해 그는 사회의 물정을 세심히 살필 수 있었다. 요컨대 안석경의 사회적 위치 및 그의 기질은 그가 현실에 밀착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안석경의 ‘관념성’과 이 절에서 조명한 ‘현실성’은 그의 현실인식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안석경의 처사적 상황과 긴밀히 연관된다. 안석경은 反淸感情으로 인해 청을 직시하지 못하고 은거를 선택

23) 『擬大庭對策』, 599면.

24) 『擬大庭對策』, 599면.

25) 『擬大庭對策』, 599~600면.

하였다. 그가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고 처사적 삶을 택한 것은 그의 관념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안석경의 은거는 자신의 주위에 있던 하층민의 생활고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안석경은 처사라는 중간적 지위에서 상층과 하층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들의 조화에 대해 고민하였다. 따라서 그는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개혁을 모색할 수 있었다.

안석경의 현실인식에서 보이는 관념성과 현실성은 그의 춘추의리와 현실 비판 속에서 각기 착종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안석경의 북벌론에는 관념적 성향이 두드러지나, 현실적 성향 역시 포착되고 있다. 그의 현실성은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게 한 동시에 관념적인 북벌론을 현실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의 관념성은 청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한 동시에 조선의 현실에 밀착하여 현실 개혁을 모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안석경의 현실 비판 양상에서는 현실적 성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나, 관념적인 면모 역시 내포되어 있다. 가령 안석경은 지배층의 도덕 수준이 상승되면 자발적으로 부를 재분배하고 권력을 분산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런 관념적 태도를 통해 그는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관념적 성향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하게 한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안석경의 현실인식에서 관념성과 현실성은 서로 길항관계를 맺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의론문을 분석함으로써 안석경이 자신의 이상인 춘추의리를 견지하고, 당대 현실에 대한 개혁안을 모색한 과정을 살폈다. 그런데 안석경은 현실을 개혁하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괴로움을 느꼈다. 이러한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석경은 산수유람에 심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안석경의 산수유람에는 위안 추구 이상의 의미가 존재한다. 다음 장에서는 안석경의 산수에 대한 애호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찰하여 그의 내면의식 및 그 문학적 특징을 해명해 보기로 한다.

## VI. 山水에 대한 愛好

### 1. 山水 愛好의 양상

안석경은 세상의 여러 즐거움 중 산수유람의 즐거움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산수를 애호하고 있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예문을 참고할 수 있다.

① 禮安에서 사십 리 떨어진 곳에 산이 있었는데, 글을 읽느라고 바로 가 보지 못하고 생각만 하였다. 생각이 깊어지면 때때로 산이 책 위에 우뚝 솟아있는 것이 아득히 떠오르고는 하였다. 이때 높은 곳에 올라 휘휘 늘어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면, 푸른 숲이 동쪽 하늘에 솟아있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넘실거리지 않은 적이 없다.<sup>2)</sup>

② 동쪽으로 淸涼山을 바라보니 땅에서 솟은 것이 저절로 기이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신령스러운 기운이 열리게 하여, 표표히 곧장 옷자락을 떨치며 가고 싶었다.<sup>3)</sup>

예문 ①과 예문 ②에서 안석경은 산수유람에 대한 강렬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안석경은 산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진 나머지, 책에서 산이 보이는 환상까지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석경이 산수를 애호했던 원인을 살피기 위해 다음 예문이 주목된다.

이 때 나는 병들고 괴로웠으며, 세상에 뜻이 없었다. 개연히 탄식하며 산과 바다를 떠도는 것만을 원했다. 仙家와 佛家の 말을 좋아하였으며, 그간 많이 종적을 옮겨 이리 저리 멀리 떠나있었다. 부부가 된 7년 동안

- 
- 1) “嗚呼! 世間之樂, 有可以易此者耶!”(『遊雉岳大乘菴記』, 동양문고본 『雪橋集』, 239면); “公獨於山水嗜好深焉. 其入雪橋爲泉石也, 尤喜陟絕巘浮大海, 以開心目. (….)再入楓岳, 陞毘盧峰, 下航東溟, 其浮西海也.”(『行狀』, 28장 뒷면)
  - 2) “禮安去山四十里, 而方讀書, 未能卽往見而思之之甚, 時時慌然或見突宧於竹素之上也. 時升高望見數朶, 蒼翠騰湧東天, 未嘗不洋洋而意往也.”(『遊淸涼山記』, 가장본 『雪橋集』 권2, 105~106면)
  - 3) “東見淸涼山, 拔地自奇, 令人神開氣揚, 飄飄乎直欲振衣而往也.”(『遊龍頭山記』, 가장본 『雪橋集』 권2, 103면)

서로 본 날을 헤아려보면 이십여 일뿐이다.<sup>4)</sup>

위의 예문은 안석경이 30세 때(1747) 쓴 「아내 潘南 朴氏의 묘지명」에 나오는 대목이다. 안석경이 박씨와 함께 산 기간은 그가 19세이던 때부터 25세 때까지이다. 위의 언급으로 보아 안석경이 십대 후반부터 산수를 떠도는 생활을 일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언급 중에서 그가 세상에 뜻이 없었으며 개연히 탄식했다는 말이 특히 주목된다.<sup>5)</sup> 이는 안석경의 산수 애호가 당시 세상에 대한 절망감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안석경이 仙家와 佛家の 말을 좋아했다는 점 역시 그의 세상에 대한 절망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석경은 청년시절부터 爵祿에 뜻을 두지 않고 조선팔도를 유람하는 것을 필생의 소원으로 삼았다. 다음의 시를 보자.

조선은 나라는 작지만 산은 크고, 바다를 낀 채 강이 흘러 우뚝한 바위가 많다네. 재상과 장수에 해당하는 산 많고도 존귀하거늘, 어찌 구구하게 양 눈썹을 찌뿌리리. 위대하구나! 스물 여덟 명산이여. 만사를 잊을 만하고 구름은 발밑에 있네. 세상에 아첨하는 일을 내 어찌 할손가. 사방 팔방의 끝까지 소요함이 나의 소망인데, 누런 고니 하늘을 날아 돌아오지 아니하네. 나의 유람은 청량산에서 시작되네.	朝鮮國小山則大, 據海噴江多磊砢. 相乎將乎亦富貴, 肯爲區區雙眉挫. 偉哉二十八名嶽. 萬事堪輸飛雲履. 嫵媚一世吾豈能. 逍遙八極吾所欲, 黃鵠天翔未可還. 吾遊始於清涼山. <sup>6)</sup>
--	--

위의 시는 안석경이 26세 때 청량산을 유람하고 지은 「清涼山詩」이다. 이 시에서는 안석경의 조선 산수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안석경은 비록 조선이 小國일지라도 산은 비범하며 위대하다고 읊고 있다. 또한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조선 곳곳의 산수를 유람하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하고 있다.

4) “時余亦疾苦，無人世意，慨然欲浮游山海，喜仙釋語，間多移徙，而參差隔遠，爲夫婦七年而相見者，計二十餘日。”(「孺人潘南朴氏墓誌銘」, 가장본 『雪橋集』 권5, 429면)  
5) 안석경이 산수유람 중에 자신의 평소의 뜻을 말하며 개탄하는 면모는 그의 산수유기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余之素志之語，悵然欲涕下.”(「遊清平山記」, 동양문고본 『雪橋集』, 7면)  
6) 「清涼山詩」, 규장각본 『雪橋集』 권1, 429면.

즉 안석경은 청년시절부터 자신의 이상과 괴리된 현실을 보며 자신의 뜻을 당대 현실에서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벼슬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조선의 산수에 심취하며 이를 통해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이 즐거움과 위안이 안석경의 조선 산수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안석경은 산수유람에서 당대 정국과 민생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다.

① 정상에 임하여 부지불식간에 긴 탄식이 일어나네. 登臨不覺興長歎,  
그 누가 큰 재주 지니고서 장대한 마음 품었는지? 誰把多才蘊大心.<sup>7)</sup>

② 진실로 민생을 생각할 만하구나. 民生眞可念,  
작은 보리가 밭에 차 있지 않다. 細麥不盈田.<sup>8)</sup>

위의 시들은 안석경이 사십 대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유람하며 쓴 것이다. ①은 설악산에 올라 쓴 「上雪岳」인데, 이 시에서 안석경은 산의 정상에서 부지불식간에 당대에 인재가 없는 것을 근심하며, 세상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②는 「松巨里」라는 시로 안석경이 유람 중에 밭을 보고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이를 볼 때, 안석경은 산수를 유람하며 조선 산수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정국과 민생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안석경은 산수유람 중 節義를 지킨 인물들의 사적을 주시하며, 이들의 삶을 회상하였다. 안석경은 李資玄이 거쳐하던 곳에 찾아가 그를 추억하기도 하고, 金時習의 유적을 보고 그를 회고하기도 하며, 김창흡이 유람하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두 예문을 보자.

① 후세 사람 중 누가 이곳에서 유람할는지 나는 모르겠소. 옛날부터 세 사람의 군자가 있었는데, 나는 그에 미치지 못하오. 홀로 왔다가 홀로 가고, 홀로 그 자취를 어루만지며 홀로 바람과 소나무와 흐르는 물을 잊지 못해 염려하는구려. 슬프오! 나는 三淵翁(김창흡을 말함-인용자)보다 늦

7) 「上雪岳」, 규장각본 『雪橋集』 권2, 460면.

8) 「松巨里」, 규장각본 『雪橋集』 권2, 461면.

게 태어났고, 삼연은 梅月翁(김시습을 말함-인용자)보다 늦게 태어났으며, 매월옹은 息庵翁(이자현을 말함-인용자)보다 늦게 태어났소. 쓸쓸히도 같은 때에 태어나지 못해 慶雲峰 위에서 맞이해 함께 담소를 즐길 수 없으니 한스럽구려! 후세 사람들 또한 이러한 한탄을 가진 이가 있겠지요.<sup>9)</sup>

② 나는 손을 씻고 道袍를 바르게 하고 선비의 초상에 절하고 장대한 모습을 우리러 보니, 그 기풍이 사람을 움직일 만하였다. 높은 이마, 목, 광대뼈와 강직해 보이는 눈썹과 맑은 눈, 높은 콧마루와 무성한 구레나룻에 바로 영결스러움이 드러난다. 잠긴 생각과 맺힌 한이 근심스레 엉기고 모여서 천고에 흩어질 수 없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바야흐로 우리 端宗께서 임금 자리를 넘겨주자 여섯 신하가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때, (매월당이-인용자 보충) 비록 형색을 훼손하고 세상을 피해 달아나 궁벽한 산에서 늙었으나 오히려 빛나게도 깊이 마음을 쓰고 남의 마음을 헤아렸으니, 伯夷·叔齊처럼 고비를 캐는 한 가지 절의만으로 自足하여 그치기는 원치 않았던 것인가.<sup>10)</sup>

예문 ①은 안석경이 22세 때 청평산 유람을 하던 중 이자현, 김시습, 김창흡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함께 산수유람을 즐길 수 없는 점을 한탄하는 대목이다. 예문 ②는 안석경이 43세에 설악산을 유람하던 중 김시습의 사적을 기념하고 있는 대목이다. 안석경은 김시습이 단종 폐위 이후 은둔하며 남은 세월을 연마하며 보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부조리한 현실을 떠나 은거하며 문제의식을 예각화했던바, 그가 선대의 인물들을 보는 시각의 기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내재해 있다. 이자현, 김창흡 역시 시대와 괴리되어 은거한 인물이다. 다시 말해, 안석경은 산수유람 중에 자신과 유사한 삶의 행적을 지닌 先人들을 기념하며 스스로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안석경은 산수 유람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성찰하며 위안을 얻었고,

9) “遊於此者，在後人當有誰耶？吾不得而知矣。在古有三君子，而吾顧不及矣。獨來而獨去，獨撫其躅，獨得耿耿於風松流水之間，悲夫！余晚於淵翁，淵翁晚於梅月翁，梅月翁晚於息翁，漠然不同時，不得於慶雲峰上逢迎偕言笑可恨，後之人，亦有同此恨者耶。”(『遊清平山記』, 동양문고본 『雪橋集』, 7면)

10) “余盥手整袍展拜於儒像，仰觀魁然，風氣動人，峻額勁觀，剛眉晶目，高準峭髯，真有英傑之表，而沈慮滯恨隱隱凝聚之千古，不可散者，何哉？方我端王之遜位，而六臣之殉君也，雖已毀形逃世遯世，老於窮山，而尙有炯炯深費揣摩，不欲以採薇一節自足而止耶！”(『雪岳記』, 가장본 『雪橋集』 권3, 242~243면)



절의를 지킨 문인들의 행적을 기념하며 세상과 괴리되었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자 하였다.

## 2. 山水遊記의 특징

이 절에서는 앞 절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안석경의 산수유기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안석경의 산수유기에서는 산수에 작가의 생각이 투사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세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오른 쪽은 內山인데 봉황이 날고 용이 머리를 쳐들며 날아오르고 꿈틀거리 기이한 변모가 만 가지 형상이어서 측량할 수 없다. 다만 머리가 출몰하고 날개와 갈기가 날아오르고 펼쳐져 문채가 숨었다 드러났다 하였다. 왼쪽은 外山인데, 사자가 회룡하고 범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 기복이 일정하지 않고 앞으로 갔다 물러갔다 정해진 방향이 없다. 그 웅장하고 사나운 기세가 將盛하고 태만하지 않다. 그 앞을 보니, 모두 이빨을 드러내고 있어 겁쟁이로 하여금 눈을 휘둥그레 뜨게 하기에 족했다.

이 날 정오가 되자, 하늘이 맑게 개었는데 사방을 둘러보니 동해에 하늘이 떠 있었다. 광대하도다! 크도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관북에서부터 영남에 이르러 끝이 수천리가 되는데 長風이 파도를 일으켜 크고 작은 섬들이 보일 듯 말 듯 흔들리고, 자라는 가라앉고 오리는 떠오른다. 그 밖은 아득히 넓은 바다로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해와 달을 씻기고 대지를 싸고 있으니, 만 가지 功用的 성대한 근본이다.<sup>11)</sup>

② 북쪽으로는 백두산이 있는데 곤륜산으로부터 나왔다. 그 기세가 웅장하고 두터우며 精美하여, 빼어남이 靑丘(조선을 말함-인용자)에 모여져 천개의 가지와 만개의 잎이 줄기를 따라 멀리 퍼지니, 아, 장대하도다! 홀

11) “右則內山，鳳翥龍驤，翩翻蜿蜒，奇變萬狀，有不可測。而但見頭角出沒，翹鬣翁張，文采隱顯而已。左則外山，獅戲虎攫，起伏無恒，前却無方。而雄悍之勢，拂鬱未怠。見其面，舉而齒開，足使儒者懼然。是日日方午矣，天宇澄霽，環顧四遠，東海浮天，恢恢蕩蕩乎！大哉！目力所及，自關北至嶺南，涯岸數千里，長風起浪，島嶼搖搖，鱉沈鳧涌，其外汎洋，無得以窮之矣。此其浴日月涵大地，而滋繁萬類功用之盛本乎！”(규장각본 『東行記』, 16장 앞면~뒷면) 이하 『東行記』의 원문 인용은 모두 이 자료에 의거한다.

로 괴이하게도 그 거친 싹과 짧은 움이 동북쪽 바다에 서리고 굽혀, 이에 백 년 동안 오랑캐 임금인 우리 大明 천하를 점거하였다. 그런데 정수가 모인 이 곳에서 한번 오랑캐를 쫓아내고 명나라를 회복하는 의리를 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12)

③ 명나라 장군이 永郎湖에 3일 동안 병사를 주둔하였는데, 달이 밝은 때에 차마 이곳을 떠날 수 없어 호숫가에서 통곡을 했다고 하니, 아마도 천하에 없는 아름다움이라 여긴 것이리라. 천하의 이름난 산 아래에 이름난 호수로 廬山의 落星湖, 會稽山의 鏡湖, 天目山의 西湖를 들 수 있는데, 모두 (호수 위로-인용자 보충) 안개가 서려 떠도는 중에 바위 암석과 구름 낀 나무를 겹하여 완상할 수 있다. 그러나 맑고 넓은 동해물은 조수 때 진흙이 밀려오지 않고, 빛나는 해와 달을 토해내며, 한쪽이 막혀 얇은 모래사장을 끼고 있어서, 기이한 변모가 서로 감발하니, (이에 비교한다면 위의 호수들은-인용자 보충) 모두 다 부족하다. 서호는 이어진 錢塘江이 바다로 통해 있으나 조수 때 밀려오는 진흙으로 혼탁하여, 이 영랑호가 바다에 가까운 것만 못하다. 명나라 장군이 취한 것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개 조선의 동해 수천 리는 절경이 아닌 곳이 없는데, 산맥 동쪽의 아홉 고을은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 총석정·삼일호·장전포·해금강과 이 곳 영랑호는 금강산과 설악산의 승경을 끼고 있어 더욱 추앙받을 만하다. 아, 성대하도다! 내가 일찍이 금강산 그림에 시를 쓰기를,

내가 조선에 태어나 한스럽지 않고                               使我不恨生朝鮮,  
朝夕으로 가죽신 신는 것은 금강산이 있어서네.       早晚靑鞋賴有是.  
라고 하였다. 지금 총석정과 장전포·삼일호·칠성호·영랑호·청초호에 대해서도 또한 그렇게 이르노라.13)

12) “北有白頭之山，自崑崙而來。氣雄勢厚，張大專精。鍾秀全入靑丘者，千枝萬葉，隨幹而遠布。吁！其壯矣！獨怪其麤芽短蘖，屈蟠於東北海區者，乃出百年，胡帝據我大明之天下。其精秀之所注，顧無一伸攘除匡復之義者，何哉？”（『東行記』，16장 뒷면~17장 앞면）

13) “天將屯兵於永郎湖三日，乃皎皎時，不忍別，哭於湖邊。蓋以爲天下之所無也。天下名山之下名湖，廬山之落星也，會稽之鏡湖也，天目之西湖也，皆於烟波浮遊之中，兼有巖壑雲木之賞，而清曠東海水，無潮汐之淤，而吐日月之光英者，只隔一帶淺沙，而奇變相感發，則皆所少也。西湖可錢塘之海，而帶潮濁，且不如此湖之近海。天將之所取者，其在斯乎。大抵朝鮮之東海上數千里，無非絕境，而嶺東九郡，其最也。而叢石亭、三日湖、長箭浦、海金剛及此兩湖以挾金剛、雪岳之勝，而尤見推，噫其盛矣！余嘗題『金剛山圖』曰，‘使我不恨生朝鮮，早晚靑鞋賴有是。’今於叢石、長箭、三日、七

예문 ①에서 안석경은 금강산의 내산과 외산의 기이한 면모와 장대한 기상을 표현하고 금강산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금강산의 승경과 기상을 묘사하여 독자의 감흥을 한껏 고조시킨다. 예문 ②에서 안석경은 조선의 백두산이 聖山인 곤륜산에서 연원하여 그 빼어난 기상이 조선 산수에 퍼져 있다고 서술하고, 이러한 조선이 기상을 펼쳐 북벌을 행하지 않고 청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분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예문 ③에서 명의 장군 또한 영랑호의 아름다움을 극찬했다고 하면서 중국의 여러 이름난 호수보다 영랑호가 빼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어 그는 영랑호에 비하면 중국의 名湖들도 작다고 하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또한 안석경은 동해의 절경을 찬탄하며 그 중에서도 설악산과 금강산의 승경을 끼고 있는 해금강과 영랑호를 기리고 있다. 요컨대, 안석경은 조선 산수의 빼어난 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이를 통해 조선에 대한 자부심을 고양시킨다.

안석경의 금강산에 대한 자부심은 그가 금강산의 아름다움과 지리적 中華思想을 연결시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① 나 또한 스스로 생각하건대 모든 물건 중에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中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천지의 중간에 있고, 崑崙은 땅의 중간에 있고, 五嶽은 중국의 중간에 있고, 밝은 덕(인륜을 말함-인용자)은 사람 가운데 있고 옥은 돌 속에 있다. 이 산이 東國의 중간에 있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이 산을 들어 말하면, 중향성과 만폭동은 內山의 중간에 있고, 구룡폭포와 십이 폭포는 外山의 중간에 있다. 그러므로 그 장대하고 비교할 것이 드물어 이 산의 아름다움이 오로지 이곳에 있다.<sup>14)</sup>

② 금강산은 그 동쪽 기슭이 바다에 들어간 것이 모두 기괴하며 웅대해 그 차지한 경계를 알 수 없다. 땅을 차지한 근원을 헤아려 보면 또한 모

星、永郎、靑草而亦云.”(『東遊記』, 36면) 이 예문에 나오는 시는 안석경이 28세 무렵(1745)에 지은 「義原看終南山人畫金剛山」이다. 그는 이 시에서 “寫出楓嶽天下雄, 萬峰玉立如可語. (….) 使我不恨生朝鮮, 早晚靑鞋賴有是”라고 하였다.

14) “且余亦自念 凡物之美者每在於中. 故人在天地之中, 崑崙在地之中, 五岳在中國之中, 明德在人之中, 玉在石之中. 此岳之在東國之中者, 亦以是也. 就此岳而言之, 衆香城、萬瀑洞, 內山之中也, 九龍瀑、十二瀑, 外山之中也, 故其奇壯罕比, 此岳之美, 殆專于此矣.”(『東行記』, 36장 앞면)

두 빼어나고 진기하여 견줄 만한 것이 없고, 깊고 깊어 끝이 없으니, 눈에 띄는 것이 보기에 족하고, 천하를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는 것은 아마도 주머니에서 빠져나온 송곳 끝에 불과할 따름이다.<sup>15)</sup>

③ 아마도 금강산은 이미 천하에 으뜸을 차지했을 것이다. 돌로 말하자면, 萬物初가 더욱 기이하고, 물로 말하자면 구룡폭포가 가장 웅대하고,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기에는 비로봉이 매우 장대하고 숭상할 만하니, 그래서 또한 ‘세 가지 뛰어난’이라 칭하는 것인가?<sup>16)</sup>

예문 ①에서 안석경은 금강산이 조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아름답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안석경은 금강산 산수미의 근거를 ‘中’에 두고 있다. 안석경은 사람이 천지의 중앙에 있어 천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같이 금강산 또한 조선의 중앙에 있어 조선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천하의 중앙에 있다는 중화사상과도 통한다. 안석경은 명·청 교체 이후 중화의 기준을 禮義의 유무에 두었으나, 지리적 위치가 중화와 결부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금강산의 산수미와 ‘中’을 결합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안석경은 예문 ②과 예문 ③에서 금강산이 천하를 놀라게 하며 천하의 으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은 금강산이 있는 조선에 대한 긍지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에 대한 긍지의 고양은 안석경이 조선이 中華라고 주장한 것과 긴밀히 조응된다. 안석경은 조선이 중국의 문명과 예의를 지닌 中華라는 것을 주장하며, 淸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17)</sup> 그는 조선이 중국의 문명과 예의를 가진 중화라는 인식을 토대로, 지리적인 면에서도 조선=중화로서의 정당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안석경은 조선이 천하의 으뜸인 금강산을 소유하였고, 이 금강산은 천하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자랑스레 말하고 있다.

또한 전술한바 안석경의 조선에 대한 긍지가 춘추의리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산수 애호와 춘추의리의 관련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

15) “金剛之山，其東麓入海者，皆奇怪而磅礴，不知其蟠據之所竟。料其根柢之入地者，亦皆瑰瑋無比，深厚無窮，則其標之可見。而驚動於天下者，恐不過囊錐之末耳。”(『東行記』, 55장 앞면)

16) “蓋金剛既甲於天下，而以石則萬物初爲尤奇，以水則九龍瀑爲最雄，以高登遠望則，毘盧峰爲甚壯偉，亦所稱三傑者耶。”(『東行記』, 37장 뒷면)

17) 본고 제II장 주39 참조.

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자.

비로봉을 처음 보고 쓴 시가 있다.

안무재에서 바라보니,	內水站上望,
비로봉이 거인과 같구나.	毘盧如巨人.
모난 갯이 어찌 그리 높은가,	方冠何岌嶮,
깨끗한 모습 삐죽삐죽 솟았네.	粹面自嶙峋.
어느 하늘로 향해 갈까,	欲向何天去,
동해의 바닷가에서 늙고자 하네.	老於東海濱.
구름을 부니 겨우 실 한 가닥,	噓雲纔一縷,
능히 九州의 먼지를 씻겠구나.	能滌九州塵.

대개 이 봉우리에 뜻을 가탁한 것이다.

(…) 공의 이 시는 中華가 淸明해지는 것을 기약할 수 없는데 자신은 늙어감을 슬퍼한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북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서쪽으로 유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sup>18)</sup>

위의 예문은 안석임이 안석경의 산수 유람에 대해 쓴 글이다. 밑줄 친 부분에서 안석임은 안석경이 북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서쪽으로 유람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안석경의 산수유람이 그의 춘추의리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석경은 크고 작은 산봉우리의 조화로운 광경에 주목한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의 두 예문을 보자.

① 가장 큰 네 봉우리가 위치와 형태가 치우치고 기울지 않아 공경스럽게 서로 높이고 의젓하게 서로 향하고 있다. 햇빛을 받는 데 어그리짐이 없고, 모두 낮은 곳을 향해 있는데 기울거나 삐걱거리지 않아서, 나머지 작은 봉우리들을 함께 보호하며 혹 버리거나 빠뜨리는 것이 없다. 나머지 작은 봉우리들 또한 우뚝하여 스스로 바르게 서 있으니, 비록 큰 봉우리에게 조금 양보할지라도 일찍이 큰 봉우리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아, 그 모두 공경할 만할 따름이다.<sup>19)</sup>

18) “其始見毘盧也，有詩曰，‘內水站上望，毘盧如巨人。方冠何岌嶮，粹面自嶙峋。欲向何天去，老於東海濱。噓雲纔一縷，能滌九州塵。’盖托意於是峰也。(…)公之此詩，中華不可期其淸明，而悼吾之老將至也。然尚有望於北伐，而不止西遊而已。”(『行狀』, 28장 뒷면~29장 앞면)

② 산을 유람하는 일은 낮고 높고 작고 큰 것이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모두 세심히 살펴볼 만하고 대략 둘러보아서는 안된다. 아! 물건의 좋아할 만한 것이 실로 큰 것과 높은 것에 있으니, 낮으면서 높은 것을 흠모하고 작으면서 큰 것을 흠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물건의 좋아할 만한 점은 또한 낮고 작은 것에도 있으니, 높은 것을 흠모한다고 하필 낮은 것을 대충 둘러볼 것이 있겠는가! 큰 것을 흠모한다고 하필 작은 것을 대충 둘러볼 필요가 있겠는가!

아! 낮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서 높고 큰 것을 흠모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그른 일이로되, 높고 큰 것에만 힘쓰고서 작고 낮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그릇된 점이 없겠는가! 아! 이것은 또한 도를 배우는 자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점이니, 다만 산을 유람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sup>20)</sup>

안석경은 예문 ①에서 큰 봉우리는 작은 봉우리를 보호하며 작은 봉우리는 큰 봉우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다고 하며 이를 공경할 만하다고 하였다. 예문 ②에서 안석경은 산을 유람하는 데 작고 낮은 곳 역시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안석경은 작은 것과 큰 것에는 각각의 가치가 존재하며, 작은 것과 큰 것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산수에 투사하고 있다.

이처럼 안석경이 유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투사한 점은 당시 김창협과 김창흠 및 그 문인들이 쓴 산수유기에서 의론이 축소되고 묘사가 강화된 것과는 구별되는 면모이다.<sup>21)</sup> 안석경은 산수 유람을 통해 문제의식을 선명히 하여, 산수를 인간사에 긴밀히 결합시키고, 산수에 자신의 사상을 투영

19) “最斯四者，位不偏形不倚，欽相尊也，儼相向也，分照無乖戾，咸臨無傾軋，共護餘小峰，而無或遺脫。餘小峰亦森然自樹，确然自定，雖稍儻讓於大者，未嘗欲附於大者。嗚呼！其皆可敬也已。”(『遊清涼山記』, 앞의 책, 110면)

20) “山遊之事，卑高小大所當者，皆可審而不可略也。嗚呼！物之可好者，實在於高者大者，卑焉而宜乎慕高矣，小焉而宜乎慕大矣。然物之可好者，亦在於卑者小者，慕高也，何必略於卑哉；慕大也，何必略於小哉？嗚呼！足於卑小，而不慕於高大者，固非也；務高大，而忽於卑小者，無亦非也乎？嗚呼！此又學道者，所當知也，不特山遊之事然也。”(『遊龍頭山記』, 앞의 책, 104~105면)

21) 강혜선 교수는 김창협의 금강산 유기의 특징을 개인적인 의론이나 감상이 배제된 지극한 실경묘사에 주력한 점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이전 시기의 금강산 기행문이 실경의 묘사보다 의론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면모라고 하였다.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冠嶽語文研究』 제17집(서울대학교 國語國文學科, 1992), 96면~101면 참조.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석경과 비슷한 시기의 노론계 문인인 이윤영<sup>22)</sup>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윤영은 자신이 쓴 산수유기 『山史』에서 경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문명적 중화질서의 구현’이라는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윤영은 경물 묘사를 통해 은밀히 자신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sup>23)</sup> 이에 비해 안석경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안석경이 산수유기에서 생각을 개진하는 데 힘을 쏟은 점과 관련해서, 그가 자신의 현실인식과 접맥되는 見聞과 故事에 의미를 부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① 岐城 고개를 넘다가 열녀 張氏의 旌閭門을 보았다. 장씨는 학생 應斗의 딸이다. 처녀의 몸으로 모친을 따라 丁丑年 오랑캐를 피했는데, 岐城에 이르러 오랑캐가 노략질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누린내 나는 더러운 개들’이라고 꾸짖었다. 끝내 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난도질당해 죽었다. 그 후에 道の 수령이 듣고 그 땅에 나아가 旌門을 세웠다. 묘지는 정려문 옆 몇 리 되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한다.<sup>24)</sup>

② 신라왕자의 옛 터를 보았다. 바야흐로 신라가 고려에게 항복하려 할 때에 왕자는 그 不可함을 諫했다. 왕자는 홀로 이 계곡에 들어와 음식과 의복을 모두 풀과 나무로 하고, 성을 쌓고 험한 곳을 보수하여 거처했다고 한다.<sup>25)</sup>

예문 ①은 胡亂 때 오랑캐를 꾸짖다가 죽임을 당한 장씨의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는 안석경 특유의 시선이 드러나고 있다. 안석경은 장씨가 노략질을 하는 오랑캐의 행동을 꾸짖으면서 적극적으로 불의에 맞선 데에

22) 이윤영과 안석경은 직접적 교류관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간접적인 교류관계가 확인된다. 이윤영이 교류한 이병연, 민우수, 남한기, 민백겸 중 이병연, 민우수, 남한기는 안석경의 부친 안중관과 교류하였으며, 민백겸은 안석경의 벗인 민백순의 再從兄弟이다. 또한 이윤영의 숙부인 이태중은 안석경의 조부 안후의 輓辭를 짓고 있어 안석경 집안과 교류양상이 확인된다.

23)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55면 참조.

24) “踰岐城時, 見烈女張氏旌門, 張氏學生應斗之女也. 以處子從母避丁丑虜寇, 路岐城, 見虜掠怒罵羯狗, 終不見汚辱, 而受亂刃以死. 其後道伯聞, 卽其地旌門, 其墓在其傍數里之近云.”(『東遊記』, 5면)

25) “見新羅王子故墟, 方新羅王之降高麗也, 王子諫不可, 王子獨入此谷, 衣食草木, 築城補險而居之云.”(『東遊記』, 7면)

주목했다. 이는 그가 박효랑의 행동을 ‘烈’로 평가한 점과 동일한 맥락이다. 예문 ②에서 안석경은 신라 麻衣太子의 유적을 보고 그 고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의태자에 대한 그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의 시를 보도록 하자.

매섭도다. 신라의 왕자여,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서 배회하였구나. 나라는 망했어도 굳은 절개를 온전히 하였고, 천운이 떠나니 높은 재주를 굽혔도다. (…)	烈哉羅之子, 捐世此徘徊. 國移完苦節, 運去屈高才. (…)
비분을 머금고 저승에 이르렀구나, 그 자취 어루만지며 높고 높은 산언덕을 우러르네. 고개를 돌려 소나무 언덕 아래를 바라보니, 조문하는 사람 없이 차가운 재만 날리는구나.	含悲到冥寂, 撫跡仰崔嵬. 回首松岳下, 無人弔寒灰. <sup>26)</sup>

위의 시는 『東行記』의 庚辰日에 수록된 시 『百川洞』의 일부이다. 위의 시에서 안석경은 마의태자의 행동을 ‘烈’로 평가하고 있다. 안석경은 마의태자가 그의 이상과 괴리된 세상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점을 높이 사고 있다. 이러한 마의태자의 삶의 행적은 안석경이 은거한 행적과 유사하다. 안석경은 마의태자의 사적을 어루만지며 현실을 떠나 은거한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석경이 절의를 지킨 인물에 관심을 보인 것과 상통하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안석경이 자신의 현실인식 및 삶의 행적과 연관하여 견문과 고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석경의 산수유기에서 산수가 형상화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김창협과 김창흡 및 그의 문인의 산수유기에서는 景物을 생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런데 안석경의 산수유기에는 의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산수가 생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그의 산수유기가 당시 성행한 산수기와 어떤 점에서 구별되며, 또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를 보여준다. 다음의 두 인용문을 살펴보자.

① 굴 위에는 십여 봉우리가 마치 날개를 편 듯 서 있고, 구부리고 가는 듯하고, 번쩍번쩍 햇빛을 반사하며 날아올라 사람을 뒤쫓아 오는 듯했다.

26) 『百川洞』, 『東行記』, 10장 뒷면.



(…) 멀리 검푸른 나무들이 모여 있어 구슬이 부서져 뿌러지고 옥이 솟아 나온 듯하고, 무지개가 날고 눈이 춤추며, 햇빛은 빛나 청색과 홍색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휘어 회오리바람이 된다. 이와 같이 이십 리가 펼쳐져 있다. 물결이 흘러 부딪혀 나는 소리가 벼락처럼 온 산을 요동시킨다. 걸음걸음 걸는길해 내려다보면, 노을이 아득히 돌에 비쳐 쓸쓸하고 괴괴하다.<sup>27)</sup>

窟上，十餘峰如趨立，如僂行，閃閃返照，而翱翔如趨人。(…)而蓄黛披碧，撒珠湧璣，飛虹舞雪，日耀而動青紅，風撥而飄的爍。如是者，將二十里。觸激之聲，震撼全山。步步顧眄，霞石宵冥。

② 많은 나무가 시냇가 골짜기에 무성하게 자라 푸르렀다. 절과 禪堂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구름이 피어올랐다. 진달래가 드문드문 피어 있고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저물어 가는 저녁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났다.<sup>28)</sup>

百木暢發澗壑蔓碧，佛宇禪屋竦臨杏靄。杜花稀而杏花甚多，受斜日皎然。

예문 ①은 계곡의 물결이 흐르는 가운데 무지개가 일어나고 햇빛이 반사되어 청색과 홍색으로 반짝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의 “구슬이 부서져 뿌러지고 옥이 솟아나온 듯하고, 무지개가 날고 눈이 춤추며”(撒珠湧璣，飛虹舞雪)라는 표현은 색채감이 두드러지는 동적인 표현이다. “햇빛은 빛나 청색과 홍색으로 움직이고”(日耀而動青紅)라는 표현 또한 청색과 홍색의 색채 대비와 역동적 이미지가 결합된 것으로써,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예문 ②는 푸른 나무와 흰 구름을 대비하고 진달래와 살구꽃이 저녁 햇빛을 받아 빛나는 장면을 묘사했다. 밑줄 친 부분의 “진달래가 드문드문 피어 있고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저물어가는 저녁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난다”(杜花稀而杏花甚多，受斜日皎然)는 표현은 뚜렷한 색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묘사에서 안석경이 색의 대비를 고려하며, 자연이 빛을 반사하여 만드는 색채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과 禪堂이 자리 잡은 곳에서 구름이 피어올랐다는 묘사는 정적인 배경 가운데 動勢를 느끼게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동적 묘사는 산수를 역동적인 동물이나 神仙, 물체에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7) 『雪岳記』, 앞의 책, 243~244면.

28) 『遊清涼山記』, 앞의 책, 107면.

바로 정면에는 표면이 깔끄러운 돌이 모여 있고 뺨뺨한 나무는 城과 성가퀴가 연이어 있는 듯, 아로새긴 악기틀인 듯, 여러 신선이 백학을 타고 춤추고 나는 듯, 여러 부처가 흰 연꽃에 앉아 湧出하는 듯, 비녀 꽃은 여성이 꽃을 두르고 궁궐에서 모시는 듯, 갑옷 입은 군사가 늘어서서 벼랑을 오르는 듯 하다. 괴이한 형태와 색다른 모양새로 너무나 생동감 있게 사람을 현혹시킨다.<sup>29)</sup>

眞面石芒叢發，而林列如雉堞之連延，如龍簾之雕鏤，如羣仙騎皓鶴而翔舞，如諸佛坐白蓮而湧出，如釵鈿之女花繞而侍殿，如介冑之士魚貫而攀崖，怪形殊態，勃勃生動使人眩。

위의 예문에서는 ‘~인 듯’(如)이라는 직유법 구문이 거듭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생동적이고 역동적인 보조관념을 사용하여 반복에서 오는 지루한 느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예문에서는 “날아오르고 춤춘다”(翔舞)와 “용출한다”(湧出)라는 動勢가 강한 동사를 사용하여 풍경을 동태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 밑줄 친 “너무나 생동감 있게 사람을 현혹시킨다”(勃勃生動使人眩)는 어구에서 산수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생동적인 묘사는 당시 김창협과 김창흡 및 그 문하의 산수유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과 형상성을 계승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요컨대 안석경은 당대 유행하던 산수기의 형식을 택하는 과정에서 유람 중의 見聞, 故事 등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산수경물의 생동감 있는 묘사에 힘을 쏟았다. 안석경은 산수유기를 통해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한편, 생생한 산수경물의 형상화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전자는 안석경의 산수유기의 개성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전시대 및 당대 산수기의 장점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9) 『東行記』, 14장 뒷면.

## VII. 안석경 散文의 문학사적 위상

이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안석경 산문의 문예적 면모와 창작의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산문의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안석경은 ‘여협서사’에서 협녀를 형상화하여 자신의 시대인식과 현실 비판의식을 은연중에 표출하였다. 또한 그는 ‘의론문’에서 문제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는 문제의 기복과 파란을 통해 독자를 긴장시키고, 비분의 감정을 흥기시켜 의론의 설득력을 배가시켰다. 그리고 그는 ‘산수유기’에서 대상의 형상화를 통해 독자의 감흥을 고양시키며 자신의 생각을 투사하였다. 요컨대 안석경은 여러 문체의 글에서 자신의 주장 및 주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문예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석경의 산문은 실용성의 측면과 문예적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안석경이 그토록 盡力했던 의론의 실체는 무엇이고, 당대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을까? 안석경은 대명의리론과 북별론을 견지하며 개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조선의 나아갈 방향을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에 두었다. 이 점은 18세기 조선이 ‘주체’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모색하고 他者와의 관계에 대처해가는 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 사상사에는 이상주의적 지향이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至治(=이상적인 정치)와 聖人을 목표로 삼는 宋學이 조선에 강고하게 뿌리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 사상사가 보여주는 이같은 이상주의적 지향은 조선이 중화적 질서 속에 안주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었던 안정과 필적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조선 사상의 이상주의적 지향은 주체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 자주성의 빈곤이라는 약점을 지닌다.<sup>1)</sup>

그런데 明·淸 교체 이후, 조선이 중화적 질서 속에서 누렸던 안정은 급격한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대명의리론, 북별론, 조선중화의식을 견지하며, 청에 대한 사대적 외교에 강한 반감을 표한다. 그러나 점차 대명의리론과 북별론은 지배층의 정권 유지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대다수 조선 사대부들에게는 청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조선중화의식 역시 실제 없는 明에 기대었다

1) 박희병, 『문화와 근대』(돌베개, 2003), 53면 참조.

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주체성과 자주성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선의 안정을 보장해주었던 명이 사라진 시점에서 조선은 나아갈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주의에 경도되었던 조선 사상사는 점차적으로 현실주의를 주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현실적으로 청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통해, 조선 사대부들은 조선의 안이했던 국방과 피폐해진 민생을 직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조선시대 특유의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와 상호 긴장관계를 가지며 서로에게 활발히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안석경의 다면적 현실인식과 작품세계는 조선 사대부들의 이러한 사유과정을 살피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안석경은 춘추의리를 견지하면서도 당대 현실에 밀착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념성과 현실성이 상호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이상주의는 사실과의 긴장관계를 잃지 않았다. 안석경은 여협서사에서 북벌과 대명의리에 대한 고민을 은연중에 표출하며 당대의 오활한 사대부들을 비판하였고, 의론문에서 북벌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모색을 치열하게 고민하였다.

다음으로 안석경은 조선인의 信義와 조선의 山水美를 주목하였다. 그는 신의를 지키는 인간형을 부각시켜 높이 평가하였고 금강산을 천하제일의 경관으로 형상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안석경은 조선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자각하고, 조선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진보적 의식을 보이고 있다. 안석경이 俠女에 주목한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북벌론과 대명의리론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천민과 여성의 권리와 능력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체적인 여성을 烈女로 형상화하게 되었다.

나아가 안석경은 조선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세력이 강한 淸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북벌을 주장하였다. 당시 북벌의 현실적 가능성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현실과 타협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내부의 능력에 주목하고 이를 확대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주체'에 대한 긍지가 고양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안석경은 淸의 세력과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燕行의 체험을 갖지 못했으며 反淸感情으로 인해 청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석경의 꿈속에서 나타난 북경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崇禎 紀元 후 두 번째 丙寅年(1746) 가을에 나는 북경에 도착하는 꿈을 꾸었다. 북경은 텅하니 텅 비어 터만 남아 있었다. 성곽도 마을의 연기도 없었다. 가까이 가서 바라보니, 황량한 사막에 자잘한 풀들이 조금 남아 있고, 오직 몇 줄기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길 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易水이고, 이것이 桑乾河요”라 했다. 나는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鐵騎 3만 명을 데리고 흉노족을 밟아 버려 單于(흉노의 왕을 말함-인용자)를 토벌하기도 전에, 이 성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게 되니 내 마음이 상쾌하지 않구나.” 이어 놀라 깨고 오랫동안 크게 탄식했다. 4년이 지난 庚午年(1750)에 또다시 북경에 간 꿈을 꾸었다. 모래바람이 아득하게 휘몰아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었다. 또 탄식하며 깨어나다.<sup>2)</sup>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안석경은 29세와 33세에 북경에 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나오는 북경은 폐허가 된 모습을 하고 있다. 예문에 묘사된 북경의 모습은 안석경의 절망감을 암시한다. 안석경은 황폐한 북경을 보고 탄식한다. 안석경에게 당시 청의 수도인 북경은 문명의 중심지가 아닌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으로 조선 문명의 방향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이었다. 안석경이 조선 내부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에 대한 안석경의 인식은 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로 인해 그의 조선과 청에 대한 인식에는 과도하고 감정적인 면모가 내포되어 있었다. 안석경은 조선의 금강산을 천하의 제일 경관이라 찬탄했고, 청을 문명이 사라진 곳으로 인식했다. 물론 이 점은 당시 청의 무력에 굴복하여 주체적 면모를 상실했던 조선의 긍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안석경의 인식이 주체와 他者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주

---

2) “崇禎紀元後再丙寅秋，余夢到燕。燕中廓然已墟矣，無城郭人烟，而彌望荒沙短草，惟鳴數條流水而已。行人曰：‘此易水也，此桑乾河也。’余頓足歎曰：‘將用鐵騎三萬，而未及蹴踏匈奴，血戮單于，奈何遽見此城空虛，無所快吾之心也。’因驚悟而太息者良久。越四年庚午，夢又到燕、薊，風沙茫然，四顧無人，又喟然而覺。”(『夢中到燕記』, 규장각본 『雪橋集』 권4, 498면)

체에 대한 긍지가 과도하게 고양될 경우, 이는 주체와 타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안석경은 조선을 ‘중화’로 인식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한편으로 그는 조선이 명의 한 郡에 불과하다는 인식 또한 지니고 있었다.<sup>3)</sup> 이러한 모순은 안석경의 조선중화의식이 조선인의 信義와 조선 산수의 아름다움 이전에 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석경은 대명의리론과 북벌론을 평생 견지하는 가운데 실체가 있는 조선보다 실체 없는 명을 흠모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석경이 조선을 주체로서 인식해간 과정은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견지하는 것은 주체가 타자와 동등하게 관계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주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통해서만 주체와 타자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 당대 주체와 타자를 대등하게 인식한 문인으로 홍대용을 들 수 있다. 그는 조선과 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華와 夷의 구분을 타과하였으며 북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학파의 후예들은 타자인 청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조선의 주체성을 상실해간 측면이 없지 않다.<sup>4)</sup> 그 원인으로는 이들이 현실주의로 경도되는 과정에서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실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朴齊家是 “온 나라 사람이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 다음에야 東夷라는 모욕적인 글자로 불리는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하여 중국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청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sup>5)</sup> 홍대용이 북학을 주장하면서도 청

3) “公嘗與錫任從容語，喟然而嘆曰：“吾東小國於中國，直一郡耳。爲相爲將，以自大於其中，寧不可哀可笑？使我欲富貴，亦不可足也。若可以藉此而諧北伐，則固吾願也。苟吾未能，而人有能之於中土，天下旣廓清矣，亦當附朝夏之舶，絕大海泝長江，歷觀乎都國山河之壯，帝王文物之盛，仍與夫魁奇材德之士，周旋暮年，以終于崑、滄、襄、漢之間。”(『行狀』, 28장 뒷면~29장 앞면)

4) 18세기 후반 북학론은 주도적인 국제 인식으로 자리 잡았고, 19세기 세도정권은 북학에 열중하게 되었다. 당시 세력을 잡은 京華巨族은 청 學人들과의 교류, 청 문물 수용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내세워 잦은 使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북학파의 통상진흥론, 국제교역론은 집권 관료들의 致富의 논리로 변용·왜곡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당시 집권 관료들은 청 유력자와의 교류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조선의 대외안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이 조선의 주체성을 내면적으로 약화시켜간 과정과 긴밀히 연관된다. 이태진, 「조선후기 대명의리론의 변천」, 『아시아문화』 10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8면 참조.

5) “舉國人而盡棄本話，無不可之理，夫然後，夷之一字可免”(朴齊家, 『漢語』, 『北學議』 內篇, 『貞蕤集 附 北學議』, 國史編纂委員會, 1971, 412면); “或以我紙，甲於天下者，

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들의 후예는 점점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긴장감을 잃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은 조선 사대부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으며,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에 대한 對他意識의 부재는 주체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진다. 주체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타자에 대한 무비판적·맹목적 답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안석경이 보여주는 주체에 대한 자신감의 과도한 고양은 그 부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 역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체와 타자를 대등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에 기반을 둔 주체의 확립과 타자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안석경이 이루어낸 자신감의 고양은 그 속에 내포된 배타성을 극복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안석경이 조선이 나아갈 방향을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에 둔 점을 음미해 보자. 그는 당시 富가 소수의 특권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비판하고, 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권층의 정당하지 못한 재물을 공적 소유로 돌리고 국가가 백성에게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이에 덧붙여 특권층의 근검절약을 요구하고, 物의 사용에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박제가가 조선이 빈곤한 원인으로 근검절약과 상업의 후진성을 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淸과 교통할 것과 상업을 진흥시킬 것을 주장한 것, 그리고 나아가 당시의 사치품인 古董書畫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sup>6)</sup>과 사뭇 대비된다. 여기서 박제가가 조선의 빈곤을 淸과의 商品 交通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상품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상품을 둘러싼 정치학적 함의를 깨닫지 못한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박제가는 상품에 내재된 침략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sup>7)</sup> 이는 그가 조선의 빈곤을 해결하는 데 몰두하여 국제정치의 이면에 내재한 폭력성과 조선의 주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로 볼 때 안석경이 조

---

恐非知書者.”(『紙』, 같은 책, 416면); “我人, 輒以飲食相誇, 謂勝於中國, 殊不知究其原, 醜無可口者以醬也.”(『醬』, 같은 책, 414면); “我國醫術, 最不可信.”(『藥』, 같은 책, 414면)

6) “吾邦必以儉而衰.”(朴齊家, 『市井』, 앞의 책, 408면); “或云, ‘富則富矣, 而無益於生民, 盡焚之, 有何虧闕?’ 其言似確而實未然.”(『古董書畫』, 같은 책, 418면); “又必通遠方之物而後, 貨財殖焉, 百用生焉.”(『通江南浙江商舶議』, 같은 책, 432면)

7) 박희병, 앞의 책, 45~48면 참조.

선의 나아갈 방향을 공존과 조화에 둔 것은 당시 조선의 방향성을 고민한 모색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안석경의 문예경향과 사상적 지향은 18세기 조선의 가능성을 모색했던 老論系 處士群의 문예경향 및 사상적 지향과 연관을 맺고 있다. 일례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저명한 노론계 처사 이운영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운영은 대명의리론 및 북벌론을 견지하였으며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했다. 그의 시에는 협객인 荊軻와 高漸離가 자주 등장한다. 또한 그는 당시 연행무역을 통해 富를 추구한 일군의 사대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산수유기를 통해 ‘문명적 중화질서 구현’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운영의 문예적 성향과 사상적 지향은 안석경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안석경과 이운영은 간접적인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안석경이 보이는 ‘俠女에 대한 관심’, 현실인식에서 나타나는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 ‘조선 산수에 대한 긍지’는 당대 재야 노론 峻論系 문인에게서 공히 나타나며, 이들 문인들 중 다수가 안석경 집안과 교유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 山林處士들은 대외인식과 ‘俠’에 대한 관심을 결합시켰으며, 조선중화의식을 견지하며 산수를 유람하였다. 그런 점에서 안석경은 조선의 주체성을 모색하고 공존과 조화에 주목했던 당대 산림처사들의 사상적 지향과 문예경향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 VIII. 結 論

본고는 조선 후기 노론계 처사인 靑橋 安錫儼(1718~1774)의 산문을 분석하여 그의 현실인식과 작품세계의 연관 관계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로서 안석경이 보여주는 개성과 그의 산문 문학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안석경의 산문 문학은 노론계 문인의 동향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동시에 개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본고는 안석경의 문학이 당대 노론계 처사 문인군의 사상적 지향과 문예 경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안석경의 문학에서 그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Ⅱ장에서는, 안석경의 생애와 인맥 및 士意識과 文藝意識을 검토하였다. 안석경의 집안은 조선의 노론계 명문가와 인척관계를 맺고 있다. 안석경은 조부와 부친의 교유관계에 영향을 받아 당대 노론계 문인 및 처사와 교유하였고, 북학과와는 간접적인 교유를 가졌다. 그의 士意識은 春秋義理와 經世之學에서 잘 드러난다. 안석경은 당대를 자신의 뜻을 펼 수 없는 시대 상황으로 인식하고 부친의 뜻을 따라 은거하였다. 그런 여건에서도 그는 士로서의 책임의식을 견지하며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안석경은 특히 의론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안석경의 작품세계 중 그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면서도 문예미학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그의 산문문학의 핵심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안석경의 俠女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朴孝娘傳」과 「劒女」, 현실인식의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이 엿보이는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와 「擬大庭對策」, 산수에 대한 애호가 나타나는 산수유기 중 금강산 유기인 「東行記」와 「東遊記」를 주요 분석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안석경의 험녀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女俠敍事’를 분석하였다. 안석경은 보수적 담론이었던 ‘對明義理論과 北伐論’을 매개해 ‘여성·천민에 대한 인식의 갱신’이라는 진보적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대명의리의 실현과 북벌의 실제적 추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주체성과 역할을 자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자각이 君臣관계에 대응되는 男女·上下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확장되어, ‘俠女’를 주목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가 험녀를 주인공으로 설정한 것은 상대방과의 힘의 차이를 극대화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복수의 의지와 실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V장에서는, 안석경의 현실인식이 선명히 드러나는 ‘議論文’이 보여주는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關係를 고찰해 보았다. 안석경은 북벌의 단기적 추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북벌을 장기적·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으며, 현실적인 가능성을 확장함으로써 수정된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의 反淸感情과 북벌에 대한 집념은 그로 하여금 淸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한 동시에, 북벌의 현실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안석경은 현실의 폐해를 직시하고, 자신의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 개혁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혁안에는 관념적 면모가 내포되어 있었다. 물론 관념적 면모는 당대의 사회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혁신적인 현실개혁안을 내놓게 하는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제VI장에서는 안석경이 창작한 ‘山水遊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안석경은 산수유람을 통해 이상과 괴리된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움을 해소하고, 산수에 민생과 정국에 대한 고민을 투영하였다. 그는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조선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주장하였으며, 산수의 조화로운 광경을 보며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안석경은 산수유기에서 특히 주장과 주의를 개진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제VII장에서는, 안석경의 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가 창작한 산문의 문학사적 의의를 가늠해 보았다. 안석경은 춘추의리와 현실비판의식을 견지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을 문학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는 산문에서 작가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문예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결과 그는 대상의 형상화를 통해 독자에게 감흥을 주는 미학적 성취를 이루었고, ‘의론’의 감화력을 높였다.

본고는 안석경의 산문에 나타나는 주제의식이, 18세기의 조선이 주체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모색하고 他者를 사고해 가는 과정과 관련해 주목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안석경은 조선에 대한 긍지를 信義 있는 인간형과 山水에 대한 묘사로 구체화하고, 조선의 나아갈 방향을 ‘상하층의 공존과 조화’에 두었다. 그의 춘추의리는 여성과 천민에 대한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의식을 배태하고 있었다. 또한 안석경은 淸에 대해 강한 對他意識을 지녔다. 19세기에 들어와 北學派의 후예가 조선에 대한 긍지를 상실하고 타자인 淸을 추종해간 점을 상기할 때, 안석경의 이러한 ‘조선의 주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일정한 시대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편 안석경의 산문 문학은 18세기 노론계 처사의 현실인식 및 문예경향과 관련이 있다. 義俠에 대한 관심, 관념성과 현실성의 拮抗, 山水에 대한 愛好는 당시 노론계 처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들 중 다수는 안석경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따라서 안석경은 당시의 노론계 처사군의 사상적·문예적 경향의 특징적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고는 안석경의 산문을 통해 18세기 문학사에서 나타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조명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후기 사대부들이 검녀를 주목했던 현상이 시대적 상황 및 그들의 현실인식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사대부들이 견지했던 관념적·보수적 성향이 이들의 현실적·진취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본고의 미흡한 점과 추후 보완되어야 할 점을 간단히 언급하며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첫째, 본고는 안석경 문학에서 그의 현실인식과 문제의식을 핵심적으로 드러낸 산문을 선별하고 분석함으로써 그의 문학세계가 갖는 특징을 밝혀보려고 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산문 분석이 깊이 있고 예리하게 된 것 같지 않다. 이 점을 보완하는 일이 당장의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안석경 문학의 全貌를 고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 안석경 문학의 전체적 像을 그려나가는 일이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안석경에 대한 연구는 그가 포함된 노론계 처사군의 사상 및 문학적 특질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의 선배들 곧 17세기 중·후반의 노론계 문인들의 사상 및 문학적 특질을 파악하는 연구로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특히 17세기 중·후반의 노론계 문인의 사상과 문학에는, 18세기 북학과 및 안석경으로 대표되는 처사군이 배태될 가능성이 동시에 내포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 문학으로까지 관심을 확장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參考文獻

### 1. 資料

- 南有容, 『雷淵集』, 한국문집총간본 217~218, 민족문화추진회.
- 朴齊家, 『貞蕤閣集』, 한국문집총간본 261, 민족문화추진회.
- , 『貞蕤集 附 北學議』, 국사편찬위원회, 1971.
-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본 112~116, 민족문화추진회.
- 成大中, 『靑城集』, 한국문집총간본 248, 민족문화추진회.
- 成海應, 『研經齋全集』, 한국문집총간본 273~278, 민족문화추진회.
- 沈樂洙, 『恩坡散稿』, 규장각 소장본.
- 安錫傲, 『雪橋集』, 규장각 소장본, 한국문집총간본 233, 민족문화추진회.
- , 『雪橋集』 上·中·下, 동양문고 소장본, 栖碧外史海外蒐佚本 5~7, 亞細亞文化社, 1985.
- , 『雪橋集』, 가장본, 『筆寫本 雪橋集 二』, 토우, 2001.
- , 『雪橋別集』, 가장본, 『筆寫本 雪橋別集 三』, 토우, 2001.
- , 『雪橋集』, 『靑丘風雅』 卷之三, 규장각 소장본.
- , 『東行記』, 규장각 소장본.
- 安重觀, 『悔窩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 『皇賜梅詩文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安 垕, 『竹涯集』, 가장본.
- 李光庭, 『訥隱集』, 한국문집총간본 187, 민족문화추진회.
-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본 257~259, 민족문화추진회.
- 李東允, 『樸素村話』, 규장각 소장본.
- 任 邁, 『雜記古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林象鼎, 『自娛錄抄集』,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丁範祖, 『海左集』, 한국문집총간본 239~240, 민족문화추진회.
- 趙龜命, 『東谿集』, 한국문집총간본 215, 민족문화추진회.
- 洪大容, 『湛軒書』, 한국문집총간본 248, 민족문화추진회.
- 黃胤錫, 『頤齋亂藁』, 韓國學資料叢書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朴孝娘實記』, 경기대학교 소장본.
- 『刪補文苑植橘』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雪橋年譜』, 명지대학교 소장본.
- 『順興安氏族譜』, 규장각 소장본.

- 『列聖御製』, 奎章閣 資料叢書, 서울大學校 奎章閣, 2001.
- 『晦軒先生實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박희병 標點·校釋,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소명출판, 2005.
- 李 昉 等 編, 『太平廣記』, 김장환 외 역, 학고방, 2000~2005.
- 이우성·임형택 편역, 『李朝漢文短篇集』 上·中·下, 일조각, 1996.
- 임형택 편역, 『李朝時代 敘事詩』 上·下, 창작과비평사, 1992.

## 2. 단행본

- 김현룡,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太平廣記」의 影響을 中心으로』, 一志社, 1976.
- 박희병, 『문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2003.
- 유봉학, 『연암일과 북학사상 연구』, 일지사, 1995.
- 이재선, 『韓國短篇小說研究』, 일조각, 1975.
- 이희환, 『朝鮮後期 黨爭研究』, 國學資料院, 1995.
- 정옥자, 『조선 후기 조선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 卞孝萱·周群 主編, 『唐宋傳奇經典』,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99.
- 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8.
- 陳 穎, 『中國英雄俠義小說通史』,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8.

## 3. 논문

- 강여진, 『『雪橋集』 解題』, 『韓國文集叢刊 解題』 5, 민족문화추진회, 1991.
- 강혜선, 『17·8세기 金剛山の 文學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冠嶽語文研究』 제17집,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92.
- 김근태, 『삼교 안석경의 생애와 시』, 『문헌과 해석』 28호, 태학사, 2004.
- 김혈조, 『朴孝娘 사건과 그 文學적 演變』, 『人文研究』 10집 2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_\_\_\_\_, 『한시를 통해 본 이조여성의 형상: 訥隱 李光庭의 敘事的 漢詩를 통하여』, 『民族文化論叢』 9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류준경, 『박효랑 사건의 서사화 양상과 그 의미』, 『古典文學研究』 제25집, 韓國古典文學會, 2004.
- 박경남, 『丹陵 李胤永의 『山史』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1.
- 오항녕, 『朝鮮 孝宗代 政局의 變動과 그 性格』, 『泰東古典研究』 제9집, 翰林大學校

- 泰東古典研究所, 1993.
- 윤지훈, 「雪橋 安錫傲의 金剛山 遊記」, 『漢文學報』 제12집, 우리한문학회, 2005.
- \_\_\_\_\_, 「雪橋 安錫傲의 山水遊記 研究」, 『동계학술발표회 자료집』, 우리한문학회, 2005.
- 이명학, 「『雪橋漫錄』 研究: 漢文短篇 作家 및 作家意識에 대한 一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2.
- \_\_\_\_\_, 「漢文短篇 作家의 研究: 安錫傲의 경우」,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 창작과 비평사, 1983.
- \_\_\_\_\_, 「漢文短篇에 나타난 女性形像: 「劍女」와 「吉女」를 中心으로」, 『韓國漢文學研究』 8집, 韓國漢文學會, 1985.
- \_\_\_\_\_, 「第五·六·七冊 解題」, 『雪橋集』 동양문고본, 栖碧外史海外蒐佚本 5, 亞細亞文化社, 1985.
- 이종묵, 「안중관·안석경 부자와 충주의 가흥강」, 『문헌과 해석』 제28호, 태학사, 2004.
- 이태진, 「조선 후기 對明義理論의 變遷」, 『아시아문화』 제10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 정길수, 「『折花奇談』 研究: 19세기 愛情傳奇 傳統의 繼承과 變容」,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정민경, 「당대협소설속의 여협」, 『중국어문학지』 제12집, 中國語文學會, 2002
- 정우봉, 「『雪橋藝學錄』에 나타난 漢詩批評論」, 『漢文教育研究』 18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 \_\_\_\_\_, 「『雪橋藝學錄』의 散文修辭學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32집, 韓國漢文學會, 2003.
- \_\_\_\_\_, 「삼교 안석경의 비평의식」, 『문헌과 해석』 28호, 태학사, 2004.
- 정환국, 「조선 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韓國漢文學研究』 제29집, 韓國漢文學會, 2002.
- 진재교, 「李朝後期 漢詩에 나타난 ‘烈’의 時代相」, 『大東文化研究』 37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 최용철, 「한국소장 중국소설자료의 발굴과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10집, 중국어문연구회, 1996.

本文以考察雪橋安錫傲(1718~1774)的散文來闡明他認識現實的多重性及其對現實的認識在作品里的表現方式為目的。且將在闡明過程中考察安錫傲散文文學的文藝美。

為此，本文概括性地考察了安錫傲對現實的認識與文藝意識。安錫傲在確定自己的春秋義理在當時不可能實現後，選擇了作為處士的一生。他的春秋義理與當時的老論派文人處士們所堅持的對明義理論、北伐論、朝鮮中華意識的展開密切相關。安錫傲在堅持他作為“士”的責任意識的同時，摸索了改革現實的方案。安錫傲的這種經世面貌與他的春秋義理是交織在一起的。安錫傲的文藝意識可從他關注議論的感化力，摸索說服和教化讀者的方法中看出。本文旨在考察安錫傲對現實的認識與文藝意識在他的散文中表現出的具體的，多角度的形式。為此，將安錫傲的散文分為“女俠敘事”、“政論文”、“山水游記”三種類型來分析。

首先，考察了“女俠敘事”中表現出的主題意識。安錫傲的“女俠敘事”與朝鮮後期流行“女俠敘事”的狀況有着密切關連。當時之所以盛行“女俠敘事”，是因為受了中國豪俠傳奇，老論派文人堅持的對明義理和北伐論，黨派相爭引起的復仇心理的高漲等等的影響。安錫傲以刻畫女俠的形象來暗喻自己的對明義理論與北伐論。安錫傲在隱約地提示俠女的正義感和勇氣正是克服當時清與朝鮮之間的力量差異的方案。並且安錫傲又通過俠女的言行來批判當時社會的迂儒，而確信殃禍的存在。安錫傲的女俠敘事里包含着從當時的保守意識——對明義理論與北伐論出發的關注女性與百姓能力的進步意識的萌芽。

接着考察了安錫傲“政論文”中所體現的對現實的認識。安錫傲在認識到北伐很難在短期內實現後，將目標轉向了長期漸進的方案，以擴大現實可能性。安錫傲的反清情緒及對北伐的執着信念導致了他無法理性地判斷清的形勢。然而這却使他繼續摸索北伐的現實可能性，同時也是他得以承受無法開展北伐的當時社會現實的內在動因。安錫傲正視現實的弊端，為實現自己的理想尋找了改革方案。此方案中含有理想化的方面。這些理想化的方面在阻礙解決當時的社會問題的同時，

也成了迫使他思考進步的現實改革方案的基礎。這種觀念性與現實性的對抗模式是安錫傲散文文學的主要特點。

其次，考察了安錫傲的“山水游記”。安錫傲通過游覽山水來消除對不可能實現自己理想的社會的挫折與不滿。安錫傲在釋放由山水引發的興致時，溶入了自己對社會的問題意識。在安錫傲的山水游記里主體的內在心理的表現值得重視。他在描寫金剛山奇異景觀的基礎上主張朝鮮的自主性與主體性。不僅如此安錫傲在觀看山水相和諧的情景時，又抒發了上下階層應和諧共存的議論。

綜合以上的議論考察了安錫傲的散文在文學史上的意義。安錫傲作為老論派處士同時堅持了春秋義理與現實批判，而這種主題意識在他的散文文學里被形象化為多種形式。安錫傲為了傳達作者的主題意識採用了多種文藝技法。他通過對對象的形象化，議論與敘述的交叉，文勢的起伏與波瀾，興致的階段性高漲來加強了議論的說服力。

安錫傲散文中出現的主題意識有必要在18世紀朝鮮摸索作為主體的威望和整體性的過程中去考察。安錫傲的春秋義理不但起了使他更新對女性和百姓的認識的作用，也使他正視起朝鮮的抵禦能力。安錫傲把對朝鮮的自豪感擴大到了對山水美和具備信義之人之典型的具體描寫；而將朝鮮該發展的方向設定為“上下階層和諧共存”。18世紀以後，朝鮮的士大夫們失去了對朝鮮的自豪感，熱衷於了解清朝，而安錫傲卻認識到了朝鮮的主體性，宣揚自豪感，這一點值得人們關注。

安錫傲的散文文學與18世紀老論派處士文人對現實的認識及文藝傾向有關。當時對“俠”的關注，觀念性與現實性的對抗以及對山水的愛好多出現於以老論派處士文人為中心的人群中。而且，其中多數人都與安錫傲有直接或間接的關連。在這些議論的基礎上，本文闡明了安錫傲的作品里出現了對現實的多重認識，而這又是當時老論派處士群的思想，文藝傾向的特定一面。

主要語：雪橋 安錫傲，女俠敘事，俠女，春秋義理，老論派 處士  
學 番：2003-20001



## 【 부 록 】

- 부록1: 『雪橋集』 諸本 所載 산문의 비교 ..... 1
- 부록2: 雪橋 安錫傲 年譜 ..... 9

■ 부록1: 『雪橋集』 諸本 所載 산문의 비교

문체	작품제목	규장각본	동양문고본	가장본
序	送朴仲明序	○		
	遠遊篇序	○	○	
	贈申仲諧序	○		
	萍翁遺稿序	○		
	趙君光楫字序	○		
	送默者序	○		
	師古策記序	○	○	
	雉嶽大乘菴詩序	○	○	
	字權秀土序	○	○	
	送金上舍南徙樂安序	○	○	
	送安土固之海州序	○		○
	順興安氏族譜序(1)	○	○	
	先祖文成公晦軒先生實記序	○	○	
	從祖兄泰甫先生八十七歲壽序	○	○	
	壽遲齋金先生序	○	○	
	壽外舅同敦寧潘南朴公八十三歲序	○	○	
	壽謙菴李先生七十歲序	○	○	
	雪橋漫錄序	○		
	桂塘遺稿序	○		
	叔父蓑隱先生詩稿序	○		
	義田宅圖說序	○	○	
	擬作送畢誠節度邠寧序		○	○
	悼馬隆漢詩引		○	
	瑪川南壁詩序		○	○
	茅湖詩文卷序		○	○
	贈菊密和尚序		○	○
	寄瑞谷詩序		○	○
	臨去大乘庵詩序		○	○
	順興安氏族譜序(2)			
	慶念齋鄭公公華致事詩序		○	
	寄贈李深伯詩序			○
	夜起咏老木詩序			○
	姜翊周字序			○
	贈趙廣川南歸序			○
有信契卷序			○	
荅權聖甫序			○	
夢巽谷進士金公詩序			○	

序	朴士受字序			○
	記竹里金先生遺稿序			○
	竹里金先生遺稿序			○
記	謙菴言善錄序			○
	魚進士伯潤遺稿序			○
	擬作梅岡園記	○	○	
	赤岳書堂記	○	○	
	瑪川精舍記	○		
	敢川書屋記	○		
	訥齋記	○		
	足乎堂記	○	○	
	夢中到燕記	○	○	
	記林白湖語	○	○	
	南漢山城西將臺無忘樓記	○	○	
	熙政堂宋文正先生獨對記	○		○
	龍村記	○		○
	笑庵記	○		○
	長厚堂記	○		○
	萬石亭記	○		○
	三清堂記	○	○	
	洗谷幽居記	○	○	
	三山縣倉重建記	○	○	
	滄洲精舍記	○	○	
	樂生軒記	○	○	
	安昌七柳軒記	○	○	
	樂隱菴記	○		
	檜軒記	○		
	宗海堂記	○	○	○
	獨笑堂記	○		
	晚悟堂記	○		
	遊天登山記		○	○
	遊清平山記		○	○
	記聞		○	
	雜記(1)		○	○
	雙溪寺再建記		○	○
	一山記		○	
	雜記(2)		○	○
	擬作籌邊樓記		○	○
	擬作綠野堂記		○	○
漫記		○	○	
遊愛日堂記		○	○	

記	遊陶山易東二書院記		○	○
	惜陰齋記		○	○
	有江軒記		○	○
	如山齋記		○	○
	夢中談文記		○	○
	記夢		○	○
	果橋幽居記		○	
	豹庵記		○	○
	看草亭記		○	○
	關候廟記		○	○
	肅齋記		○	○
	荷山庄記		○	○
	一齋記		○	○
	君子堂記		○	○
	夢何人記		○	○
	山泉齋記		○	○
	記長湍子語贈朴士欽士直		○	○
	夢百淵先生記		○	○
	佛王村記李莢語		○	○
	夢璨淵僧記		○	○
	夢百淵先生談詩記		○	○
	木軒記		○	○
	遊雉岳大乘庵記		○	○
	記僧就悅事		○	
	龜龍寺白蓮堂記		○	○
	德高山天眞寺舊遊記		○	○
	存五谷村舍記		○	○
	日知庵記		○	○
	味道堂記		○	○
	味道堂記(改本)		○	
	雲鳥軒記		○	○
	闕遠堂記		○	○
	百迂堂記		○	○
	自知庵記		○	○
	東行記		○	
	東遊記		○	
	遊龍頭山記			○
	遊清涼山記			○
	游紺岳白蓮菴記			○
	義林湖記			○
樂齊記			○	
亡友行藝記			○	

記	遊南漢山城記			○
	夢中記			○
	檢丹山寺夢李叔耕記			○
	記亡友朴汝良事贈其二子玄澤連澤			○
	松岳幽居記			○
	在人村舍記			○
	蟠松亭記			○
	雪岳記			○
	敬齋記			○
	負菴記			○
	青草湖泛舟記			○
	悔淵齋記			○
	龔啞齋記			○
	權氏百忍堂記			○
花隱菴記			○	
題跋	書姜翊周戰國策抄後	○		
	書季華手寫孫武書後	○		
	書朴思伯所藏李白詩後	○		
	書阮籍詠懷詩後	○		
	題李東常所書李白詩卷後	○		○
	書管子後	○		○
	書閔文忠公奏議後	○		○
	書遠別離篇後		○	
	題小陵七夕詩後		○	
	書河東集句字抄後		○	○
	題嚴子陵觀魚圖		○	○
	題杜律抄後		○	○
	書可興十景錄後		○	○
	禮記周禮抄跋		○	○
	書左思咏史詩後		○	○
	書李叔畊詩紙後		○	○
	書萍翁詩紙後		○	○
	書哭辭後寄李上舍汝諧		○	
	壬戌十月望舟遊蟾江詩跋		○	
	書中仲諧書經後		○	○
	書阮籍詠懷詩後		○	
	題金生金字佛經		○	○
	題金生金字佛經 (又)		○	○
	書純懶尹處士堪輿說後		○	○
	題尹處士堪輿說		○	○
	題少陵七夕詩後			○
	書仲明處我序後			○
	書孫武子後			○

題跋	季華四郡詩後題			○
	士述詩軸跋			○
	書方正學文集後			○
	題李公亮詩卷			○
	書曾南豐講反議後			○
	題挹翠軒集後			○
	題鹿隱翁詩文雜編			○
說	明德說	○	○	
	山中雜說	○	○	
	豕說		○	○
	薇陰處士琴說		○	
	龜龍麟鳳說		○	○
	薇陰處士琴說			○
	菊花說			○
	善國說			○
論	論王猛	○	○	
	呂甥論	○		
	房玄齡論	○	○	
	元魏孝文帝論	○		
	諸葛孔明論	○		
	論華陽洞萬東祠作碑事	○	○	○
	論范增		○	○
	論夜拜宋昌爲衛將軍		○	○
	蘧伯玉論		○	○
	子家霸論		○	○
	論箕子君於朝鮮事		○	○
	趙襄論		○	○
	論槎川遺集事贈柳生約行中		○	○
	周勃論		○	○
	孫叔敖論			○
	論邵堯夫四賢吟			○
頌	建文皇帝賢臣頌	○	○	
	鑄銅裏松頌		○	○
贊	漢之高士贊	○	○	
	陳圖南張三丰贊	○	○	
	周新贊	○	○	
	諸葛孔明眞贊	○		○
	安期生贊	○		○
	張子房贊	○	○	○
	盧子玄贊			○
墓誌銘	孺人潘南朴氏墓誌銘			○
	淑人順興安氏墓誌銘			○
	學生權公墓誌銘			○

箴銘	重陽硯銘	○		
	念齋銘	○	○	
	斬蛇劍銘		○	○
	柔室銘			○
書	與丁法正書	○	○	
	與何人書(1)	○	○	
	與丹室子書	○	○	
	與湛齋李公書	○	○	
	答閔順之	○	○	
	答樓江韓斯文器夫	○		
	答一和上人		○	
	與妙心		○	
	與信祐		○	
	與某友(1)		○	
	與某友(2)		○	
	答某友		○	
	擬四皓與子房書		○	
	擬子房與四皓書		○	
	候姜上舍		○	
	與何人書(2)		○	
	與李某		○	
	贈安土固語		○	
	簡李侍直		○	
	答成大中書		○	
	答丁法正牘(1)			○
	答丁法正牘(2)			○
	寄李衡翼三兄弟書			○
	寄權啓徵書			○
寄李衡翼昆弟書			○	
傳	小高城傳	○	○	
	權孝子傳	○		
	朴孝娘傳	○		○
	黃忠孝傳		○	
	姜沆傳		○	
	金英哲傳		○	
	金孝子傳		○	
狀	申孝子狀		○	○
	孝婦烈婦狀		○	○
	陶沙谷申孝子狀		○	○
	梅谷李處士狀			○
	鼎山申學生狀			○
	元光宇孝烈狀			○
行狀	雙溪朴先生行狀	○		

行狀	從祖承政院同副承旨安公行狀		○	○	
	從祖叔父工曹參判安公行狀		○	○	
	瑞谷大禪師粲淵行狀		○		
	從祖考行狀			○	
	外從祖通德郎朴公行狀			○	
行錄	通德郎高靈朴公行錄		○	○	
	孺人全州李氏行錄		○		
	通德郎高靈朴公遺事錄		○	○	
	孺人固城李氏遺事錄		○	○	
	學生高靈朴公行錄		○	○	
	外從祖妣孺人全州李氏行錄			○	
	申君敬行錄			○	
祭文	祭李文甫泐文	○			
	祭亡室朴氏墓文	○			
	祭第四弟文	○	○		
	祭姪女任氏婦文	○		○	
	尤菴先生遷葬祭文	○		○	
	祭申君敬墓文	○		○	
	叔父襄隱先生祭文	○		○	
	祭朴思伯文	○		○	
	外姑安東金氏祭文	○		○	
	祭韓甥文	○	○		
	祭外甥韓建中文	○	○		
	祭從祖兄泰甫先生文	○			
	祭虞灣金士修先生文	○			
	祭舅氏高靈朴公文		○		
	祭權陽仲文		○		
	德高山祈雨祭文		○		
	德高山祈雨祭文(又)		○		
	南德高山祈雨祭文		○		
	社稷壇祈雨祭文		○		
	鼎金山祈雨祭文		○		
	祭漁隱鄭公文		○		
	藏譜閣地神祭文		○		
	祭申君敬文			○	
	祭任德甫文			○	
	祭權漢鉉文			○	
	祭戚兄朴進士致甫文			○	
	祭隱峯居士朴公文			○	
	祭東陽申公文用演連珠體			○	
	戚從姑母南陽洪氏祭文			○	
	里人祭城隍文			○	
	誄詞	壽谷辛公誄	○	○	



誄詞	朴景心誄	○		○
	鄭應五注書哀詞	○		○
	李景淵哀詞	○		
	鄭而會哀辭		○	
	安士及哀辭		○	
	哭李叔畊辭		○	
	郭士儀誄		○	
	徐達夫哀辭		○	
	李進士深伯誄		○	
	閔元之誄		○	
	權滄洲一之進士哀辭		○	
	湛存齋李公誄			○
	權生漢鉉哀辭			○
	鄭士述誄			○
	李松禾令人安氏誄			○
金斯文季賢哀辭			○	
對策	擬大庭對策	○		
	擬策題		○	
	擬殿策			○
	擬策問			○
上樑文	雪橋龍淵學舍上樑文		○	○
	順興安氏藏譜閣上樑文		○	○
	江陵烏竹軒重修上樑文		○	○
告文	雪橋告德高山文		○	○
	安山土地之神告文			○
	大德山晦軒先生安文成公墓告文			○
檄文	擬修皇明北伐檄文記	○	○	
表	擬作朝鮮航海南朝表		○	
巡營文	湖海亭三淵影堂營建呈巡營文		○	○
問答	問權者聖人之大用也			○
	問論語集註~			○
	問聖賢之所告於人~			○
	問易大傳~			○
	問儀禮經傳通解~			○
	問匪風下泉~			○
	問夢者神明之動~			○
問出處之際~			○	
雜著	雜聞		○	
	請挽小錄		○	
	漫書			○

## ■ 부록2: 雪橋 安錫傲 年譜

\* 이 연보는 강여진 씨가 작성한 『雪橋集』 解題(『韓國文集叢刊 解題』 5, 민족문화추진회, 1991) 및 명지대학교 소장본 『雪橋年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서기 (왕력, 간지)	연령	주요사항
1718 (숙종44, 戊戌)	1	7월 癸丑일 戌時에 충청도 충주 可興 雙杵谷에서 부친 安重觀과 모친 高靈 朴氏의 차남으로 태어나다.
1722 (경종2, 壬寅)	5	부친 安重觀에게 수업을 받다.
1727 (영조3, 丁未)	10	가을, 부친을 따라 서울에서 가흥으로 돌아가다.
1728 (영조4, 戊申)	11	6월, 李麟佐의 난을 피해 堤川의 陶村으로 거처를 옮기다.
1732 (영조8, 壬子)	15	『孟子』, 『資治通鑑綱目』, 『史記』, 杜詩, 兵書を 즐겨 읽다.
1736 (영조12, 丙辰)	19	潘南 朴氏와 혼인하다.
1737 (영조13, 丁巳)	20	공조 좌랑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서울로 가다. ○ 李秉淵과 金相履가 그의 詩를 칭찬하다.
1738 (영조14, 戊午)	21	洪川 縣監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가다. ○ 오대산을 유람하고 승려 璨淵을 만나다.
1739 (영조15, 己未)	22	淸平山을 유람하다.
1740 (영조16, 庚申)	23	원주 興原으로 移居하다.
1742 (영조18, 壬戌)	25	7월, 가흥강을 유람하다.
1743 (영조19, 癸亥)	26	順興의 白雲洞書院에서 晦軒 安尙의 모를 배알하다. ○ 龍頭山과 淸凉山을 유람하다.
1744 (영조20, 甲子)	27	부인 潘南 朴氏가卒하다. ○ 堤川 縣監으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攄川으로 가다. ○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다. ○ 가을, 鄭公述과 義林湖를 유람하다.
1745	28	紺岳山을 유람하다.

(영조21, 乙丑)		○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다.
1746 (영조22, 丙寅)	29	密陽 朴氏와 재혼하다. ○ 「夢中到燕記」를 짓다. ○ 詩卷에 『童時所願慕』라는 제목을 붙이다.
1747 (영조23, 丁卯)	30	동생 安錫任과 남한산성을 유람하다.
1748 (영조24, 戊辰)	31	장녀가 태어나다. ○ 가을, 權實甫와 德高山을 유람하다.
1749 (영조25, 己巳)	32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다. ○ 龍門山을 유람하다.
1751 (영조27, 辛未)	34	차녀가 태어나다. ○ 가을,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하고 聖藏山에서 독서하다. ○ 鄭夢周의 화상을 배알하다. ○ 華山 白雲臺에 오르다. ○ 「擬大庭對策」을 쓰고 은거를 결심하다.
1752 (영조28, 壬申)	35	여름, 雉岳山 大乘菴에서 독서하다. ○ 꿈에서 金昌翁을 보다. ○ 安山의 산중에 거처하며 학문과 문장에 힘쓰다. ○ 12월 26일, 원주 興原에서 부친 安重觀이 별세하다.
1753 (영조29, 癸酉)	36	2월, 부친을 原州 富論面 蓀谷里 安山谷에 장사지내다.
1755 (영조31, 乙亥)	38	3월, 부친의 탈상을 하다. ○ 6월, 아우 安錫佶가 역병에 걸려 추하다.
1756 (영조32, 丙子)	39	해주 수양산에 가서 淸聖廟를 배알하다. ○ 九月山을 유람하다. ○ 숙부 簑隱公이 下世하다.
1757 (영조33, 丁丑)	40	宋時烈의 묘를 옮길 때 제문을 쓰다. ○ 원주 蓀谷 安山里에 우거하다.
1758 (영조34, 戊寅)	41	朴淵을 유람하다. ○ 숙부 簑隱公의 제문을 쓰다.
1760 (영조36, 庚辰)	43	강릉 오죽헌을 유람하고 五峯書院에서 공자의 眞影을 배알하다. ○ 봄, 설악산을 유람하고 五歲菴에서 김시습의 畫像을 배알하다.
1761 (영조37, 辛巳)	44	「明德說」을 짓다. ○ 여름, 금강산을 유람하다.

		○ 「雪橋漫咏」을 짓다. ○ 이 무렵 『槎川遺集』을 편찬하는 데 대해 논의하다.
1762 (영조38, 壬午)	45	서자 洪永(洪濬)이 태어나다.
1765 (영조41, 乙酉)	48	8월, 閔百順, 申子翊과 금강산을 유람하다. ○ 『順興安氏族譜』의 序를 쓰다. ○ 江原道 橫城 屯內面 雪橋里에 寓居하다. ○ 삼교의 학사에서 講學하다.
1766 (영조42, 丙戌)	49	『晦軒先生實記』의 序를 쓰다.
1767 (영조43, 丁亥)	50	遺逸로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1769 (영조45, 己丑)	52	벗 璨淵이 卒하다. 그의 행장을 짓다.
1770 (영조46, 庚寅)	53	강릉참봉을 제수받으나 나아가지 않다. ○ 1770년에서 1773년까지 『雪橋別集』을 저술하다.
1771 (영조47, 辛卯)	54	황무지를 개간하여 형제와 친족 및 벗과 함께 하려 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다. 7월, 벗 민백순이 別世하다. ○ 서자 洪濬을 후사로 삼다. ○ 8월 18일, 삼교 精舍에서 별세하다. ○ 10월에 삼교리 庭德谷에 장사지내다.
1774 (영조50, 甲午)	57	정월, 동생 안석임이 행장을 쓰다.
1775 (영조51, 乙未)		문집이 간행되다.
1906 (고종43, 丙午)		문집이 간행되다.
1935 (乙亥)		裴縉煥이 안석경의 묘갈명을 쓰다.